

# 河南省史料集

①

古代·中世篇

林州今住林郡也錄州今之扶錄郡也百濟地理志曰  
 後漢書曰三韓九七十八國百濟是其一國焉北史古  
 百濟東極新羅西南限大海北際漠江其郡曰居扶城  
 又云固麻城其外更有五方城 通典云百濟南接新  
 羅北距高麗西限大海 舊唐書云百濟扶夫之別記  
 東北新羅西渡海越州南渡海至倭北高麗其王所居

河南文化院

◆ 편집자

· 김세민(金世民)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  
현재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강사  
하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장득진(張得振)

한양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원 사학과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회안역사연구회 회장

# 河南省史料集

1

〔古代・中世篇〕

編著者 金世民・張得振

河南文化院

## 발 간 사

우리 고장의 잊혀져 가는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집대성해 가는 향토사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를 찾고 보존·전승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며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하남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인 『하남시 사료집 I - 古代·中世篇』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사료로 각종 사서와 금석문 및 읍지류 등에서 광주에 대한 것을 발췌 수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대와 고려시대의 문헌에 우리 고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은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과 연구자의 빈곤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향토사료집의 발간은 지역의 향토사에 관심이 있는 향토사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도 우리 고장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하남문화원은 본서를 계기로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를 상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자료로 정리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하남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전승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역사서로서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사교육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하남역사 정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남시민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료집이 간행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시사편찬위원회 김세민 상임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2월 25일

하남문화원장 구자관

## 서 문

하남(河南)은 서울 근교에서 흔히 많은 역사적 고장이다. 하남시가 '하남'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사시대 이래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을 거치는 동안 하남지역은 원래 광주(廣州)의 역사·행정 중심지였다.

그러나 1626년 하남에 있던 읍치(邑治)가 남한산성(南漢山城) 안으로 옮겨간 이후 하남지역이 역사·행정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고 그 후 광주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다가 시(市)가 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시의 명칭을 '하남'으로 한 것은 초기 백제의 도읍지인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서 따온 것이다. 하남이 백제의 도읍지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하남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향토사가들에 의해 하남이 초기 백제의 도읍지라거나, 이성산성(二聖山城)이 '하남위례성'이라고 주장되었지만, 문헌이나 고고학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제 뜻있는 지역 사람들과 역사 전공자·고고학 전공자에 의해 하남·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회(淮安歷史研究會)도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발족되었고, 하남시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 및 이성산성의 발굴, 그리고 하남시사(河南市史) 편찬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즈음에 하남문화원(河南文化院)에서는 하남시의 역사사료집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첫번째 작업으로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고려사절요』·『고려도경』 이외에 금석문과 기문 및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하남 기사를 뽑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마침 경기도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경기도사자료집(京畿道史資料集)』(1998)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주로 활용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하남기사'라는 것은 광주를 포함한 기록이고, 광주는 지금의 서울과 성남 및 광주 주변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사중에는 지금의 하남·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기록중에는 현재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유적이나 지명도 있다. 예를 들면 '하남위례성'이나 단순히 '광주'라고만 지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하남위례성'의 경우, 지금도 학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지금의 하남시 춘궁동과 남한산성 일대라는 학설이나, 서울의 몽촌토성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지역은 고려·조선 시대만 해도 다같은 광주지역이지만, 현재는 서울과 하남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민 사이에는 학문과는 별도의 정서적인 면에서 서로 백제의 초기 도읍지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인종의 명(1145)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정사이며, 『삼국유사』는 일연이 충렬왕 때(1281년경)에 편찬한 사서로, 이 두 가지 사서는 삼국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기본자료이다.

『고려사』는 조선조 세종 때(1449)에 편찬을 시작하여 문종 때(1451) 완성된 고려시대의 사서이며, 고려시대 연구의 기본자료이다. 『고려사절요』는 1452년에 편찬된 사서로 『고려사』와 보완관계에 있는 중요한 책이다. 『고려도경』은 1123년 송나라 사람 서공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다른 고려사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도 있지만, 한편으로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실록』(1454)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때(1481)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 때(1530) 증수한 것이다. 모두 조선 전기의 지방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모든 자료가 다 장단점이 있듯이 위의 자료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료를 이용하는 독자들은 반드시 검토 및 비판·취사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료집이 엮어지기까지 하남문화원 이훈범 사무국장의 역할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아무쪼록 이 사료집이 하남을 이해하는 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 많은 오류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며 모두 편자의 책임이다. 많은 질정(叱正)을 바란다.

하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 세 민

# 목 차

발간사

서 문

##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7월	
○ 신주의 설치 .....	2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8년	
○ 북한산주 .....	2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정월	
○ 한산주 .....	2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10월 22일	
○ 한산주 소감, 남한산 .....	2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8월	
○ 한산주의 주장성을 쌓다 .....	28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17년 10월	
○ 한산주 관내에 성을 쌓다 .....	28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6년 12월	
○ 한산주를 한주로 개칭하다 .....	28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선덕왕 3년 2월	
○ 선덕왕이 한산주를 순행하다 .....	2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5년 정월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한산주의 백성이 굶주리다 .....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6년 5월	
○ 한산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다 .....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10년 7월	
○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치다 .....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8년 7월	
○ 한산 북쪽의 주민을 징발하여 장성을 쌓게 하다 .....	29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2년 7월	
○ 궁예가 한산주 관내의 성을 빼앗다 .....	30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4년 정월	
○ 도움을 한산으로 천도하다 .....	30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즉위조	
○ 비류·온조의 백제건국설화 .....	30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8년 2월	
○ 말갈이 위례성을 공격하다 .....	34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3년 5~7월	
○ 한산으로 민호를 옮기다 .....	34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7년 봄	
○ 낙랑이 위례성을 침공하다 .....	35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41년 2월	
○ 한수 동북만이 위례성을 수리하다 .....	35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책계왕 즉위조	
○ 위례성·아차성·사성을 수축하다 .....	35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 7월	
○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다 .....	36
『삼국사기』 권35, 지4, 지리2, 신라	
○ 한주 .....	36

『삼국사기』 권37, 지6, 지리4, 고구려  
 ○ 위례성의 위치가 불확실하다 ..... 37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제군관,  
 ○ 한산정에 3인의 장군을 두다 ..... 37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관대감  
 ○ 한산정에 대인대감 4인을 두다 ..... 38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대감  
 ○ 한산정에 보병을 통솔하는 대대감 3인을 두다 ..... 38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제감  
 ○ 한산정에 제감 4인을 두다 ..... 39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감사지  
 ○ 한산정에 감사지 1인을 두다 ..... 39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소감  
 ○ 한산정에 소감 15인을 두고, 한산주서에 소감 9인을 두다 ..... 40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화척  
 ○ 한산정에 화척 10인을 두다 ..... 41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군사당주  
 ○ 한산정에 군사당주 1인을 두다 ..... 41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장척당주  
 ○ 한산정에 대장척당주 1인을 두다 ..... 42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보기당주  
 ○ 한산에 보기당주 6인을 두다 ..... 42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착금기당주  
 ○ 한산주에 착금기당주 6인을 두다 ..... 42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비금당주  
 ○ 한산주에 비금당주 2인을 두다 ..... 43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사자금당주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한산주에 사자금당주 3인을 두다 .....	43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흑의장창말보당주	
○ 한산에 흑의장창말보당주 28인을 두다 .....	43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군사감	
○ 한산정에 군사감 2인을 두다 .....	44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장대감	
○ 한산정에 대장대감 1인을 두다 .....	44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보기감	
○ 한산에 보기감 6인을 두다 .....	44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착금감	
○ 한산에 착금감 6인을 두다 .....	45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육정	
○ 6정 가운데 한산정이 세번째이다 .....	45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오주서	
○ 오주서 가운데 한산주서가 세번째이다 .....	46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만보당	
○ 한산주의 만보당은 황흑색과 황녹색이다 .....	46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이계당	
○ 이계당 중 한산주계당이 첫번째이다 .....	47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이궁	
○ 이궁 가운데 한산주궁척이 첫번째이다 .....	47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삼변수당	
○ 삼변수당 중 한산변이 첫번째이다 .....	48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 신주 .....	48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 문무대왕이 남한주로 돌아오다 .....	48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 궁예가 경기도 여러 고을을 점령하다 ..... 49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전백제  
 ○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움을 정하다 ..... 51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전백제  
 ○ 근초고왕이 수도를 한산으로 옮기다 ..... 53

기타(其他)

『일본서기』 권14, 응락천황 20년 겨울  
 ○ 장수왕이 위례성을 함락시키다 ..... 55

이성산성 출토 목간

○ 남한성 도사 ..... 55

『고려사(高麗史)』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무편년  
 ○ 태조가 광주 등 군현을 정벌하다 ..... 57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년 정월 을해  
 ○ 왕이 광주에 머무르다 ..... 57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0년 6월  
 ○ 광주에 도적이 일어나다 ..... 58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2년 6월 무진  
 ○ 광주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 58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0년 9월 갑신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광주 등 각지에 무문사를 파견하다 ..... 58
-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1년 5월 무인
- 광주에 가뭄이 들다 ..... 60
-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18년 11월 임오
- 광주·봉주에 재해가 발생하다 ..... 61
-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1년 정월 무진
- 홍왕사에서 연등대회를 열기 위해 광주 등의 주에 역을 명령하다 ..... 61
-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1년 8월 갑자
- 광주 가돈원에 행차하다 ..... 62
-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4년 10월 병인
- 양광주 등에 토산물 공납을 독촉하다 ..... 62
-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8년 12월 정사
- 몽고군이 광주를 침입하다 ..... 63
-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2년 윤7월 임오
- 광주 남경을 강화에 소속시키다 ..... 63
-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0년 8월 경신
- 광주에 몽고군이 침략하다 ..... 64
-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0년 11월 기축
- 광주 등지에서만 축하 표문을 올리다 ..... 64
-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1년 8월 병자
- 광주에 몽고군이 들어오다 ..... 64
-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5월 임진
- 광주 의안의 흠으로 기와를 굽다 ..... 64
-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6년 3월 을묘
- 전 광주판관 이인정을 지후로 삼다 ..... 65
-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2년 9월 을유
- 장선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 65

『고려사』 권34, 세가34, 충선왕 4년 3월 정사  
 ○ 설영임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 66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원년 5월 기축  
 ○ 광주 미원장을 현으로 승격시키다 ..... 66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10년 11월 무진  
 ○ 왕이 광주에 머무르다 ..... 67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10년 11월 정축  
 ○ 조희고를 광주목사에 임명하다 ..... 68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1년 8월 경술  
 ○ 남경광주도병마사에 김계생을 임명하다 ..... 68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윤3월 을유  
 ○ 광주목사 송양우를 2등공신으로 삼다 ..... 69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5월 갑오  
 ○ 광주도병마사에 장천지를 임명하다 ..... 71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5년 6월 을축  
 ○ 광주의 공납을 이득림이 도독질하다 ..... 72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3년 6월 정유  
 ○ 염제신을 광주로 귀양보내다 ..... 73

『고려사』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4월 임인  
 ○ 광주 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해에게 공신호를 내리다 ..... 73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인종 12년 5월 무인  
 ○ 광주에 핏비가 내리다 ..... 75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문종 11년 5월 무인  
 ○ 광주 등 군에 비를 빌도록 하다 ..... 76

『고려사』 권55, 지9, 오행3, 정종 2년 6월 무진  
 ○ 광주 등지에 지진이 일어나다 ..... 76

『고려사』 권55, 지9, 오행3, 신우 11년 7월 경진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광주 도미사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다 .....	76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 양광도 .....	77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 광주목 .....	77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 천녕군을 광주목에 소속시키다 .....	79
『고려사』 권78, 지32, 식화1, 전제 경리 문종 18년 11월	
○ 광주에 한발이 오래 계속되다 .....	79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휼 은면지제 의종 21년 9월	
○ 광주의 부역을 면제하다 .....	80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휼 은면지제 고종 22년 5월	
○ 광주의 상요와 잡역을 면제하다 .....	80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휼 수한역려여진대지제 예종 4년 12월	
○ 광주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다 .....	81
『고려사』 권82, 지36, 병2, 참역	
○ 광주가 평구도에 속하다 .....	81
『고려사』 권82, 지36, 병2, 마정	
○ 광주의 마정(馬政) .....	83
『고려사』 권83, 지37, 병3, 주현군 양광도	
○ 광주의 주현군 .....	84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광주원부인 왕씨	
○ 광주원부인 .....	85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소광주원부인 왕씨	
○ 소광주원부인 .....	85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후광주원부인 왕씨	
○ 후광주원부 .....	85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부 이총언  
 ○ 광주·죽주 등 창고의 곡식을 하사하다 ..... 85

『고려사』 권93, 열전6, 채충순  
 ○ 왕이 거란을 피해 광주에 체류하다 ..... 86

『고려사』 권94, 열전7, 지채문  
 ○ 공민왕이 피난길에 광주를 지나다 ..... 88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 윤관이 여진 추장을 광주에 잡아가두다 ..... 94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부 윤언이  
 ○ 윤언이가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 96

『고려사』 권97, 열전10, 김경용  
 ○ 광주관관 김경용 ..... 97

『고려사』 권97, 열전10, 김약온  
 ○ 김약온이 광주통판을 역임하다 ..... 98

『고려사』 권99, 열전12, 최유청  
 ○ 최유청이 광주목사로 강직되다 ..... 98

『고려사』 권99, 열전12, 염신약  
 ○ 염신약이 광주장서기를 역임하다 ..... 99

『고려사』 권100, 열전13, 경대승  
 ○ 이돈실이 광주로 귀양가다 ..... 100

『고려사』 권105, 열전18, 홍자번  
 ○ 홍자번이 광주통판을 역임하다 ..... 100

『고려사』 권108, 열전21, 이훈  
 ○ 이훈이 광주참군을 역임하다 ..... 101

『고려사』 권109, 열전22, 이진  
 ○ 이진이 광주사록을 역임하다 ..... 102

『고려사』 권112, 열전25, 조운흘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조운홀이 광주에 거주하다 .....	102
『고려사』 권114, 열전27, 나세	
○ 나세를 광주옥에 가두다 .....	104
『고려사』 권114, 열전27, 최운해	
○ 최운해가 광주 등처 절제사 겸 판광주목사가 되다 .....	106
『고려사』 권122, 열전35, 환자 백선연	
○ 광주서기 김류가 백성의 자산을 토색하다 .....	106
『고려사』 권126, 열전39, 간신2, 왕안덕	
○ 광주절제사 최운해가 왜적을 추격하다 .....	107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왕규	
○ 광주인 왕규를 추방하다 .....	108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한순	
○ 진위현 사람 이장대가 광주로 쳐들어가다 .....	109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6, 신돈	
○ 광주 천왕사의 사리를 왕륜사로 옮기다 .....	110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6월 병진	
○ 왕건이 광주 등을 치다 .....	113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년 정월 을해	
○ 현종이 광주에 머무르다 .....	115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년 정월 무인	
○ 현종이 광주를 출발하여 비너역에 이르다 .....	115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6월	
○ 광주에서 도적이 일어나다 .....	116
『고려사절요』 권4, 정종 2년 6월 무진	

○ 광주 등지에 지진이 나다 ..... 116

『고려사절요』 권5, 문종 18년 11월

○ 광주·봉주에 재해가 들다 ..... 116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1년 정월

○ 흥왕사 낙성에 광주 등에서 채봉을 꾸미게 하다 ..... 117

『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0월 임인

○ 여진 추장을 잡아 광주에서 고문하다 ..... 118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12월

○ 광주 등지의 기민을 진휼하다 ..... 118

『고려사절요』 권9, 인종 3년 9월

○ 광주목 판관을 역임한 김경용이 졸하다 ..... 118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12년 3월

○ 최유청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 119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1년 8월

○ 왕이 남경으로 거둥하니 광주에서 마중나오다 ..... 119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1년 9월

○ 광주장서기 김류가 환관에게 뇌물을 주다 ..... 120

『고려사절요』 권12, 명종 11년 3월

○ 이돈실을 광주로 귀양보내다 ..... 120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정월

○ 광주와 수주에서 징병하다 ..... 121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10월

○ 광주 등지에 토공을 독촉하다 ..... 122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8년 9월

○ 광주 관악산의 초적을 충군하다 ..... 122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8년 12월

○ 몽고군이 광주 등지를 잔멸하다 ..... 123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5월  
 ○ 광주의 부세를 면제하다 ..... 123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7월  
 ○ 광주와 남경을 강화에 합치다 ..... 123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0년 8월  
 ○ 몽고군이 광주의 가옥을 불태우다 ..... 124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0년 11월  
 ○ 광주에서 표문을 올리다 ..... 124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1년 8월  
 ○ 몽고의 척후 기병이 광주에 이르다 ..... 124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4년 3월  
 ○ 설영임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 125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5년 2월  
 ○ 보우의 거주지인 광주 미원을 현으로 승격하다 ..... 125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0년 11월  
 ○ 광주에 이르러 유탁에게 벼슬을 내리다 ..... 125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0년 11월  
 ○ 조희고를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 126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4월  
 ○ 광주 천왕사의 불사리를 왕륜사에 안치하다 ..... 127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6월  
 ○ 광주의 공물을 가로챌 이득림이 탄핵되다 ..... 127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3년 6월  
 ○ 시중 염제신을 광주로 귀양보내다 ..... 128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4년 11월  
 ○ 광주목의 지평현에 감무를 두다 ..... 129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도경』 권3, 성읍 봉경  
 ○ 광주도 ..... 131

『고려도경』 권4, 문궐 외문  
 ○ 안정문은 경주·광주·청주로 통하다 ..... 132

『고려도경』 권23, 잡속2, 토산  
 ○ 광주는 큰 소나무가 많다 ..... 133

『고려도경』 권25, 수조 기거  
 ○ 광주의 수령이 성체의 안부 등을 묻다 ..... 134

『고려도경』 권39, 해도6, 자연도  
 ○ 자연도는 광주이다 ..... 134

금석문(金石文)·기문(記文)

유진고□□중원부 고개천산 정토사 교시 법경대사 자등지탑비명 병서(有晉故□□中原府故開天山 淨土寺 教諭 法鏡大師 慈燈之塔碑銘 並書)  
 ○ 법경대사가 한주와 광주를 거쳐 충주의 정토사에 이르다 ..... 137

혜목산 고달선원 국사 원종대사지비(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 고려국 광주 혜목산 고달선원 고국사제 증시원종대사혜진지탑비명 병서(高麗國廣州慧目山高達禪院故國師制贈諡元宗大師慧眞之塔碑銘并序)  
 ○ 왕명으로 원종대사가 광주 천왕사에 머물다 ..... 138

광주 교산리 마애약사상(廣州 校山里 磨崖藥師像)  
 ○ 광주 교산리의 마애약사상 ..... 143

고려국졸태사 삼중대광내사령 최정숙공 묘지(高麗國卒太師 三中大匡內史令崔貞肅公廟誌)  
 ○ 최사위(崔士威)는 광주목 관내 수주인이다 ..... 143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중서시랑평장 문강공 묘지 병서(中書侍郎平章 文康公 墓誌 並書)

- 윤언이(尹諺頤)가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 144

졸내시검교 호부상서 시대복소경 윤공묘지명(卒內侍檢校 戶部尙書 試大僕少卿 尹公墓誌銘)

- 윤언민(尹彦旼)이 광주목 부사를 역임하다 ..... 145

졸고려국삼중대광개부의동삼사검교대사수사도 상서좌복야참지정사판상  
서공부 사주국증시열정공 묘지명 병서(卒高麗國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檢  
校大師守司徒 尙書左僕射參知政事判尙書工部事柱國贈烈烈靖公 墓誌銘  
並書)

- 광주목사를 역임한 윤포(尹誦)를 범운산에 장사지내다 ..... 146

졸 이정정공묘지(卒李貞靖公墓誌)

- 이식(李軾)이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 147

고려국등사랑시상서형부시랑(高麗國登仕郎試尙書刑部侍郎)

- 박득령(朴得齡)이 광주목 사록 겸 장서기를 역임하다 ..... 147

윤종양 묘지명(尹宗諱 墓誌銘)

- 윤종양(尹宗諱)이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 148

졸대중대부호부상서 박공 묘지 병명(卒大中大夫 戶部尙書 朴公 墓誌 并銘)

- 광주 연창군 출신 박인석(朴仁碩) ..... 149

묘지(墓誌)

- 이서림(李瑞林)이 광주목 판관을 역임하다 ..... 150

고 조의대부 사재경 우간의대부 보문각직학사 지제고 사자금어대(故朝議  
大夫 司宰卿 右諫議大夫 寶文閣直學士 知制誥 賜紫金魚袋) 이군(李君)의  
묘지명 병서(並書)

- 몽고의 침입을 이세화(李世華)가 격퇴시키다. .... 151

단성량절공신벽상삼한삼중대광첨의정승판선부시증시문정공 권공묘지명  
병서(端誠亮節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僉議政丞判選部事 贈諱文淸公 權公  
墓誌銘 並書)

○ 이진(李璵)이 광주목 사록을 역임하다 ..... 157  
 고밀직부사치사박공묘지(故密直副使致仕朴公 墓誌)  
 ○ 박화(朴華)가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 158  
 계림부윤시문경공안선생 묘지명 병서(雞林府尹諱文敬公安先生墓誌銘  
 并序)  
 ○ 안보(安輔)가 광주사록·양광도안찰사 등을 역임하다 ..... 159  
 파평군 윤공 묘지명 병서(坡平君尹公 墓誌銘 並書)  
 ○ 윤해(尹垓)가 왕을 따라 광주 객사에 머무르다 ..... 160  
 대원고려국 광주신복선사 중흥기(大元高麗國 廣州 神福禪寺 中興記)  
 ○ 신복선사 중흥기 ..... 162  
 청풍정기(淸風亭記)  
 ○ 광주 청풍정에 대해 말하다 ..... 166  
 둔촌기(遁村記)  
 ○ 둔촌 이집에 대해 말하다 ..... 168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廣州牧(광주목) / 17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 179	건치연혁(建置沿革) / 179
진관(鎭管) / 180	관원(官員) / 180
군명(郡名) / 181	성씨(姓氏) / 181
풍속(風俗) / 181	형승(形勝) / 182
산천(山川) / 182	토산(土產) / 187
봉수(烽燧) / 188	누정(樓亭) / 188
향교(鄕校) / 204	역원(驛院) / 204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불우(佛宇) / 207	사묘(社廟) / 208
능묘(陵墓) / 209	고적(古蹟) / 227
명환(名宦) / 228	인물(人物) / 229
우거(寓居) / 232	효자(孝子) / 233
열녀(烈女) / 234	제영(題詠) / 235
변오(辨誤) / 235	연혁(沿革) / 237
관원(官員) / 238	토산(土産) / 238
궁실(宮室) / 239	관혜(官廨) / 239
방면(方面) / 239	진도(津渡) / 241
사원(寺院) / 242	능침(陵寢) / 244

찾아보기 ... 245

## 『三國史記』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7월

### ○ 신주의 설치

백제의 동북 변경지역을 빼앗아서 신주(新州)를 설치하고,<sup>1)</sup>  
아찬(阿飡) 무력(武力)을 군주로 삼았다.<sup>2)</sup>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8년

### ○ 북한산주

신주(新州)를 폐지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sup>3)</sup>

---

1) 552년에 고구려는 북쪽에서 돌궐이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 오자, 신라에게 한강 유역과 동해안 일대의 지배권을 양도해 주고, 신라와 휴전을 맺었다. 고구려와 휴전협정을 체결한 신라는 백제의 점령지인 한강 하류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하였는데, 이 기록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2)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飡武力爲軍主

3) 廢新州 置北漢山州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정월

○ 한산주

아찬(阿漚) 군관(軍官)을 한산주 도독(漢山州都督)으로 삼았다. ... 가을 7월에 왕이 장군 인문(仁問)·품일(品日)·군관(軍官)·문영(文穎) 등에게 명하여 일선(一善)과 한산(漢山) 2주의 병(兵)과 웅진부성의 병마를 거느리고 고구려 돌사성(突沙城)을 공격하게 하여 성을 함락시켰다.<sup>4)</sup>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10월 22일

○ 한산주 소감, 남한산

유신에게 태대각간(太大角干) 인문에게 대각간(大角干) 이외의 이찬(伊漚)으로서 장군인 자는 모두 각간(角干)의 관위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소판(蘇判) 이하는 모두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대당소감 본득(本得)은 사천전투에서 공이 제일이었다. 한산주 소감(少監, 6정의 군관직) 박경한(朴京漢)은 평양성 안에서 군주 술탈(述脫)을 죽여 공이 제일이었다. 흑악령(黑嶽令)인(흑악은 흑양으로 지금의 충북 진천군) 선극(宣極)은 평양성 대문의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었다. 이들 3인에게는 모두 일길찬(一吉漚)의 관위를 수여하고 벼 1천 석을 하사하였다. 서당당주 김둔산은 평양군

4) 以阿漚軍官爲漢山州都督 ... 秋七月 王命將軍仁問·品日·軍官·文穎等 率一善·漢山二州兵與府城兵馬 攻高句麗突沙城 滅之

영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어서 사찬의 관위를 수여하고 벼 700석을 하사하였다. 군사(軍師: 幢主)의 지휘를 받아 지방인이 전투에 참가할 때 국가로부터 수여 받는 직명)인 남한산(廣州)의 북거(北渠)는 평양성 북문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어서 술간(述干, 외위 2등)의 관위를 수여하고 곡식 1천 석을 하사하였다. 군사인 부양(강원 평강)의 구기는 평양 남교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어서 술간의 관위를 수여하고 곡식 700석을 하사하였다. 가군사인 비열홀(강원 안변)의 세활은 평양 소성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어서 고간의 관위를 수여하고 곡식 500석을 하사하였다. 한산주 소감 김상경(金相京)은 사천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 일길찬으로 추증하고 곡식 1천 석을 하사하였다. 아술(충남 아산)인인 사찬 구울은 사천의 전투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을 건너서 적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군령이 없이 마음대로 위험한 길로 갔으므로 공이 비록 컸으나 공을 제일로 기록하지 않았더니 그가 분하고 원통하여 죽으려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구해 주어 죽지 못하였다.<sup>5)</sup>

5) 賜庾信位太大角干 仁問大角干 已外伊淪·將軍等並爲角干 蘇判已下並增位一級 大幢少監本得 蛇川戰功第一 漢山州少監朴京漢 平壤城內殺軍主述脫 功第一 黑嶽令宣極 平壤城大門戰功第一 並授位一吉淪 賜租一千石 誓幢幢主金遁山 平壤軍營戰功第一 授位沙淪 賜租七百石 軍師南漢山北渠 平壤城北門戰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一千石 軍師斧壤仇杞 平壤南橋戰功第一 授位述干 賜粟七百石 假軍師比列忽世活 平壤少城戰功第一 授位高干 賜粟五百石 漢山州少監金相京 蛇川戰死功第一 贈位一吉淪 賜租一千石 牙述沙淪求律 蛇川之戰 就橋下涉水 出與賊鬪大勝 以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2년 8월

- 한산주의 주장성을 쌓다

한산주의 주장성(畫長城: 南漢山城)을 쌓았는데, 길이가 4천 360보였다.<sup>6)</sup>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17년 10월

- 한산주 관내에 성을 쌓다

한산주 도독 관내의 여러 성을 쌓았다.<sup>7)</sup>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경덕왕 16년 12월

- 한산주를 한주로 개칭하다

한산주(漢山州)를 한주(漢州)로 고쳐 주 1, 소경 1, 군 27, 현 46개를 소속시켰다.<sup>8)</sup>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선덕왕 3년 2월

- 선덕왕이 한산주를 순행하다

왕이 한산주를 순행하고, 주민들을 패강진으로 이주시켰다.<sup>9)</sup>

---

無軍令 自入危道 功雖第一而不錄 憤恨欲經死 旁人救之 不得死

6) 築漢山州畫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

7) 築漢山州都督管內諸城

8) 改漢山州 爲漢州 領州一 小京一 郡二十七 縣四十六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5년 정월

- 한산주의 백성이 굶주리다

한산주(漢山州)의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곡식을 (창고에서) 내어 나누어 주었다.<sup>10)</sup>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6년 5월

- 한산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다

(창고에서) 곡식을 내어서 한산(漢山)과 웅천(熊川) 2주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sup>11)</sup>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10년 7월

- 한산주에서 흰 까마귀를 바치다

한산주(漢山州)에서 흰 까마귀를 바쳤다.<sup>12)</sup>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8년 7월

- 한산 북쪽의 주민을 징발하여 장성을 쌓게 하다

우잠군(命牛岑: 황해 금천)의 태수 백영(白永)에게 명하여 한산

---

9) 王巡幸漢山州 移民戶於湏江鎮

10) 漢山州民饑 出粟以賑之

11) 出粟賑 漢山熊川二州饑民

12) 漢山州 進白鳥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북쪽의 여러 주군의 주민 1만을 징발하여 300리에 이르는 패강(溟江: 대동강) 장성을 쌓게 하였다.<sup>13)</sup>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효공왕 2년 7월

○ 궁예가 한산주 관내의 성을 빼앗다

궁예(弓裔)가 패서도(溟西道) 및 한산주(漢山州) 관내의 30여 성을 취하고, 마침내 도읍을 송악군(松岳郡)에 두었다.<sup>14)</sup>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4년 정월

○ 도읍을 한산으로 천도하다

도읍을 (한수의 남쪽 하남위례성으로) 옮겼다.<sup>15)</sup>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즉위조

○ 비류·온조의 백제건국설화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sup>16)</sup>은 그 아버지가 추모(鄒牟)왕 혹은 주몽(朱蒙)이라고 하는데, 주몽은 북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

13) 命牛岑太守白永 徵漢山北諸州郡人一萬 築溟江長城三百里

14) 弓裔 取溟西道及 漢山州管內 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15) 遷都. 하북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를 말한다.

16) 백제건국설화는 자료에 따라 시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온조설(『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 비류설(『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조 제주), 구태설(『주서』 백제전), 도모설(『속일본기』) 등이 있다.

에 이르렀다. 부여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세 명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얼마 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비류(沸流)이고 둘째가 온조이다(혹은 주몽이 졸본에 와서 월군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가 자신들을 용납하지 않을까 두려워 오간(烏干)·마여(馬黎) 등 10명의 신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니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기 좋은 곳을 살피는데, 이때 비류는 바닷가에 정착을 하려고 하였다. 열신하들은, “강남의 땅을 살피건대 북으로는 한수를 끼고 동으로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였으며 남으로는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고 서로는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천연의 요새로 된 좋은 땅은 다시 얻기 어려우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지금의 인천)로 가서 정착하였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sup>17)</sup>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의 보좌를 받아서 나라이름을 십제(十濟)라고 하니, 이때가 전한(前漢) 성제

17) 백제의 도읍이 처음부터 한강 이남에 자리잡았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한강 이북에 도읍을 정했다가 국가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 한강 이남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온조왕 14년에 강을 건너 천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成帝) 홍가(鴻嘉) 3년(기원전 18년)이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제대로 정착할 수 없었다. 위례에 돌아와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태평한 것을 보고는 그만 부끄럽고 한스러워 병이 나 죽으니, 그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위례로 귀속하였다. 그 후 처음에 위례로 올 때의 백성들이 즐겁게 따랐다고 하여 나라이름을 백제(百濟)로 고쳤다. 그 조상이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으로 하였다.

〈일설에는 “시조 비류왕은 아버지는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인 우태(優台)이고, 어머니가 졸본사람 연타발(延陁勃)의 딸인 소서노(召西奴)라고 한다. 소서노가 처음 우태에게 시집을 가서 두 아들을 낳으니, 첫째가 비류이고 둘째가 온조이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졸본에서 혼자 살았다. 그 후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기원전 37년) 봄 2월에 남쪽 졸본으로 도망쳐 와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세워서 소서노를 왕비로 맞이하였다. 소서노는 나라의 기초를 닦고 왕업을 일으키는 데 많은 내조를 하여 주몽이 그녀를 총애하여 후하게 대접하였고 주몽은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 주몽이 부여에서 예씨와 낳은 아들인 유유(고구려 본기에는 琉璃)가 오자 그를 태자로 세우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 대왕께서 부여에서 난을 피해 도망하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털어서 나라의 위업을 이루도록 도왔으니 어머니의 공로가 크다. 대왕께서 세상을 버리시게 된 후

나라가 유유에게 돌아가니 우리들이 공연히 여기에서 몸의 군더더기 살처럼 지내기보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 지방으로 가서 좋은 땅을 골라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드디어 동생과 더불어 무리들을 이끌고 패수(예성강)와 대수(임진강)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정착하였다"라고 하였다.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는 모두 "동명(東明)의 자손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매우 어질고 신실하였다. 처음으로 대방(帶方)의 옛 땅에 나라를 세우니,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公孫度)가 자기 딸로 구태의 아내를 삼게 하였는데, 그 후 동이(東夷)에서 강국이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sup>18)</sup>

18)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或云 朱蒙到卒 本娶越郡女 生二子>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陞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 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春二月 南奔至卒本 立都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特厚 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餘所生 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沸流謂弟溫祚曰始 大王避扶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8년 2월

○ 말갈이 위례성을 공격하다

말갈(靺鞨) 적군 3천명이 침입하여 위례성(慰禮城)을 에워쌌다.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더니 열흘이 지나 적들이 군량이 떨어져서 돌아갔다. 이에 왕이 정예병을 뽑아 대부현(大斧峴)까지 쫓아가서 단번에 이기고 적병 500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sup>19)</sup>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3년 5~7월

○ 한산으로 민호를 옮기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동쪽에는 낙랑(樂浪)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靺鞨)이 있어서 변경을 침공하기 때문에 편안한 날이 적다. 더군다나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 사태가 불안하므로 꼭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돌아보았는데, 땅이 비옥하여 그곳에 도읍을 정하기가 알맞으므로 오래도록 안정될 계획을

---

邦業 其勤勞多矣 及大王厭世 國家屬於孺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 南遊卜地 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溟帶二水 至弥鄒忽以居之 北史及隋書皆云 東明之後 有仇台 篤於仁信 初立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遂爲東夷強國 未知孰是)

19) 靺鞨賊三千來圍慰禮城 王閉城門不出 經旬 賊糧盡而歸 王簡銳卒 追及大斧峴 一戰 克之 殺虜五百餘人

도모하여야겠다”고 하였다. 가을 7월, 한산 아래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sup>20)</sup>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17년 봄

○ 낙랑이 위례성을 침공하다

낙랑(樂浪)이 침공해 와서 위례성(慰禮城)을 불태웠다.<sup>21)</sup>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온조왕 41년 2월

○ 한수 동북민이 위례성을 수리하다

한수 동북의 모든 마을에 사는 1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징발하여 위례성(慰禮城)을 수리하였다.<sup>22)</sup>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책계왕 즉위초

○ 위례성·아차성·사성을 수축하다

왕이 장정들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보수하였다. 고구려가 대방(帶方)을 치니 대방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왕의 딸 보과(寶菓)에게 장가를 들어 부인을 삼았기 때문에 왕

---

20)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21) 樂浪來侵 焚慰禮城

22)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

이 말하기를, “대방은 우리와 장인과 사위간이 되는 나라이니,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군사를 출동하여 구원하였더니 고구려에서 원망하였다. 왕이 고구려의 침략을 염려하여 아차성(阿且城)과 사성(蛇城)을 수축하여 방비하게 하였다.<sup>23)</sup>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 7월

-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다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sup>24)</sup>

『삼국사기』 권35, 지4, 지리2, 신라

- 한주

한주(漢州). 본래 고구려의 한산군(漢山郡)이다. 신라가 빼앗아서 경덕왕(景德王)이 한주(漢州)로 바꾸었다. 지금의 광주(廣州)이다. 영현(관할하는 현)은 둘이다. (영현중의 하나인) 황무현(黃武縣)은 본래 고구려 남천현(南川縣)이었는데, 신라가 병합하여 진흥왕이 주(州)로 만들고 군주를 두었다. 경덕왕 때 이름을 (황무현으로) 고쳤는데, 지금의 이천현이다. (영현의 다른 하나인)

23) 王徵發丁夫 葺慰禮城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城·蛇城 備之

24)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거서현(巨黍縣)은 본래 고구려 구성현(駒城縣)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거서현으로) 고쳤다. 지금의 용구현(龍駒縣)이다.<sup>25)</sup>

『삼국사기』 권37, 지6, 지리4, 고구려

○ 위례성의 위치가 불확실하다

지명은 있으나 위치가 불확실한 삼국의 지역 : 표천현, 위례성(慰禮城), 당항성, 아단성(阿旦城), 옥리아, 비뇌성, 독산성, 가잠성, 독산, 병산책, 봉현, 독산책, 구천책, 석두성, 고목성, 적현성, 한천, 부산, 관미성, 석현성, 사구성, 가불성, 혈성.<sup>26)</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제군관

○ 한산정에 3인의 장군을 두다

장군(將軍)은 모두 36인이다. 대당(大幢)을 맡은 장군이 4인, 귀당(貴幢)을 맡은 장군이 4인, 한산정(漢山亭)(신라인은 군영을 정이라고 불렀다)을 맡은 장군이 3인, 완산정(完山亭)을 맡은 장군이 3인, 하서정(下西亭)을 맡은 장군이 2인, 우수정(牛首亭)을 맡은

25) 漢州 本高句麗漢山郡 新羅取之 景德王改爲漢州 今廣州 領縣二 黃武縣 本高句麗南川縣 新羅并之 眞興王爲州 置軍主 景德王改名 今利川縣 巨黍縣 本高句麗駒城縣 景德王改名 今龍駒縣

26) 三國有名未詳地分 瓢川縣 慰禮城 党項城 阿旦城 郁里阿 非惱城 獨山城 椴岑城 禿山 瓶山柵 烽峴 禿山柵 狗川柵 石頭城 高木城 赤峴城 寒泉 釜山 關彌城 石峴城 沙口城 加弗城 穴城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장군이 2인이었다.<sup>27)</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관대감

○ 한산정에 대인대감 4인을 두다

대관대감(大官大監)은 진흥왕 10년(549)에 설치하였다. 대당을 맡은 이가 5인, 귀당을 맡은 이가 5인, 한산정을 맡은 이가 4인, 우수정을 맡은 이가 4인, 하서정을 맡은 이가 4인, 완산정을 맡은 이가 4인이었다.<sup>28)</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대감

○ 한산정에 보병을 통솔하는 대대감 3인을 두다

대대감(隊大監). 기마병을 통솔하는 대대감은 계금에 1인, 음리화정(音里火停)에 1인, 고량부리정(古良夫里停)에 1인, 거사물정(居斯勿停)에 1인, 삼랑화정(參良火停)에 1인, 소참정(召參停)에 1인,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에 1인, 남천정(南川停)에 1인, 골내

---

27) 將軍共三十六人 臺大幢四人 貴幢四人 漢山停〈羅人謂營爲停〉三人 完山停三人 河西停二人 牛首停二人. 6정은 신라 중고기에 광역의 지방행정조직인 주를 단위로 군사를 징발하여 행군군단을 편성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군사조직으로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것이 바로 한산정이다.

28) 大官大監 眞興王十年置 掌大幢五人 貴幢五人 漢山停四人 牛首停四人 河西停四人 完山停四人

근정(骨乃斤停)에 1인, 벌력천정(伐力川停)에 1인, 이화혜정(伊火兮停)에 1인, … 청주서(菁州誓)에 1인, 한산주서(漢山州誓)에 1인, 완산주서(完山州誓)에 1인씩 두었다. 그리고 보병을 통솔하는 대대감은 대당에 3인, 한산정에 3인, 귀당에 2인, 우수정에 2인, 완산정에 2인씩 두었다.<sup>29)</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제감

○ 한산정에 제감 4인을 두다

제감(弟監)은 진흥왕 23년(562)에 설치하였다. 대당(大幢)을 맡은 이가 5인, 귀당(貴幢)을 맡은 이가 5인, 한산정(漢山停)을 맡은 이가 4인, 우수정을 맡은 이가 4인, 하서정을 맡은 이가 4인, 완산정을 맡은 이가 4인이었다.<sup>30)</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감사지

○ 한산정에 감사지 1인을 두다

감사지(監舍知)는 모두 19인이다. 법흥왕 10년(523)에 설치하

---

29) 隊大監 領馬兵 鬪衿一人 晉里火停一人 古良夫里停一人 居斯勿停一人 參良火停一人 召參停一人 未多夫里停一人 南川停一人 骨乃斤停一人 伐力川停一人 伊火兮停一人 … 菁州誓一人 漢山州誓一人 完山州誓一人 領步兵 大幢三人 漢山停三人 貴幢二人 牛首停二人 完山停二人

30) 弟監 眞興王二十三年置 領大幢五人 貴幢五人 漢山停四人 牛首停四人 河西停四人 完山停四人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였다. 대당에 1인, 상주정에 1인, 한산정에 1인, 우수정에 1인, 하서정에 1인, 완산정에 1인이 있었다.<sup>31)</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소감

○ 한산정에 소감 15인을 두고, 한산주서에 소감 9인을 두다

소감(少監)은 진흥왕 23년(562)에 두었다. 대당에 15인, 귀당에 15인, 한산정에 15인, 하서정에 12인, 우수정에 13인, 완산정에 13인이 있었다. … 기마병을 통솔하는 자는 음리화정에 2인, 고량부리정에 2인, 거사물정에 2인, 삼랑화정에 2인, 소참정에 2인, 미다부리정에 2인, 남천정에 2인, 골내근정에 2인, 벌력천정에 2인, 이화혜정에 2인, … 청주서에 3인, 한산주서에 3인, 완산주서에 3인을 두었다. 보병을 통솔하는 자는 대당에 5인, 한산정에 6인, 귀당에 4인, 우수정에 4인, 완산정에 4인, … 청주서에 9인, 한산주서에 9인, 완산주서에 9인을 두었다.<sup>32)</sup>

31) 監舍知 共十九人 法興王十年置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32) 少監 眞興王二十三年置. 大幢十五人 貴幢十五人 漢山停十五人 河西停十二人 牛首停十三人 完山停十三人 … 領騎兵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 菁州誓三人 漢山州誓三人 完山州誓三人 領步兵 大幢六人 漢山停六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 菁州誓九人 漢山州誓九人 完山州誓九人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화척

○ 한산정에 화척 10인을 두다

화척(火尺)은 대당에 15인, 귀당에 10인, 한산정에 10인, 우수정에 10인, 하서정에 10인, 완산정에 10인, … 음리화정에 2인, 고량부리정에 2인, 거사물정에 2인, 삼랑화정에 2인, 소참정에 2인, 미다부리정에 2인, 남천정에 2인, 골내근정에 2인, 벌력천정에 2인, 이화혜정에 2인, … 청주서에 2인, 한산주서에 2인, 완산주서에 2인을 두었다. 기마병을 통솔하는 자는 대당에 6인, 한산정에 6인, 귀당에 4인, 우수정에 4인, 완산정에 4인, … 등을 두었다.<sup>33)</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군사당주

○ 한산정에 군사당주 1인을 두다

군사당주(軍師幢主)는 법흥왕 11년(524)에 설치하였다. 왕도(王都)에 1인을 두었는데, 금(衿)이 없었다. 대당(大幢)에 1인, 상주정(上州停)에 1인, 한산정(漢山停)에 1인, 우수정(牛首停)에 1인, 하서정(河西停)에 1인, 완산정에 1인을 두었다.<sup>34)</sup>

33) 火尺 大幢十五人 貴幢十人 漢山停十人 牛首停十人 河西停十人 完山停十人 … 音里火停二人 古良夫里停二人 居斯勿停二人 參良火停二人 召參停二人 未多夫里停二人 南川停二人 骨乃斤停二人 伐力川停二人 伊火兮停二人 … 靑州誓二人 漢山州誓二人 完山州誓二人 領騎兵 大幢六人 漢山停六人 貴幢四人 牛首停四人 完山停四人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장척당주

- 한산정에 대장척당주 1인을 두다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는 대당에 1인, 상주정에 1인, 한산정에 1인, 우수정에 1인, 하서정에 1인, 완산정에 1인을 두었다.<sup>35)</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보기당주

- 한산에 보기당주 6인을 두다

보기당주(步騎幢主)는 왕도에 1인을 두었는데, 금이 없었다. 대당에 6인, 한산에 6인, 귀당에 4인, 우수주에 4인, 완산주에 4인을 두었다.<sup>36)</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착금기당주

- 한산주에 착금기당주 6인을 두다

착금기당주(著衿騎幢主)는 청주(靑州)에 6인, 완산주에 6인, 한산주에 6인, 하서주에 4인, 우수당에 3인, 사천당에 3인을 두었다.<sup>37)</sup>

---

34) 軍師幢主 法興王十一年置 王都一人 無衿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35) 大匠尺幢主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36) 步騎幢主 王都一人 無衿 大幢六人 漢山六人 貴幢四人 牛首州四人 完山州四人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비금당주

- 한산주에 비금당주 2인을 두다

비금당주(緋衿幢主)는 사벌주에 3인, 삼랑주에 3인, 청주에 3인, 한산주에 2인, 우수주에 6인, 하서주에 6인, 용천주에 5인, 완산주에 4인, 무진주에 8인을 두었다.<sup>38)</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사자금당주

- 한산주에 사자금당주 3인을 두다

사자금당주(師子衿幢主)는 왕도에 3인, 사벌주(沙伐州)에 3인, 삼랑주(歙良州)에 3인, 청주에 3인, 한산주에 3인, 우수주에 3인, 하서주에 3인, 용천주에 3인, 완산주에 3인, 무진주에 3인을 두었다.<sup>39)</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흑의장창말보당주

- 한산에 흑의장창말보당주 28인을 두다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는 대당에 30인, 귀당에 22인, 한산에 28인, 우수에 20인, 완산에 20인을 두었다.<sup>40)</sup>

37) 著衿騎幢主 靑州六人 完山州六人 漢山州六人 河西州四人 牛首幢三人 四千幢三人

38) 緋衿幢主 沙伐州三人 歙良州三人 靑州三人 漢山州二人 牛首州六人 河西州六人 熊川州五人 完山州四人 武珍州八人

39) 師子衿幢主 王都三人 沙伐州三人 歙良州三人 靑州三人 漢山州三人 牛首州三人 河西州三人 熊川州三人 完山州三人 武珍州三人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군사감

○ 한산정에 군사감 2인을 두다

군사감(軍師監)은 왕도(王都)에 2인이 있었는데, 금(衿)이 없었다. 대당에 2인, 상주정에 2인, 한산정에 2인, 우수정에 2인, 하서정에 2인, 완산정에 2인을 두었다.<sup>41)</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대장대감

○ 한산정에 대장대감 1인을 두다

대장대감(大匠大監)은 대당에 1인, 상주정에 1인, 한산정에 1인, 우수정에 1인, 하서정에 1인, 완산정에 1인을 두었다.<sup>42)</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보기감

○ 한산에 보기감 6인을 두다

보기감(步騎監)은 왕도에 1인, 대당에 6인, 한산에 6인, 귀당에 4인, 우수에 4인, 완산에 4인을 두었다.<sup>43)</sup>

---

40) 黑衣長槍末步幢主 大幢三十人 貴幢二十二人 漢山二十八人 牛首二十人 完山二十人

41) 軍師監 王都二人 無衿 大幢二人 上州停二人 漢山停二人 牛首停二人 河西停二人 完山停二人

42) 大匠大監 大幢一人 上州停一人 漢山停一人 牛首停一人 河西停一人 完山停一人

43) 步騎監 王都一人 大幢六人 漢山六人 貴幢四人 牛首四人 完山四人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착금감

- 한산에 착금감 6인을 두다

착금감(着衿監)은 청주에 6인, 한산에 6인, 완산에 6인, 하서에 3인, 우수당에 3인, 사천당에 3인을 두었다.<sup>44)</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육정

- 6정 가운데 한산정이 세번째이다

6정(六停) 가운데<sup>45)</sup> 1은 대당이다. 진흥왕 5년(5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금색은 자색과 백색이다. 2는 상주정이다. 진흥왕(眞興王) 13년(552)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문무왕 13년(673)에 이르러 귀당으로 바꾸었는데, 금색은 청색과 적색이다. 3은 한산정이다. (이것은) 본래 신주정(新州停)이었는데, 진흥왕 29년(568)에 신주정을 혁파하고 남천정(南川停)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진평왕(眞平王) 26년(604)에 남천정을 혁파하고, 한산정을 설치하였다. 금색은 황색과 청색이다. 4는 우수정이다. (이것은) 본래 비열홀정(比烈忽停)이었는데, 문무왕 13년에 비열홀정을 혁파하고, 우수정을 설치하였다. 금색은 녹색과 백색이다. 5는 하서정이다. (이것은) 본래 실직정이었는데, 태종무열왕 5년(658)에 실직정을 혁파하고 하서정을 설치했다. 금색은 녹색과 백색이다. 6

---

44) 着衿監 靑州六人 漢山六人 完山六人 河西三人 牛首幢三人 四千幢三人

45) 6정이나 10정 등은 모두 군호(軍號) 23개 가운데 하나이다.

은 완산정이다. 본래 해주정이었는데, 신문왕 5년(685)에 해주정을 혁파하고, 완산정을 설치하였다. 금색은 백색과 자색이다.<sup>46)</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오주서

○ 오주서 가운데 한산주서가 세번째이다

오주서(五州誓) 가운데 1은 청주서, 2는 완산주서, 3은 한산주서인데, 금색은 자색과 녹색이다. 4는 우수주서, 5는 하서주서인데, 금색은 녹색과 자색이다. 모두 문무왕 12년(672)에 설치하였다.<sup>47)</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만보당

○ 한산주의 만보당은 황흑색과 황녹색이다

만보당(萬步幢)은 9주마다 각각 두 가지의 금색이 있었다. 사벌주는 청황색과 청자색, 삼랑주는 적청색과 적백색, 청주는 적황색과 적녹색, 한산주는 황흑색과 황녹색, 우수주는 흑녹색과

46) 六停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衿色紫白 二曰上州停 眞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三年改爲貴幢 衿色青赤 三曰漢山停 本新州停 眞興王二十九年罷新州停 置南川停 眞平王二十六年罷南川停 置漢山停 衿色黃青 四曰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五曰河西停 本悉直停 太宗王五年罷悉直停 置河西停 衿色綠白 六曰完山停 本下州停 神文王五年罷下州停 置完山停 衿色白紫

47) 五州誓 一曰靑州誓 二曰完山州誓 三曰漢山州誓 衿色紫綠 四曰牛首州誓 五曰河西州誓 衿色綠紫 並文武王十二年置

흑백색, 웅천주는 황자색과 황청색, 하서주는 청흑색과 청적색, 무진주는 백적색과 백황색이었다.<sup>48)</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이계당

○ 이계당 중 한산주계당이 첫번째이다.

이계당(二闕幢)〈혹은 외계라고도 한다〉 가운데 1은 한산주계당인데, 태종무열왕 17년에 두었다.<sup>49)</sup> 2는 우수주계당인데, 문무왕 12년에 두었다. 금색은 모두 모직으로 한다.<sup>50)</sup>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이궁

○ 이궁 가운데 한산주궁척이 첫번째이다

이궁(二弓)〈혹은 외궁이라고도 부른다〉 가운데 1은 한산주궁척인데, 진덕왕 6년(652)에 설치하였다. 2는 하서주궁척인데, 진평왕 20년(598)에 설치하였다. 금색이 없었다.<sup>51)</sup>

---

48) 萬步幢 九州各二衿色 沙伐州 青黃青紫 歆良州 赤青赤白 靑州 赤黃赤綠 漢山州 黃黑黃綠 牛首州 黑綠黑白 熊川州 黃紫黃青 河西州 青黑青赤 武珍州 白赤白黃

49) 태종무열왕은 재위 8년만에 죽었으므로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아마도 문무왕을 태종왕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50) 二闕幢 〈或云外闕〉 一曰漢山州闕幢 太宗王十七年置 二曰牛首州闕幢 文武王十二年置 衿色皆闕

51) 二弓 〈或云外弓〉 一曰漢山州弓尺 眞德王六年置 二曰河西州弓尺 眞平王二十年置 無衿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삼국사기 권40, 지9, 직관(하), 삼변수당

◦ 삼변수당 중 한산변이 첫번째이다

삼변수당(三邊守幢)<sup>52)</sup>(혹은 변수라고도 부른다)은 신문왕 10년(690)에 설치하였다. 1은 한산변이고, 2는 우수변이고, 3은 하서변이다. 금색이 없었다.<sup>53)</sup>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 신주

(김유신의) 할아버지 무력(武力)은 신주도행군총관(新州道行軍總管)을 역임하였는데,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왕(성왕)과 그 장수 4인을 사로잡고 1만여 금의 목을 벤 바 있었다.<sup>54)</sup>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 문무대왕이 남한주로 돌아오다

총장(摠章) 원년(문무왕 8년: 668) 무진에 …, 문무대왕이 영공(英公)과 함께 평양을 깨뜨리고 다시 남한주(南漢州)로<sup>55)</sup> 돌아왔다.<sup>56)</sup>

---

52) 이는 북쪽·동북쪽·동쪽의 변경을 지키는 부대였다.

53) 三邊守幢 <或云邊守> 神文王十年置 一曰漢山邊 二曰牛首邊 三曰河西邊 無衿

54) 祖武力 爲新州道行軍總管 嘗領兵 獲百濟王及其將四人 斬首一萬餘級

55) 남한주는 한성주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산은 광주를 가리키는데, 이 표현은 당시 한산주의 주치가 남한산, 즉 오늘날의 광

『삼국사기』 권50, 열전10, 궁예

○ 궁예가 경기도 여러 고을을 점령하다

건녕(乾寧) 원년(894) 우리(고려)의 태조가 송악군으로부터 (궁예에게) 와서 투항하니 곧바로 철원군 태수(鐵圍郡太守)로 임명하였다. 3년(896) 병진에 승령(僧嶺: 연천군 구읍 동쪽 지역)·임강(臨江: 장단군 북쪽 지역) 2현을 공격하여 취하였다. 4년(897) 정사에 인물현(仁物縣: 개풍군 봉황면 홍왕리)이 항복하였다. 선종은 송악군이 한강 이북의 유명한 군이고 산수가 수려하다고 하여 마침내 도읍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암(지금의 김포군 양촌면)·금포(지금의 김포군 김포읍)·혈구(지금의 강화도 강화읍) 등성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이때에 양길(梁吉)이 아직도 북원(北原)에 있으면서 국원 등 30여 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선종(善宗)의 땅이 넓고 백성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30여 성의 정예병사로써 (선종을) 습격하려고 하였다. 선종이 이를 눈치채서 선제공격을 가하여 크게 패퇴시켰다. 광화 원년(898) 무오 봄 2월에 송악성을 수리하였다. 우리 태조를 정기대감으로 임명하여 양주(楊州: 지금의 서울지방)와 견주(見州: 양주군 주내면)를 정벌하게 하였다. 겨울 11월에 팔관회(八關會)를 처음으로 열었다. 3년(900) 경신에 또한 태조에게 명하여 광주·충주·당성

---

주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되나, 정확하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56) 摠章元年戊辰 … 文武大王 既與英公破平壤 還到南漢州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지금의 화성군 남양면)·청주(또는 청천)·괴양(현 충북 괴산) 등을 정벌하게 하여 모두 평정하였다. 이 공로로 태조는 아찬의 직을 수여받았다.<sup>57)</sup>

---

57) 〈乾寧元年〉我太祖 自松岳郡來投 便授鐵圓郡太守 三年丙辰 攻取僧嶺·臨江兩縣 四年丁巳 仁物縣降 善宗謂 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都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時 梁吉猶在北原 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 聞善宗地廣民衆 大怒 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 善宗潛認 先擊大敗之 光化元年戊午春二月 葺松岳城 以我太祖爲精騎大監 伐楊州·見州 冬十一月 始作八關會 三年庚申 又命太祖伐廣州·忠州·唐城·青州(或云青川)·槐壤等 皆平之 以功授太祖阿漚之職

## 『三國遺事』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전백제

○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다

삼국사기 본기에 이르기를 “백제의 시조 온조(溫祚)는 그 아버지가 추모왕(鄒牟王)이다. 혹은 주몽(朱蒙)이라고도 부른다. 북부여로부터 도망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주(州)의 왕은 아들이 없고, 단지 딸만 셋이 있었다. 주몽을 보고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둘째 딸로써 처를 삼게 하였다. 얼마 안 있어 부여주의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沸流)이고, 둘째 아들은 온조이다. 그들은 후에 태자(유리왕)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오간·마여 등 10신과 더불어 남쪽으로 가니, 백성으로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살 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비류가 해변으로 가서 살려고 하니, 10신이 간하여 아뢰기를,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으로 한수와 접하여 있고, 동으로 높은 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으로는 기름진 토지가 바라보이고,

서로는 큰 바다가 격해 있으니, 그 자연이 험하고 지형이 유리하여 얻기 어려운 지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彌雛忽: 인천)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여 10신으로써 보좌하게 하고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이때가 한의 성제(成帝) 홍가(鴻佳) 3년(기원전 18년)의 일이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기 때문에 편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돌아와 위례의 도읍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태평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여 죽으니, 그 백성들이 모두 위례성에 돌아왔다. 후에 백성들이 올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하여 국호를 고쳐서 백제(百濟)라 불렀다. 그 세계(世系)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출자하였다 하여 해(解)로써 성씨를 삼았다. 후에 성왕에 이르러 사비로 도읍을 옮겼으니, 지금의 부여군이다.>〈미추홀은 지금의 인주(仁州)이고, 위례는 지금의 직산(稷山)이다〉<sup>2)</sup>

1) 직산은 지금의 충남 천안시 직산면에 비정된다.

2) 史本記云 百濟始祖溫祚 其父雛牟王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 至卒本扶餘 州之王無子 只有三女 見朱蒙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州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 恐後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 <十> 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岳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歸彌雛忽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漢成帝鴻佳三年也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전백제

○ 근초고왕이 수도를 한산으로 옮기다

고전기에 다음과 같이 일렀다.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 온조(溫祚)가 전한(前漢) 홍가(鴻佳) 3년(기원전 18) 계유에 졸본부여로부터 위례성(慰禮城)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왕이라 칭하였다. 14년(기원전 5) 병진에 한산(지금의 광주(廣州))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곳에서 389년을 지냈다. 13대 근초고왕 즉 함안(咸安) 원년(371; 근초고왕 26)에 이르러 고구려의 남평양을 취하여 도읍을 북한성(北漢城)〈지금의 양주〉으로 옮기고 거기서 105년을 지냈다. 22대 문주왕이 즉위함에 이르러 즉 원휘(元徽) 3년(475; 문주왕 원년) 을묘에 도읍을 웅천(지금의 공주)으로 옮겨 63년을 지냈다. 26대 성왕에 이르러 도읍을 소부리(所夫里)로 옮겨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 칭하고 31대 의자왕까지 120년을 지냈다.<sup>3)</sup>

---

沸流以彌離忽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城 後以來時百姓樂悅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 出扶餘 故以解爲氏 後至聖王 移都於泗泚 今扶餘郡〈彌離忽 仁州 慰禮 今稷山〉

3) 按古典記云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佳三年癸酉 自卒本扶餘 至慰禮城 立都稱王 十四年丙辰 移都漢山〈今廣州〉 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世近肖古王 咸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壤 移都北漢城〈今楊州〉 歷一百五年 至二十二世文周王即位 元徽三年乙卯 移都熊川〈今公州〉 歷六十二年 至二十六世聖王 移都所夫里 國號南扶餘 至三十一世義慈王 歷一百二十年

여 백

## 其 他

『일본서기』 권14, 응락천황 20년 겨울

○ 장수왕이 위례성을 함락시키다

고구려왕이 대군을 출동시켜 백제(百濟)를 정벌하였다.<sup>1)</sup> … 〈백제기(百濟記)에 이르기를, “개로왕(蓋鹵王) 을묘년(475) 겨울에 고구려 대군이<sup>2)</sup> 와서, 대성(한성)을 7일 낮밤을 공격하였다. 왕성(王城)이 항복하여 함락당하니, 마침내 위례(慰禮)를 잃었다. 국왕 및 태후, 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sup>3)</sup>

이성산성 출토 목간<sup>4)</sup>

---

1) 응락천황 20년은 476년이다. 그런데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점령한 해는 475년이다. 아마도 이것은 『일본서기』 찬자의 실수로 보인다.

2) 본문의 박(狛)은 고구려의 이칭이다.

3) 高麗王大發軍兵 伐盡百濟 …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 冬 狛大軍來攻大城 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 國王及太后王子等 皆沒敵手〉

4) 이 목간은 1990년 6월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이성산성(二聖山城)의 3차 발굴 때 수습한 것이다. 한편 이 목간이 작성된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사라는 명칭이 통일기에 현령이나 소수

○ 남한성 도사

무진년 정월 12일 봉(朋)<sup>5)</sup>에 남한성(南漢城)<sup>6)</sup> 도사(道使)<sup>7)</sup>

(앞면)

수성(須城) 도사촌주(道使村主)<sup>8)</sup> 전남한성

(옆면)<sup>9)</sup>

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553년 이후 670년 무렵 이전의 무진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의 무진년으로서는 608년과 668년이 있다.

5) 봉(朋)의 의미는 전혀 알 수 없다.

6) 남한성은 지금의 광주를 가리킨다. 한편 이것은 지금의 광주를 7세기부터 한성이라고 불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 신라가 중고기에는 지금의 서울지방을 한성이라고 불렀으며, 그 곳을 북한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7) 도사는 중고기에 촌에 파견된 지방관이다.

8) 촌주는 촌이나 성의 토착적인 지방의 세력자를 일컫는 명칭이다. 한편 이 목간에 '도사촌주'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사촌주가 하나의 직명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도사는 ~수성(須城)의 도사를 의미하고, 또 촌주는 촌주인 전남한성 ~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따라 중고기 지방관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만약 전자라고 본다면, 도사촌주는 바로 토착지방민을 도사로 임명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기존의 통설처럼 도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의 명칭이고, 촌주는 지방의 토착세력에게 부여한 직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戊辰年正月十二日朋南漢城道使(앞면)

須城道使村主前南漢城(옆면)

## 『高麗史』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무편년

○ 태조가 광주 등 군현을 정벌하다

광화 3년 경신에 궁예가 태조에게 명령하여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靑州) 등 3개 주와 당성(唐城: 경기도 남양)과 괴양(槐壤: 충청도 괴산) 등 군현을 정벌하게 하여 이를 모두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태조에게 아찬(阿粲)의 벼슬을 주었다.<sup>1)</sup>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년 정월 을해

○ 왕이 광주에 머무르다

거란주(契丹主)가 개경에 침입하여 태묘·궁궐·민가들을 모조리 불질렀다. 왕은 이날 광주(廣州)에 머물렀다. ... 무인일에 왕이 광주를 출발하여 비뇌역(鼻腦驛)에 머물렀으며 임오일에는 장곡역(長谷驛)에서 묵었다.<sup>2)</sup>

---

1) 三年庚申 齋命太祖 伐廣忠靑三州 及唐城 槐壤等郡縣 皆平之 以功授阿粲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20년 6월

○ 광주에 도적이 일어나다

도적이 광주(廣州) 산 숲을 근거로 하여 일어났다. 을묘일에 용호군(龍虎軍) 장교를 파견하여 이를 체포하도록 하였다.<sup>3)</sup>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2년 6월 무진

○ 광주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서울·동경·상주·광주(廣州)·안변부 관내 주·현이 지진으로 많은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동경에서는 3일을 지나서야 지진이 멎었다.<sup>4)</sup>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0년 9월 갑신

○ 광주 등 각지에 무문사를 파견하다

왕이 명을 내려 모든 고을에 사절을 파견하여 목사·자사·통판·현령·위(尉)·장리(長吏)들의 정치 성적 및 청백 여부와 백성들의 빈부 고락 등의 실정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담당 관아에서는 사절을 파견하면 연로에 있는 백성과 아전들이 그들을 맞아들

---

2) 契丹主入京城 焚燒大廟 宮闕 民屋皆盡 是日 王次廣州 … 戊寅王發廣州 次鼻腦驛 壬午次長谷驛

3) 盜起廣州山藪 乙卯遣龍虎軍將校 往捕之

4) 京城及東京 尙廣二州 安邊府等 管內州縣地震 多毀屋廬 東京三日而止

이고 전송하기에 괴롭다는 구실로 이를 중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선대 임금들은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괴로워하는 바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방 관리들이 전부 청렴한 정치에 노력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의 제도와 질서가 해이하고 문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징계하거나 혁신하는 대책이 없는 데로부터 관리들이 나라 일에는 충실하지 않고 오직 사리사욕에 몰두하여 권세 있는 토호들과 결탁하고 있다. 이리하여 백성들로부터 수다한 물자를 수탈하면서 농업과 길쌈은 장려하지 않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어염(魚鹽)과 재칠(梓漆)이 산출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축산과 재산이 있기도 하였건마는 이것을 모조리 수탈하고 어쩌다 주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기만 하면 엉터리 죄명으로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는다. 백성들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호소할 곳이 없고 간혹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여 보려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토호 귀족들의 사측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를 실행할 수 없게 되어 백성들을 수탈하는 해독은 나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관리들이 이려고 서야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에 대하여 밤낮으로 그 피해를 제거하려 애를 쓰건만 이를 집행할 당사자들이 나의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논의가 분분한 것은 무슨 때문인가. 이제 시어사 겸 형부원의랑 이유적(李攸績)을 산동(山東)·산남(山南) 지방의 충주·경주·상주 삼도무문사(三

道撫問使)로, 여사잡단 겸 병부낭중 김약진(金若珍)과 예부낭중 최상(崔尙)을 모두 산남지방의 진주·나주·전주·청주·광주·공주·홍주 칠도무문사(七道撫問使)로, 감찰어사 겸 시전중내급사 안민보(安民甫)를 관서·관북·관내 삼도무문사(三道撫問使)로, 감찰어사 민창수(閔昌壽)를 관내동도무문사(關內東道撫問使)로 임명하여 각 지방으로 파견하되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라” 하였다.<sup>5)</sup>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1년 5월 무인

○ 광주에 가뭄이 들다

예부에서 아뢰기를 “첫여름부터 비가 제 때에 내리지 않고 또 광주(廣州)에서는 전야가 말라 거의 실농 지경이라는 보고가 있사오니 송악의 동쪽 신당(神堂)·모든 신묘(神廟)·산천(山川)·박연(朴淵) 등 5개소에서 7일 동안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광주를

5) 制諸州 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 政績 勤慢清濁 百姓貧富苦樂 可遣使 按驗所司乃以程驛民吏 勞於迎送 請停之 王曰 朕惟先代類遣使臣 採訪 民瘼故 諸道宰民者 悉務清廉 以安民庶 近來綱紀弛紊 且無懲革 不勤公 事 但謀私利 要結權豪 里巷多囊橐之收田原罕桑麻之勸 或地有魚鹽梓漆 或家有畜產貲財 皆被侵奪 若有愜之者 卽假事嚴加枷杖 傷其性命 懷冤 抱痛無所告陳 間有欲正之者 又因貴要之囑 卒莫能行 蠹民之害日益月 滋官吏旣已如此 小民安得聊生 朕晨夕孳孳庶幾釋其煩弊 而當軸秉鈞者 不以爲可 論說紛紛何哉 今以兼侍御史刑部員外郎李攸績 爲山東南忠慶 尙州三道撫問使 兼御史雜端兵部郎中金若珍 禮部郎中崔尙 並爲山南晉 羅全清廣公洪州七道撫問使 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安民甫 爲關西北關 內三道撫問使 監察御史閔昌壽 爲關內東道撫問使 分道發遣 毋或阻滯

비슷한 여러 주·군에서도 각각 기우제를 지내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sup>6)</sup>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18년 11월 임오

○ 광주·봉주에 재해가 발생하다

호부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 지방은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된 데다가 우박까지 내려서 전 지역에 수확할 곡식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봉주(鳳州)에서도 지난 경자년 대홍수로 인하여 가옥과 곡식이 거의 다 유실되다시피 하여 백성들이 일정한 곳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오니 이 두 지역에는 조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절을 보내어 양전하던 일을 정지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sup>7)</sup>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1년 정월 무진

○ 흥왕사에서 연등대회를 열기 위해 광주 등 주에 역을 명령하다

흥왕사(興王寺)에서 5주야(晝夜)에 걸친 연등대회(燃燈大會)를 특별히 열고 조정의 모든 관리들과 안서도호부·개성부·광주·수주(水州: 수원)·양주·동주(東州: 철원)·수주(樹州: 부평) 등 5

6) 禮部奏 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報 田野乾焦 殆失歲 望請於松岳東神堂 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制可

7) 戶部奏 廣州牧 自春至秋 久旱不雨 重以雨雹闔境禾穀一無所收 又鳳州 曾於庚子年大水 廬舍禾稼 漂蕩幾盡 民無定居 請停兩官轄下發使量田 從之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개 주와 강화·장단 두 현에 명령하여 대궐 뜰에서부터 홍왕사 문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5색 비단으로 감은 시렁대를 준비하게 세워 비늘(鱗)처럼 겹겹이 잇대게 하고 왕의 수레가 통과하는 큰 길 좌우에는 등장대를 수풀처럼 세워 대낮과 같이 밝게 하였다. 이날 왕은 호위병을 앞뒤에 세우고 백관들과 함께 향불을 피운 다음 재물과 의복을 시주하였다. 이처럼 성대한 불교행사는 예로부터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sup>8)</sup>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21년 8월 갑자

○ 광주 가돈원에 행차하다

왕이 가돈원(加頓院)에 도착하니 광주(廣州)에서 의위(儀衛)와 악부(樂部)를 갖추어 왕을 영접하면서 말 두 필 건여(肩輿) 한 벌 양산 세 자루를 바쳤다.<sup>9)</sup>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4년 10월 병인

○ 양광주 등에 토산물 공납을 독촉하다

안동(安東)·경주(慶州)·진합주(晉陝州)·상주(尙州)·영암(靈

8) 特設燃燈大會 於興王寺 五晝夜 勅令百司及安西都護 開城府 廣水楊東 樹五州 江華 長湍二縣 自闕庭至寺門 結綵棚櫺北鱗次連亘相屬輦路左右 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 是日 王備鹵簿 率百官行香 施納財襯 佛事之盛 曠 古未有

9) 駕至加頓院 廣州備儀衛樂部以迎 仍獻馬二匹 肩輿一具 陽傘三柄

宕)·나주(羅州)·전주(全州)·양광주(楊廣州)·청주(淸州)·충주(忠州) 등 10도(道)에 사신을 보내어 각 지방의 토산물 공납을 독촉하는 동시에 군사들 중에서 동복 준비와 관련하여 허가를 맡고 고향으로 가서 오랫동안 번상하지 않는 자들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독촉하게 하였다.<sup>10)</sup>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8년 12월 정사

○ 몽고군이 광주를 침입하다

몽고군이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 등지로 향하였는데, 그들이 통과한 곳에는 파괴 학살되지 않는 데가 없었다.<sup>11)</sup>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22년 윤7월 임오

○ 광주 남경을 강화에 소속시키다

전후좌우군(前後左右軍)의 진주(陣主)를 지병마사(知兵馬事)로 임명하여 한강 연안을 방비하게 하는 동시에 광주(廣州)와 남경은 다 강화(江華)로 들어오게 하였다.<sup>12)</sup>

---

10) 遣使於安東·慶州·晉陝州·尙州·靈岩·羅州·全州·楊廣州·淸州·忠州等十道 督諸州土貢 又軍士有因取冬衣 請告歸鄉 久不番上者 督令赴京

11) 蒙兵向廣忠淸州 所過無不殘滅

12) 命前後左右軍陣主 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0년 8월 경신

○ 광주에 몽고군이 침략하다

몽고군사 3천명이 고주(高州)·화주(和州) 경계에 와 진을 쳤고  
척후기병 300여 명은 광주(廣州)에 침입해 가옥에 불을 질렀다.<sup>13)</sup>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0년 11월 기축

○ 광주 등지에서만 축하 표문을 올리다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갔다. 이때에 병란으로  
인하여 제도(諸道)에서 축하 표문을 올려 온 데는 오직 남경(南  
京)과 광주(廣州)·수주(樹州)뿐이었다.<sup>14)</sup>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1년 8월 병자

○ 광주에 몽고군이 들어오다

몽고 척후병이 광주(廣州)에 들어 왔다.<sup>15)</sup>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3년 5월 임진

○ 광주 의안의 흠으로 기와를 굽다

중 육연(六然)을 강화에 파견하여 유리 기와를 구워내게 하였

---

13) 蒙兵三千來屯 高和二州之境 候騎三百餘 至廣州 焚燒廬舍

14) 設八關會 幸法王寺 時因兵亂 諸道上表者 但南京及廣樹二州

15) 候騎至廣州

다. 그 제조 방법이 황단(黃丹)을 많이 쓰게 되는 까닭에 광주(廣州) 의안(義安)의 흙을 가져다가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 품질이나 색채가 남상(南商)들이 파는 것보다 우수하였다.<sup>16)</sup>

『고려사』 권29, 세가29, 충렬왕 6년 3월 을묘

○ 전 광주판관 이인정을 지후로 삼다

감찰사에서 왕에게 진언하여 당시의 정사에 대하여 논박하였더니 왕이 크게 성을 내어 승문관(崇文館)에서 시사(侍史) 심양(沈諱)을 문초하고 잡단 진척(陳倜)과 시사 문응(文應)을 해도(海島)에 귀양보냈으며 전중시사 이승휴(李承休)를 파면시켰고 장군 김일(金鎰)을 시승(侍丞)으로 낭장 우천석을 잡단으로 좌랑(佐郎) 민훤(閔萱)을 시사(侍史)로 전 광주판관 이인정(李仁挺)을 지후(祗侯)로 민지(閔漬)를 전중시사(殿中侍史)로 각각 임명하였다.<sup>17)</sup>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2년 9월 을유

○ 장선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허송(許嵩)을 양천군(陽川君)으로 ... 최단(崔湍)을 첨의정승

16) 遣僧六然于江華 燔琉璃瓦 其法多用黃丹 乃取廣州義安土 燒作之 品色愈於南商所賣者

17) 監察司上言 論時事 王大怒 鞫侍史沈諱于崇文館 流雜端陳倜 侍史文應于海島 罷殿中侍史 李承休 以將軍金鎰爲侍丞 郎將禹天錫爲雜端 佐郎閔萱爲侍史 前廣州判官李仁挺祗侯 閔漬爲殿中侍史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경원군 행 계림윤으로 김륜(金倫)을 검교평리 충주목사로 송영(宋英)을 검교평리 제주목사로, 장선(張瑄)을 검교평리 광주목사로 각각 임명하였는바, 재상들이 지방관으로 나간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18)

『고려사』 권34, 세기34, 충선왕 4년 3월 정사

○ 설영임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홍규(洪奎)를 첨의정승(僉議政丞) 익성군(益城君) 지익성부사(知益城府事)로 설영임(薛永任)을 찬성사(贊成事) 광주목사(廣州牧使)로 각각 임명하였다.19)

『고려사』 권38, 세기38, 공민왕 원년 5월 기축

○ 광주 미원장을 현으로 승격시키다

왕이 사람을 익화현(益和縣)에 보내어 중 보허(普虛)를 불렀다. 보허는 호가 태고(太古)인데,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자로서 자기가 강남(江南)에 가서 의발(衣鉢)을 석옥화상(石屋和尚)에게 전하였다고 말하였다. 광주(廣州) 미원장(迷元莊)에 가서 친척들을 모아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보허가 왕에게 말하여

18) 許嵩爲陽川君 … 崔湍爲僉議政丞慶原君行雞林尹 金倫檢校評理忠州牧使 宋英檢校評理濟州牧使 張瑄檢校評理廣州牧使 宰相之出牧始此

19) 以洪奎爲僉議政丞益城君知益城府事 薛永任爲贊成事廣州牧使

미원을 현으로 승급시켜서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일체의 지휘는 보허가 하고 감무는 단지 드나들 따름이었다. 밭과 들을 넓게 차지하였으며 온 들에 말을 놓아먹이면서 이것을 모두 내승(內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말들이 곡식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감히 쫓아내지 못하였다.<sup>20)</sup>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10년 11월 무진

○ 왕이 광주에 머무르다

왕이 사평원(沙平院)에 이르니 개령감무(開寧監務)가 와서 짐 싣는 말 100여 필을 바쳤다. 왕이 광주(廣州)에 머물렀다. 이 곳 아전과 백성들은 모두 산성으로 올라가고 주관(州官)만이 있었다. 유탁을 경상도 도순문 겸 병마사로 이춘부(李春富)를 전라도 도순문 겸 병마사로 최안소(崔安沼)를 양광 도순문사(楊廣道巡問使)로 임명하였다.<sup>21)</sup>

---

20) 王遣使召僧普虛 于益和縣 普虛 號太古 歷諸方 入江南 自言傳衣鉢于石屋和尚 寓廣州 迷元莊 聚親戚 遂家焉 虛白王 陸迷元爲縣置監務 虛主號令 監務但進退而已 廣占田園 牧馬滿野 皆以內乘稱 雖害禾穀 人不敢逐

21) 駕至沙平院 開寧監務來 獻刷馬百餘匹 駕次廣州 吏民皆登山城 惟州官在 以柳濯爲慶尙道都巡問兼兵馬使 李春富爲全羅道都巡問兼兵馬使 崔安沼爲楊廣道巡問使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10년 11월 정축

○ 조희고를 광주목사에 임명하다

장군 홍선(洪瑄)이 유격장군(遊擊將軍)을 자원함에 왕이 가상히 여겨 남경윤 양광도 관군상만호로 등용하고 조희고(趙希古)를 광주목사 양광도 부만호로 임명하였으며 이지태(李之泰)로 안중원을 대신하게 하고 안중원과 허강을 순군에 가두었다.22)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1년 8월 경술

○ 남경광주도병마사에 김계생을 임명하다

좌정승 유탁을 서북면 홍적방어제군도통사 밀직사 이순(李珣)을 도병마사, 김한귀(金漢貴)를 동경도(東京道), 허강(許綱)을 안동도(安東道), 김진(金璫)을 상주도(尙州道), 이지태(李之泰)를 진주도(晉州道), 성원규(成元揆)를 전주도(全州道), 임견미(林堅味)를 나주도(羅州道), 김계생(金桂生)을 남경광주도(南京廣州道), 박춘(朴椿)을 청주수원도(淸州水原道), 유계조(柳繼祖)를 공주도(公州道), 장희재(張熙載)를 충주도(忠州道), 김장수(金長壽)를 교주도(交州道), 김유(金庾)를 강릉도(江陵道)의 병마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때에 홍건적에 관한 소문이 있었고 또 황제가 협공을 명령한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있었으나 얼마 안가서 홍건적

---

22) 將軍洪瑄 自請爲遊擊將軍 王嘉之 擢爲南京尹楊廣道管軍上萬戶 以趙希古爲廣州牧使楊廣道副萬戶 李之泰代宗源 下綱及宗源于巡軍

이 궤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지하였다.<sup>23)</sup>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윤3월 을유

○ 광주목사 송양우를 2등공신으로 삼다

흥왕토적공(興王討賊功)을 기록하면서 삼사우사 이성서(李成瑞), 지도첨의 안우경, 밀직사 최영, 밀직부사 우제·한휘, 개성윤 양백익(梁伯益), 전리판서 오인택(吳仁澤), 판도판서 김한진(金漢眞), 문예부사윤(文睿府司尹) 김서(金澐), 우부대언 유계조(柳繼祖), 상호군 양백연(楊伯淵)·김유(金庾), 판소부시사 김지서(金之瑞), 판전의시사 이춘영(李春英), 사재령 이분(李芬), 호군 이용길(李龍吉)을 1등으로 하고 … 또 신축호종공(辛丑扈從功)을 수록하면서 현직으로 죽은 우정승 홍언박, 증직(贈職) 정승 정세운, 철성부원군 이암, 판삼사사 김일봉, 당성부원군 홍원철(洪元哲), 찬성사상의 경천흥(慶千興)·황상(黃裳), 서녕군 유숙, 봉화부원군 정송수(鄭松壽), 한양부원군 박유문(朴有文)을 … 1등공신으로 하고 밀직부사 유연(柳淵), 전 개성윤 홍사범(洪師範)을 … 2등공신으로 하였다. … 또 수복경성공(收復京城功)을 수

23) 以左政丞柳濯爲西北面紅賊防禦諸軍都統使 密直使李珣爲都兵馬使 金漢貴爲東京道 許綱爲安東道 金瑱爲尙州道 李之泰爲晉州道 成元揆爲全州道 林堅味爲羅州道 金桂生爲南京廣州道 朴椿爲清州水原道 柳繼祖爲公州道 張熙載爲忠州道 金長壽爲交州道 金庾爲江陵道兵馬使 時有紅賊聲息 又帝有挾攻之命故 有是舉 未幾聞賊潰 乃止

록하면서 찬성사상의 황상, 정당문학 한방신, 지도첨의 안우경, 판밀직사사 이순, 밀직사 최영, 지밀직사사 이구수(李龜壽), 밀직부사 우제(禹禪)·유연(柳淵)·한휘(韓暉), 전 밀직부사 허유(許猷), 개성윤 양백익(梁伯益), … 연안군 송경(宋卿), 전 밀직부사 김광조(金光祚), 군부판서 윤척(尹陟), 판서운판사 우길생(禹吉生), 판전객시사 장백안(張伯顔), 위위윤(衛尉尹) 염흥방(廉興邦), 광주목사 송양우(宋良遇), 한양윤 최안소(崔安沼), 안변부사 이방(李昉), 전 판내부시사 민후(閔珣), 전 판전농시사 전이도(全以道), 상호군 김유(金庾), 판내부시사 이선(李善), 전 안주목사 정문우(鄭文祐), 전 판선공시사 임완(林完), 전 판전의시사 석말천영(石抹天英), 대호군 신렴(辛廉)·이용장(李用藏)·이득림(李得霖), 전 대호군 이화(李華)·마천린(馬天麟)·김광부(金光富)·허서(許瑞)·변광수(邊光秀), 전 전의령 김광우(金光宇), 해주목사 김계생(金桂生), 소부윤 이광대(李廣大), 안변부사 김언룡(金彦龍), 판전외시사 최영기(崔英氣), 내부령 이원계(李元桂), 전 군기감 한방언(韓邦彦), 소부윤 김장주(金長柱), 호군 조인벽(趙仁璧)·김윤정(金允精), 전 중부부령 강원보(康元甫), 도관정랑 유구(柳珣), 상주판관 최중청(崔仲淸), 중랑장 신지혁(辛之奕)·윤선(尹善), 전의주부 장하(張夏), 지함주사 박인천(朴仁戡), 전 호군 한중명(韓仲明)·조군옥(趙君玉)·김사혁(金斯革), 군기소감 이방년(李芳年), 호군 홍구좌(洪久佐), 전리총랑(典理摠郎) 하원(河源), 전 성균사에 김수(金銖), 서운부정 정거길(鄭居吉), 침원령 이자

수(李子修), 중랑장 조평(趙平)·이자분(李子芬), 전 봉거령 도천우(都千遇)를 2등공신으로 하였다.<sup>24)</sup>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5월 갑오

○ 광주도병마사에 장천지를 임명하다

전보문(全普門)을 경상도 도순문사로, 전이도(全以道)를 안동

24) 錄興王討賊功 以三司右使李成瑞 知都僉議安遇慶 密直使崔瑩 密直副使禹禪 韓暉 開城尹梁伯益 典理判書吳仁澤 版圖判書金漢眞 文睿府司尹金湑 右副代言柳繼祖 上護軍楊伯淵 金庚 判小府寺事金之瑞 判典醫寺事李春英 司宰令李芬 護軍李龍吉爲一等功臣 … 又錄辛丑扈從功 以卒右政丞洪彥博 贈政丞鄭世雲 鐵城府院君李崑 判三司事金逸逢 唐城府院君洪元哲 贊成事商議慶千興 黃裳 瑞寧君柳淑 奉化府院君鄭松壽 漢陽府院君朴有文 … 爲一等功臣 密直副使柳淵 前開城尹洪師範 … 爲二等功臣 … 又錄收復京城功 以贊成事商議黃裳 政堂文學韓方信 知都僉議安遇慶 判密直司事李珣 密直使崔瑩 知密直司事李龜壽 密直副使禹禪 柳淵 韓暉前密直副使許猷 開城尹梁伯益 … 延安君宋卿 前密直副使金光祚 軍簿判書尹陟 判書雲觀事禹吉生 判典客寺事張伯顏 衛尉尹廉興 邦廣州牧使宋良遇 漢陽尹崔安沼 安邊府使李叻 前判內府寺事閔珞 前判典農寺事全以道 上護軍金庚 判內府寺事李善 前安州牧使鄭文祐 前判繕工寺事林完 前判典醫寺事石抹天英 大護軍辛廉 李用藏 李得霖前大護軍李華 馬天麟 金光富 許瑞 邊光秀 前典儀令金光雨 海州牧使金桂生 小府尹李廣大 安邊府使金彥龍 判典醫寺事崔英氣 內府令李元桂 前軍器監韓邦彥 小府尹金長柱 護軍趙仁璧 金允精 前宗簿副令康元甫 都官正郎柳珣 尙州判官崔仲清 中郎將辛之奕 尹善典儀注簿張夏 知咸州事朴仁葦 前護軍韓仲明 趙君玉 金斯革 軍器少監李芳年 護軍洪久佐 典理摠郎河源 前成均司藝金銖 書雲副正鄭居吉 寢園令李子修 中郎將趙平 李子芬 前奉車令都千遇 爲二等功臣

도병마사로, 안극인(安克仁)을 동경도병마사로, 유유(柳濡)를 상주도병마사로, 임견미(林堅味)를 진주도병마사로, 안집(安楫)을 전주도병마사로, 성원규(成元揆)를 나주도병마사로, 김한귀(金漢貴)를 광주도병마사(廣州道兵馬使)로, 장천지(張天志)를 부평·수원도병마사로, 권희(權禧)를 홍주도병마사로, 조사민(趙思敏)을 공주도병마사로, 성원완(成元完)을 청주도병마사로, 옥천주(玉天柱)를 충주도병마사로, 권장수(權長壽)를 교주도병마사로 임명하여 군대를 증모하게 하였다.<sup>25)</sup>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5년 6월 을축

○ 광주의 공납을 이득림이 도둑질하다

신돈(辛旽)의 도당인 이득림(李得霖)을 전라도 안렴사로 임명하였다. 헌사(憲司)에서 전에 이득림이 광주(廣州)의 공납 명주를 도둑질하였다고 탄핵하니 왕이 추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의 부임을 독촉하였다.<sup>26)</sup>

---

25) 以全普門爲慶尙道都巡問使 全以道爲安東道兵馬使 安克仁爲東京道兵馬使 柳濡爲尙州道兵馬使 林堅味爲晉州道兵馬使 安楫爲全州道兵馬使 成元揆爲羅州道兵馬使 金漢貴爲廣州道兵馬使 張天志爲富平水原道兵馬使 權禧爲洪州道兵馬使 趙思敏爲公州道兵馬使 成元完爲淸州道兵馬使 玉天柱爲忠州道兵馬使 權長壽爲交州道兵馬使 調兵

26) 以辛旽黨 上護軍李得霖爲全羅道按廉使 憲司劾得霖 嘗盜廣州貢紬 王命勿治 督令之任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3년 6월 정유

○ 염제신을 광주로 귀양보내다

도당에서 임밀(林密)과 채빈(蔡斌)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기생이 채빈의 모자에 꽃을 바로 꽂지 못함에 채빈이 크게 노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시중 염제신(廉悌臣)을 광주로 귀양보냈다. 임인일에 채빈이 기생이 그 뜻을 받아 주지 않음을 노여워하여 말을 달려 돌아가려 하였다. 왕이 김흥경(金興慶)에게 명령하여 금교역(金郊驛)까지 쫓아가서 위로하여 데리고 왔다. 그때 빈관에서의 접대가 대단히 융성하였기 때문에 국고가 고갈되었으며 심지어는 각사에 명령하여 윤번으로 연회를 배설하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였다.<sup>27)</sup>

『고려사』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4월 임인

○ 광주 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해에게 공신호를 내리다

여러 회군공신(回軍功臣)을 수록하고 교서를 내리기를 “가짜 임금 신우가 어긋난 짓을 마음대로 하여 무진년에는 최영과 함께 요양(遼陽)을 침략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중국 조정에 죄를 짓게 하려 하였다. 사직의 운명이 극히 위험하였던 것이다. 이때

27) 都堂宴 林密蔡斌 妓簪斌帽花不整 斌大怒 王聞之 流侍中廉悌臣于廣州 壬寅斌怒妓忤其意 馳馬將還 王命金興慶 追及金郊驛 慰諭以來 時館待甚隆 府庫爲之匱竭 至令各司 輪辦宴慰

수문하시중 이태조가 전 시중 조민수와 함께 대의(大義)를 제창하고 여러 장령들을 설복시키어 회군(回軍)을 결정함으로써 나라를 안전하게 하였다. 그 공로는 대단히 커서 영구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에 협력한 문하시중 심덕부, 전 판삼사사 왕안덕, 문하찬성사 지용기, 평리 배극렴·윤호, 전 평리 정지, 평리상의 유만수, 지문하부사 박위, 상의지문하부사 최윤지, 평양윤 황보림, 전 밀직사사 이무·이빈, 우대언 조인옥, 용양군상호군 남은, 봉복군(奉福君) 중 신조(神照), 판자혜부사 경보, 전 황주목사(前黃州牧使) 조희고(趙希古), 전 원주등처 병마절제사 경의, 판의덕부사 이화, 판자혜부사 최단,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해(崔雲海), 지밀직사사 이두란·육려, 개성윤(開城尹) 이승원(李承源), 지밀직사사 윤사덕 경상도 도절제사 구성로 동지밀직사사 박영충 화령윤(和寧尹) 정요(鄭曜), 동지밀직사사 황희석·유광우, 밀직부사 김인찬·장사길, 전 충주등처 병마절제사 최공철, 전 강릉등처 병마절제사 왕빈, 전 계림윤 박가실, 전 밀직부사 김천장, 진주등처 병마절제사 정자의, 전 개성윤(開城尹) 이백(李伯), 이조판서 조온, 전 의주목사 정송, 전 판서 이덕립, 전 의주만호 백영우, 천호 장철 등 45명에게 공신칭호를 주니, 소관 관원들은 나에게 보고하고 시행하라. 그리고 고 영삼사사(領三司事) 변안렬, 삼사좌사 조인벽, 완산군(完山君) 이원계, 지신사 박충, 판자혜부사 안경, 진주등처 병마절제사 김상, 한양윤(漢陽尹) 김백흥(金伯興) 등은 그 몸은 죽었으나 그의 공을 잊어서는 안되며

예조판서 윤소종과 판전교시사 남재 등은 회군할 때와 고사(故事)의 실례를 들어 증명하여 계획 실행을 도와주니 역시 가상한 일이다. 소관 관원들은 그들에 대한 표창 범절을 빠짐없이 거행하라”고 하였다.<sup>28)</sup>

『고려사』 권53, 지7, 오행1, 인종 12년 5월 무인

○ 광주에 빗비가 내리다

광주(廣州)에 빗비가 내렸다.<sup>29)</sup>

28) 錄回軍諸臣功 下教曰 僞主辛禡 恣行不道 歲戊辰 乃與崔瑩 欲犯遼陽 將使國家 得罪天朝 社稷存亡 閒不容髮 守門下侍中李〈太祖舊諱〉與前侍中曹敏修 首倡大義 諭諸將 定策回軍 以安社稷 功勞重大 帶礪難忘 其同心協力者 門下侍中沈德符 前判三司事王安德 門下贊成事池湧奇 評理裴克廉 尹虎 前評理鄭地 評理商議柳曼殊 知門下府事朴葳 商議知門下府事崔允沚 平壤尹皇甫琳 前密直司事李茂 李彬 右代言趙仁沃 鷹揚軍上護軍南閔 奉福君僧神照 判慈惠府事慶補 前黃州牧使趙希古 前原州等處兵馬節制使慶儀 判懿德府事李和 判慈惠府事崔鄂 廣州等處兵馬節制使崔雲海 知密直司事李豆蘭 陸麗開城尹李承源 知密直司事尹師德 慶尙道都節制使具成老 同知密直司事朴永忠 和寧尹鄭曜 同知密直司事黃希頌 兪光祐 密直副使金仁贊 張思吉 前忠州等處兵馬節制使崔公哲 前江陵等處兵馬節制使王賓 前鷄林尹朴可實 前密直副使金天莊 晉州等處兵馬節制使鄭子義 前開城尹李伯 吏曹判書趙溫 前義州牧使鄭松 前判書李德林 前義州萬戶白英祐 千戶張哲等 四十五人皆賜功臣 有司啓聞施行 故領三司事邊安烈 三司左使趙仁璧 完山君李元桂 知申事朴叢 判慈惠府事安慶 晉州等處兵馬節制使金賞 漢陽尹金伯興等 雖已身死功不可忘 禮曹判書尹紹宗 判典校寺事南在等 於回軍之際 以社稷大計援古贊計亦可嘉也 褒賞之典有司一一舉行

29) 雨血于廣州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고려사』 권54, 지8, 오행2, 문종 11년 5월 무인

○ 광주 등 군에 비를 빌도록 하다

예부(禮部)에서 보고하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금년 초여름부터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았으며 또 광주목(廣州牧)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농토가 모두 말라서 거의 흉년이 들게 되었다 하오니 송악동신당(松岳東神堂)과 여러 신묘들과 산천과 박연 등 5개소에서 7일에 한 번씩 비를 빌고 또 광주 등 각 주·군에 명령하여 각각 비를 빌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sup>30)</sup>

『고려사』 권55, 지9, 오행3, 정종 2년 6월 무진

○ 광주 등지에 지진이 일어난다

서울과 동경(東京) 및 상주와 광주 2개 주와 안변부(安邊府) 등 관내의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으며 동경은 3일만에야 멎었다.<sup>31)</sup>

『고려사』 권55, 지9, 오행3, 신우 11년 7월 경진

○ 광주 도미사 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다

광주(廣州) 도미사(渡迷寺)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아와서인가

30) 禮部奏 謹按 今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牧報 田野乾焦殆失 歲望請於松岳東神堂 諸神廟 山川 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

31) 京城及東京 尙廣二州 安邊府等 管內州縣地震 多毀屋廬 東京三日 而止

가 잠기고 떠내려 가기도 하였다.<sup>32)</sup>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 양광도

양광도(楊廣道)는 원래 고구려와 백제의 땅이다(한강(漢江) 이북은 고구려 지역이며 그 이남은 백제 지역이다). 성종 14년에 전국을 10개 도로 나누고 양주(楊州)·광주(廣州) 소속 주·현은 관내도에, 충주·청주 소속 주·현은 충원도(忠原道)에, 공주·운주(運州) 소속 주·현은 하남도(河南道)에 각각 소속시켰으며 예종 원년에 이를 통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만들었다. 명종 원년에 다시 2개 도로 분할하였다가 충숙왕 원년에 양광도로 정했으며 공민왕 5년에 충청도로 만들고 경(京) 1개, 목(牧) 3개, 부(府) 2개, 군(郡) 27개, 현(縣) 78개를 관할하였다.<sup>33)</sup>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 광주목

광주목(廣州牧)은 본래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이 한(漢)나

32) 廣州渡迷寺 山頂水湧 漂沒人家

33) 楊廣道 本高勾麗 百濟之地〈漢江以北高勾麗 以南百濟〉成宗十四年分境內爲十道 以楊州廣州等州縣 屬關內道 忠州淸州等州縣 爲忠原道 公州運州等州縣 爲河南道 睿宗元年 合爲楊廣忠淸州道 明宗元年 分爲二道 忠肅王元年 定爲楊廣道 恭愍王五年 爲忠淸道 領京一 牧三 府二 郡二十七 縣七十八

라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에 나라를 창건하고 위례성(慰禮城)에 수도를 정하였다가 13년에는 한산(漢山) 아래에 가서 목책을 세우고 이곳에 위례성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마침내 궁궐을 짓고 살았으며 이듬해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어 남한산성(南漢山城)이라고 부르다가 근초고왕(近肖古王) 25년에 이르러 수도를 남평양성(南平壤城)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신라 태종왕(太宗王)이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포위 공격하니 백제가 멸망되었다. 그 후 당나라 군사가 본국으로 돌아감에 문무왕(文武王)이 점차 이 지역을 점령하여 한산주(漢山州)라고 고쳤다가 다시 남한산주(南漢山州)로 고쳤고 경덕왕 15년에 한주(漢州)라고 이름을 고쳤다. 태조 23년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성종 2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12개의 목을 설치할 때에 이 주도 그 중의 하나였다. 14년에 12개 주에 절도사를 두면서 본 주는 봉국군(奉國軍)이라고 불러 관내도에 소속시켰다. 현종 3년에 이를 폐지하고 안무사(按撫使)로 되었으며 9년에 전국에 8개 목을 정함에 이르러 이 주는 그대로 목관(牧官)으로 되었는데 바 회안(淮安: 성종이 정한 명칭이다)이라고도 불렀다. 일장성(日長城: 신라 문무왕 때에 축성한 것으로 즉 주장성(晝長城)이다)이 있고 본 목에 소속된 군이 4개, 현이 3개 있다.<sup>34)</sup>

34) 廣州牧 初百濟始祖溫祚王 以漢成帝鴻嘉三年 建國都于慰禮城 至十三年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遂建宮闕居之 明年遷都 號南漢山城 至近肖古王二十五年 移都南平壤城 及新羅太宗王 遣金庾信與唐將蘇定方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 천녕군을 광주목에 소속시키다

천녕군(川寧郡)은 원래 고구려의 술천군(述川郡: 성지매[省知買]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이 소천군(泝川郡: 泝는 沂로도 쓴다)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광주목(廣州牧)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진강나루(鎭江渡)가 있다.<sup>35)</sup>

『고려사』 권78, 지32, 식화1, 전제 경리 문종 18년 11월

○ 광주에 한발이 오래 계속되다

호부에서 보고하기를 “광주목(廣州牧)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래도록 한발이 계속되었고 게다가 우박까지 쏟아져서 온 고을의 곡물을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였고 또 봉주(鳳州)는 지난 경자년에 홍수를 겪었을 때 집들과 곡물들이 거의 다 유실 매몰되어 백성들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청컨대 두 고을 관

---

夾攻 百濟滅之 後唐師還 文武王漸收其地 改爲漢山州 又改爲南漢山州 景德王十五年 改名漢州 太祖二十三年 更今名 成宗二年 初置十二牧州 其一也 十四年 置十二州節度使 號奉國軍 屬關內道 顯宗三年 廢爲安撫使 九年 定八牧 仍爲牧官 別號淮安 <成廟所定> 有日長城 <新羅文武王所築卽 晝長城> 屬郡四 縣三

35) 川寧郡 本高勾麗 述川郡 <一云省知買> 新羅景德王 改爲泝川郡 <泝一作沂> 高麗初 更今名 顯宗九年 來屬 後置監務 有鎭江渡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내에 사신을 보내어 진행하고 있는 토지 측량을 중지시키소서”  
라고 하였더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sup>36)</sup>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휼 은면지제 의종 21년 9월

○ 광주의 부역을 면제하다

왕이 남경(南京)에서 돌아와 남경·광주(廣州)의 금년 세조(稅租)와 나르는 부역을 면제하고 그 밖의 주·현의 조세를 나르는 부역은 그 절반을 면제하였다.<sup>37)</sup>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휼 은면지제 고종 22년 5월

○ 광주의 상요와 잡역을 면제하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광주(廣州)는 신묘·임진년(고종 18·19년)에 적병(狄兵: 몽고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으나 성을 고수하고 항복하지 않았으니 광주의 정상적인 부역과 잡역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8)</sup>

36) 戶部奏 廣州牧 自春至秋 久旱不雨 重以雨雹闔境禾穀 一無所收 又鳳州 曾於庚子年大水 廬舍禾穀 漂蕩幾盡 民無定居 請停兩官轄下發使量田 從之

37) 王自南京還 蠲南京 廣州 今年稅租輸役 其餘州縣 半之

38) 詔廣州於辛卯壬辰年 狄兵圍攻 能固守不下 其免常徭雜役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진휼 수한역려여진대지제 예종 4년 12월

○ 광주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다

근신을 나누어 흥화(興化)·운중(雲中)·서해·남경(南京)·광주(廣州)·충청주(忠淸州) 등 여러 도에 파견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였다.<sup>39)</sup>

『고려사』 권82, 지36, 병2, 참여

○ 광주가 평구도에 속하다

평구도(平丘道)는 30개소를 관할한다. 평구(平丘)〈남경(南京)〉·봉안(奉安)〈광주(廣州)〉·오빈(娛賓)〈양근(楊根)〉·전곡(田谷)·백동(伯冬)〈지평(砥平)〉·유원(幽原)〈원주(原州)〉·양화(楊化)〈천녕(川寧)〉·가흥(嘉興)〈충주(忠州)〉·연원(連原)〈충주(忠州)〉·황강(黃剛)·수산(壽山)·안음(安陰)〈청풍(淸風)〉·단구(丹丘)·안양(安壤)·신림(神林)〈원주(原州)〉·천남(泉南)〈제주(提州)〉·연평(延平)·온산(溫山)·정양(正陽)〈영월(寧越)〉·영천(靈泉)·장림(長林)〈단산(丹山)〉·의풍(義風)〈영춘(永春)〉·낙수(樂壽)〈평창(平昌)〉·신흥(新興)·신진(新津)〈황리(黃利)〉·창락(昌樂)〈흥주(興州)〉·평은(平恩)·창보(昌保)〈강주(剛州)〉·유동(幽洞)〈감천(甘泉)〉·도심(道深)〈봉화(奉化)〉. 명주도(溟州道)는 28개소를 관할한다. … 1과에는 정인(丁人)이 75명 2과에는 정인이 60명 3과에는 정인이 45명 4과에는 정인이 30명 5과

39) 分遣近臣 賑興化 雲中 西海 南京 廣州 忠淸州等 諸道飢民

에는 정인이 12명 6과에는 정인이 7명이다. 산예(狻猊)는 비록 양경 사이에 있으나 다른 역(驛)에 비교하면 하는 일이 긴요하지 않으므로 정인을 50명으로 하고 임원(林原)은 비록 양경 사이는 아니나 하는 일이 가장 긴요하므로 1과에 두고 삭안(朔安)은 비록 3과로 되었으나 연로(沿路)가 아니고 동서 요충지에 있으므로 정인을 50명으로 하였다. 만약 토지가 있고 정인이 부족하면 그 역의 백정 자체의 자원자로 보충해 세운다. 방울을 달아 공문을 전해 보내는데〈현령은 가죽 주머니에 봉인한 공문서를 넣어 보내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제일 급한 일은 방울을 세 개 달고 다음 급한 일은 방울을 두 개 달고 그 다음 급한 일은 방울을 한 개 다는데, 이것은 일이 급한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각 진·역(津驛)에 서는 가죽으로 싸인 공문서를 전해 보내는데, 2월부터 7월까지의 제일 급한 일은 하루에 여섯 역(驛)을 가고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다섯 역을 가고 그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네 역을 가기로 하며 8월부터 정월까지의 제일 급한 일은 하루에 다섯 역을 가고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네 역을 가고 그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세 역을 가기로 한다.<sup>40)</sup>

---

40) … 慶州道掌十五德豐慶安長嘉安業南山〈廣州〉良梓〈果州〉金領〈龍駒〉佐贊分行〈竹州〉五行安利〈利川〉無極〈陰竹〉遙安〈陰城〉丹月安富〈槐州〉忠淸州道掌三十四同和長足菁好〈水州〉嘉川〈陽城〉栗峯雙樹猪山長池〈淸州〉長楊堆糧〈鎭州〉燕山驛金沙〈燕岐〉蒲谷〈全義〉成歡〈稷山〉新恩〈天安〉金蹄〈豐歲〉長世〈牙州〉昌德〈新昌〉理興〈溫水〉日興〈禮山〉廣庭日新〈公州〉坦平〈公州〉銀山〈扶餘〉

『고려사』 권82, 지36, 병2, 마정

○ 광주의 마정(馬政)

목장으로는 용양(龍驤)〈황주(黃州)〉· 농서(隴西)〈동주(洞州)〉· 은천(銀川)〈백주(白州)〉· 양란(羊欄)〈개성(開城)〉· 좌목(左牧)〈정주(貞州)〉· 회인(懷仁)〈청주(淸州)〉· 상자원(常慈院)〈견주(見州)〉· 엽호현(葉戶峴)〈광주(廣州)〉· 강음(江陰)· 동주(東州)가 있었다.41)

維鳩〈新豐〉榆楊〈定山〉汲泉〈伊山〉洪州驛光世〈大興〉金井〈青陽〉得熊〈余美〉夢熊〈貞海〉靈榆〈嘉林〉非熊〈鴻山〉… 分各驛丁戶爲六科以金郊 臨波 金崑 寶山 安城 龍泉 岳嶺 洞仙 高原 生陽 懷蛟 林原爲一科以安定 迎德 通寧 雲岳 興林 興郊 長若 安信 新安 雲興 林畔 通陽 豐陽 興化鎮驛爲二科以白嶺 玉雞 龍潭 嵐泉 林湍 松閒 丹林 銀漢 孤山 藍山 寶龍 鐵關 德嶺 通達 和遠 城陽 康樂 大平 長興 玉兒 葦溪 朔安爲三科以通德 善田 金川 長利 長歡 風湍 通堰 熊壤 通蕃 長壽爲四科以金谷 深洞 清湍 望丁 金剛 丹林 沙溝石牛 興泉 密田 桃摘 田原 臨江縣驛 利嶺 直木 保安 安撫 甘泉 山梁 高岑 竹苞 灌木 射岳 清澗 安奇 桑樹 雙谷 大昌 橫深 珍富 大和 芳林 雲橋安仁 壽山 新池 雲峯 驥麟 班石 陶工 金洞 管山 深源 德新 洞陰縣驛爲五科以楊溪 嘉原 青澗 長材 雲半 金化縣驛 僧嶺縣驛 朔寧縣驛 元貞 芳春 遂人 富昌 甘泉 連峯 仁嵐 蒼峯 嵐山 商 圓壤 瑪瑙 希山商縣驛 臨川 同德 麟駒 樂豐 平陵 喬柯 史直 龍化 沃源 興富 召召 木界 烏原 慈山 降仙 玉地 白原 兎山縣驛 溫泉 往谷 泉頭 今勿 雲岳 長林爲六科 一科丁七十五 二科丁六十 三科丁四十五 四科丁三十 五科丁十二 六科丁七 狡狴雖在兩京間 比他驛役事不緊故仍定五十丁 林原雖非兩京間 役事最緊故在一科 朔安雖爲三科 非沿路故定爲二十五丁 桃源雖爲三科在東西要衝故定爲五十丁 若有田而丁口不足以本驛白丁子枝自願者充立 懸鈴傳送〈懸鈴謂皮俗盛文貼傳送〉三急三懸鈴 二急二懸鈴 一急一懸鈴 隨事緩急行之 津驛皮角傳送 自二月至七月 三急六驛 二急五驛 一急四驛 八月至正月 三急五驛 二急四驛 一急三驛

41) 諸牧場 龍驤〈黃州〉隴西〈洞州〉銀川〈白州〉羊欄〈開城〉左牧

『고려사』 권83, 지37, 병3, 주현군 양광도

○ 광주의 주현군

- 광주(廣州) 도내 : 보승 258명, 정용 546명, 1품 536명.
- 남경(南京) 도내 : 보승 133명, 정용 864명, 1품 529명.
- 안남(安南) 도내 : 보승 159명, 정용 292명, 1품 282명.
- 인주(仁州) 도내 : 보승 194명, 정용 187명, 1품 227명.
- 수주(水州) 도내 : 보승 175명, 정용 291명, 1품 372명.
- 충주목(忠州牧) : 보승 241명, 정용 357명, 1품 520명.
- 원주(原州) 도내 : 보승 122명, 정용 203명, 1품 248명.
- 청주목(淸州牧) 도내 : 보승 538명, 정용 708명, 1품 850명.
- 공주(公州) 도내 : 보승 326명, 정용 553명, 1품 527명.
- 홍주(洪州) 도내 : 보승 238명, 정용 497명, 1품 713명.
- 가림(嘉林) 도내 : 보승 98명 정용 251명 1품 201명.<sup>42)</sup>

〈貞州〉懷仁 〈淸州〉常慈院 〈見州〉葉戶峴 〈廣州〉江陰東州

42) 廣州道內 保勝二百五十八人 精勇五百四十六人 一品五百三十六人 南京道內 保勝一百三十三人 精勇八百六十四人 一品五百二十九人 安南道內 保勝一百五十九人 精勇二百九十二人 一品二百八十二人 仁州道內 保勝一百九十四人 精勇一百八十七人 一品二百二十七人 水州道內 保勝一百七十五人 精勇二百九十一人 一品三百七十二人 忠州牧道內 保勝二百四十一人 精勇三百五十七人 一品五百二十人 原州道內 保勝一百二十二人 精勇二百三人 一品二百四十八人 淸州牧道內 保勝五百三十八人 精勇七百八人 一品八百五十人 公州道內 保勝三百二十六人 精勇五百五十三人 一品五百二十七人 洪州道內 保勝三百三十八人 精勇四百九十七人 一品七百十三人 嘉林道內 保勝九十八人 精勇二百五十一人 一品二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광주원부인 왕씨

○ 광주원부인

광주원부인(廣州院夫人) 왕씨는 광주(廣州) 사람이니 대광 왕규의 딸이다.<sup>43)</sup>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소광주원부인 왕씨

○ 소광주원부인

소광주원부인(小廣州院夫人) 왕씨도 왕규의 딸이니 아들 광주 원군(廣州院君)을 낳았다.<sup>44)</sup>

『고려사』 권88, 열전1, 후비1, 후광주원부인 왕씨

○ 후광주원부

후광주원부인(後廣州院夫人) 왕씨는 광주(廣州) 사람이니 대광 왕규의 딸이다.<sup>45)</sup>

『고려사』 권92, 열전5, 왕순식 부 이충언

○ 광주·죽주 등 참고의 곡식을 하사하다

이충언(李愬言)을 본읍 장군으로 임명하고 이웃 읍의 정호

---

百一人

43) 廣州院夫人王氏 廣州人 大匡規之女

44) 小廣州院夫人王氏 亦規之女 生子廣州院君

45) 後廣州院夫人王氏 廣州人 大匡規之女

229호를 더 주었다. 또 충주·원주·광주·죽주·제주 창고의 곡식 2,200석 소금 1,785석을 주고 친필로 편지를 써서 금석 같이 굳은 신의를 표하였다.<sup>46)</sup>

『고려사』 권93, 열전6, 채충순

○ 왕이 거란을 피해 광주에 체류하다

당시 대량원군(大良院君)은 삼각산 신혈사(神穴寺)에 있었다. 채충순(蔡忠順)이 궁중에 들어가서 이 사유를 왕에게 아뢰니 왕은 말하기를 “마땅히 문관·무관을 각 한 명씩 선택하여 군교들을 거느리고 가서 영접하라”고 하므로 채충순과 최항 및 고영기 등이 의논하고 선휘판관(宣徽判官) 황보유의(皇甫兪義)를 왕에게 천거하고 채충순 등이 또 의논한 후 왕에게 아뢰기를 “군교들이 많으면 행동이 반드시 지연되어 악당들이 먼저 손을 쓸 우려가 있으니 10여 명 정도를 파견하되 지름길로 가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왕도 그 의견이 옳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친히 왕위를 선위(禪位)하고 싶으니 빨리 사람들을 보내고 지체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내 병이 쾌유되면 성종이 나를 책봉하던 옛일과 같이 하겠다. 명분을 일찍이 정하면 틈을 엿보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자식이 없고 계승자가 정해

46) 拜愬言 本邑將軍 加賜傍邑丁戶 二百二十九 又與忠原廣竹堤州倉穀 二千二百石 塩一千七百八十五石 且致手札 示以金石之信 曰至于子孫 此心不改

지지 않고 있으므로 못 사람의 마음이 동요되는데,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국가 대계로서 이보다 더 큰일은 없으니 그대들은 각기 충성을 다하라”고 하면서 왕이 드디어 눈물을 흘리니 채충순도 울었다. 왕은 채충순에게 명령하여 대량원군에게 주는 글의 초안을 지으라고 하면서 친히 먹을 갈아주니 채충순이 사양하기를 “제가 스스로 갈아서 쓰겠사오니 청컨대 성체(聖體)를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의 마음이 심히 조급해지니 피로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채충순이 초안한 글은 다음과 같다. “옛날부터 국가 대사는 미리 결정하면 민심이 안정되는 법이라. 이제 내가 병석에 누워 있으니 간신들이 기회만 엿보고 있으며 명분을 정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엿보고 있다. 그대는 태조의 적손이니 빨리 길을 떠나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면대하여 종묘사직을 그대에게 맡기면 죽어도 한이 없겠고 만약 내가 더 살게 되면 그대는 동궁에 거처하여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또 이 편지 끝에 다음과 같이 첨가하게 하였다. “길이 험하여 악당이 잠복하였다가 불의의 변을 일으킬 수도 있을 터이니 경계하고 조심하여 오라” 하였다. 당시 함문사인 유행간(庾行簡)은 그를 맞아들이어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왕은 일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채충순에게 당부하기를 “유행간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편지를 황보유의 등에게 주어 신혈사(神穴寺)로 가서 맞아 오게 하였다. 이리하여 왕위에 오르니 이가 현종이다. 현종은 (채)충순을

직중대(直中臺)로 임명하였다가 곧 이부시랑 겸 좌간의대부(吏部侍郎兼左諫議大夫)로 승진시켰다. 왕이 거란을 피하여 남녘 땅으로 갔을 때 채충순은 왕을 호위하였는데, 왕이 광주(廣州)에 체류하니 수종하던 여러 신하들이 하공진(河拱辰) 등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놀라서 흩어져 도망갔다.<sup>47)</sup>

『고려사』 권94, 열전7, 지채문

○ 공민왕이 피난길에 광주를 지나다

지채문(智蔡文)은 봉주(鳳州) 사람이다. … 왕은 이때에 삼군이 패배하고 많은 고을이 함몰되었다 하여 그만 항복문을 보내어 화의를 청하니 거란 임금의 수락하고 드디어 약탈과 납치를

47) 時大良院君 在三角山 神穴寺 忠順入奏 王曰 宜擇文武各一人 率軍校往迎之 忠順與沆 及英起等議 遂舉宣徽判官 皇甫俞義以聞 忠順等又議 奏 軍校多則 行必遲 恐姦黨先置宜 遣十餘人 徑往迎來 王然之曰 予欲親禪 可亟遣不可緩也 若疾瘳 如成宗封朕故事 早定名分則 無窺伺之人矣 朕無子 而繼嗣未定 衆心搖動 是吾過也 宗社大計 無過於此 卿等其各盡心 王遂泣下 忠順亦泣 王命忠順草與大良君書 親自研墨 忠順曰 臣自研以書 請勿勞聖體 王曰 意甚忙 不覺勞也 其書曰 自古國家大事 素定於前則 人心乃安 今予寢疾 姦邪窺覲 以寡人不豫爲之 所名分未定故爾 卿太祖嫡孫 宜速上道 寡人未至 大期得面 付宗社 沒無遺恨 若有餘齡 則 使處東宮 以定羣心 王又令書其尾曰 道路險阻 恐姦人潛伏變起 不虞可戒 慎而來 時閣門舍人 庾行簡 不欲迎立 王慮事泄 戒忠順 勿令行簡知之 以書授俞義等 往迎于神穴寺 遂卽位 是爲顯宗 顯宗以忠順 直中臺 俄遷吏部侍郎兼左諫議大夫 王避契丹南行 忠順扈駕 王次廣州 從行諸臣 聞河拱辰等被執 皆驚懼散走

금하게 되었다. 거란 사람 마보우(馬保佑)를 개성유수로 왕팔(王八)을 부유수로 배치하기 위하여 을름(乙凜)에게 거란 기병 1천 명을 주어 마보우 등의 부임을 호송하게 하고 한편으로 거란의 함문인진사(閤門引進使) 한기(韓杞)에게 돌격 기마대 200명을 대동시켜 서경 북문 밖으로 보내서 외치기를 “지난날에 우리 황제가 유경과 노의 등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글을 주어 보냈는데, 지금까지 어째서 소식이 없는가. 만일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유수(留守)와 관료들은 나와서 나의 지시를 받으라” 하니 탁사정이 한기의 말을 듣고 지채문과 더불어 대책을 논의한 후 그 휘하의 정인(鄭仁) 등에게 명령을 내려 날래고 건장한 기병을 인솔하고 급히 나가 돌격하여 한기를 위시한 적 기병 100여 명을 죽이고 나머지 적들은 모조리 생포하여 한 명의 적병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탁사정은 지채문을 선봉으로 삼고 나가서 을름과 교전을 한 결과는 을름과 마보우가 패하였다. 이리하여 성중의 인심이 다소 안정되었다. ...

이날 밤에 왕이 후(后)·비(妃)와 이부시랑(吏部侍郎) 채충순(蔡忠順) 및 금군(禁軍) 50여 명을 인솔하고 도성을 떠나 적성현(積城縣) 단조역(丹棗驛)에 이르니 병졸 견영(堅英)이 다른 역졸들과 함께 활을 버리어 왕의 행차를 침범하려 하는 것을 지채문이 달려가서 활을 쏘니 적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다시 서남산으로부터 돌연히 나와서 길을 막는 것을 지채문이 또 쏘아 물리쳤다. 왕이 창화현(昌化縣)에 도착했을 때 아전 한 명이 대들

어 말하기를 “국왕은 나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가”라고 묻는 것을 왕이 거짓 못 들은 척하자 그가 노하여 소란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시켜 외치기를 “하공진(河拱辰)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므로 지채문이 “무엇하러 오는가”라고 물으니 “채충순과 김응인(金應仁)을 잡으러 온다”라고 그 아전이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김응인과 시랑 이정충(李正忠), 낭장 국근(國近) 등은 모두 다 도망치고 오직 지채문과 채충순·주저(周佇) 등이 남아서 왕을 호위하였다. 밤중에 적들이 또 습격하여 오니 시종하던 관원들과 환관이며 왕비와 궁인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고 오직 현덕(玄德)·대명(大明) 두 왕후와 시녀 두 사람 승지 양협(良叶)·충필(忠弼) 등만 남아 있었다. 지채문이 임기응변으로 방어하매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새벽이 되어 지채문이 두 왕후를 북문으로 먼저 나가게 하고 자기는 왕의 말고삐를 잡고 지름길로 빠져 도봉사(道峯寺)에 이르니 적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어 채충순이 따라 왔다. 지채문이 왕에게 고하기를 “지난밤의 적들은 하공진의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서 탐지하여 오겠습니다”고 하니 왕은 그가 혹시 도망갈까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지채문이 다시 말하기를 “제가 만일 전하를 저버리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맹세하였으므로 왕이 비로소 승락하였다. 지채문이 그 길로 창화현으로 가다가 길에서 국근(國近)을 만났다. 국근이 말하기를 “나의 의복과 행장은 모두 적들에게 강탈당하였소”하고 하

소연하자 지채문이 “그대가 신하로서 충성치 못했으니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일세”라고 꾸짖었다. 그때 마침 하공진과 유종(柳宗)이 왕을 찾아오는 것을 지채문이 길에서 만나 그들에게 그 동안 여러 곳에서 적들에게 봉변당한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또 그들을 꾸짖었으나 과연 하공진의 소행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 하공진이 도중에서 중군판관(中軍判官) 고영기(高英起)가 패전하고 남으로 도망치는 것을 만나 그와 함께 왔으므로 그때 하공진이 영솔하는 대원이 약 20여 명이 있었다. 지채문이 그 군사를 데리고 창화현을 수색하여 적들이 도적한 말 15필과 안장 열 부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지채문이 하공진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과 같이 가면 왕이 필연코 놀랄 터이니 그대들은 조금 뒤 떨어져 오라”라고 하고 먼저 혼자 돌아왔다. 충필(忠弼)이 절문 앞에서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지 장군이 온다고 전달하였더니 왕이 기뻐서 문밖까지 마중 나왔다. 지채문이 보고하기를 “도중에서 적의 정체를 탐지하니 사실 하공진의 소행이 아니며 또 지금 하공진도 같이 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하공진과 유종을 접견하고 그들을 위로한 후 드디어 하공진을 거란 영문에 파견하여 화의를 청하였다. 이듬해 정월에 왕이 광주(廣州)에 유할 때 두 왕후가 간 곳을 몰라 지채문을 시켜 찾게 하였더니 요탄역(饒呑驛)에서 상봉하여 모시고 돌아오자 왕이 기뻐하며 일부러 사흘 더 유숙하였다. 왕의 일행이 광주를 떠나 고개를 넘어 비뇌역(鼻腦驛)에서 유숙하였다. 지채문이 왕에게 고

하기를 “호위하는 장병들이 처자를 찾겠다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데, 밤중에 혹시 적이 우리들의 틈을 엿볼 수도 있을 터이니 그런 때의 표식으로 호위 장병들의 관에 깃발을 꽂아 식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그대로 실시하였다. 이때 유종이 고하기를 “저의 고향 양성(陽城)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리로 가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드디어 양성으로 갔다. 유종과 김응인 등이 왕의 명령을 위조하여 왕의 말안장을 뜯어서 그 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동틀 무렵에 그 고을 아전들이 모두 도망갔다. 유종과 김응인 등이 또 건의하기를 “두 왕후를 각각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경위하는 장병들은 동부 방면으로 출동시켜 긴장된 사태에 대비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지채문에게 문의한 즉 지채문은 목놓아 울면서 “지금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자기 도리를 잃고 환난을 당하여 이처럼 파천(播遷)하게 되었으니 이때가 바로 인(仁)과 의(義)로써 행동하여 인심을 수습할 때인데, 왕후를 버리고 혼자만 살길을 구하자는 생각을 차마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장군의 말이 옳다” 하고 드디어 길을 떠났다. 사산현(蛇山縣)을 지나는데, 지채문이 문득 기러기 떼가 눈에 내린 것을 보고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가니 기러기 떼가 놀라서 날아가는 것을 지채문이 겨누고 자기의 몸을 제치며 올려 쏘니 활시위 소리와 함께 화살 맞은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본 왕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지채문은 말 등에서 내려 그 기러기

를 집어 왕에게 드리면서 “이런 활 잘 쏘는 신하를 두셨으니 도적이 있어도 무슨 걱정이 있으리까” 하니 왕도 크게 웃으면서 그를 칭찬하였다.<sup>48)</sup>

48) 智蔡文 鳳州人 … 王以三軍敗衄州郡陷沒 上表請朝 契丹主許之 遂禁俘掠 以馬保佑 爲開城留守 王八副之 遣乙凜將騎兵一千 送保佑等 又遣其閤門引進使韓杞 以突騎二百 至西京北門 呼曰 皇帝昨遣劉經 盧顥等 齎詔曉諭 何至今無消息也 若不拒命 留守官僚 來聽我指諭 思政聞杞語 與蔡文謀 使麾下鄭仁等 將驍騎突出擊 斬杞等百餘人 餘悉擒之 無一人還者 思政以蔡文 爲先鋒 出與乙凜戰 乙凜保佑敗走 於是 城中人心稍安 … 是夜 王與后妃及吏部侍郎 蔡忠順等 率禁軍五十餘人 出都行 至積城縣丹棗驛 武卒堅英與驛人 張弓矢 將犯行宮 蔡文馳射之 賊徒奔潰 復自西南山 突出遮道 蔡文又射却之 王至昌化縣 有吏告曰 王識吾名面乎 王陽不聞 吏怒將構亂 使人呼曰 河拱辰將兵來矣 蔡文曰 何故來耶 吏曰 欲擒蔡忠順 金應仁等 耳應仁及侍郎李正忠 郎將國近等 皆遁 獨蔡文 忠順 周侂等留侍 夜賊又至 侍從臣僚 宦官 嬪御 皆亡匿 唯玄德 大明二王后 侍女二人 承旨良叶 忠弼等侍 蔡文隨機應變 賊不敢近 及曉蔡文請二后先自北門出 手控御馬 間行入道峯寺 賊不之知 忠順繼至 蔡文奏曰 去夜賊 疑非拱辰 臣請往跡之 王恐其亡 不許 蔡文曰 臣若背君 言與事違 天必誅之 王乃許 卽往昌化縣 道逢國近 國近曰 吾衣裝盡爲賊奪 蔡文曰 汝爲臣不忠 獲保首領足矣 適拱辰 柳宗赴行在 蔡文遇 諸道具言賊變 且詰之 果非拱辰所爲也 拱辰道見 中軍判官高英起 敗軍南走 與俱來時 拱辰所領卒二十餘人 蔡文遂以其卒 搜昌化縣 得賊所盜馬十五匹 鞍十部 將還 蔡文謂拱辰等曰 吾與諸君偕進 王必驚動 請諸君少後 遂獨行 忠弼在寺門望之 入奏智將軍來矣 王喜出門迎之 蔡文奏曰 臣已得賊 實非拱辰所爲 且偕拱辰來 王引見拱辰宗勞之 遂遣拱辰 往契丹營請和 明年正月 王次廣州 失二王后所之 令蔡文往尋之 至饒吞驛乃得奉還 王喜爲留三日 王發廣州 踰嶺宿鼻腦驛 蔡文奏 扈從將士 皆托尋妻子四散 昏夜恐有賊竊發 請爲幟插將士冠以辨 從之 宗曰 臣鄉陽城去此不遠 請幸之 王悅遂幸陽城 夜宗應仁等 矯旨毀御鞍 以賜縣人 遲明縣吏皆遁 宗應仁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 윤관이 여진 추장을 광주에 잡아가두다

윤관(尹瓘)의 자는 동현(同玄)이니 파평현(坡平縣) 사람이다. ... (숙종) 7년에 여진이 정주(定州)의 관문밖에 와서 머물러 있었으므로 혹시나 우리 나라를 침해하려는 것이나 아닐까 의심하여 그들의 추장 허정(許貞)과 나불(羅弗) 등을 광주(廣州)에 잡아가두고 고문한즉 과연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는 것이 판명되어 그만 그들을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 이때부터 비로소 별무반(別武班)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바 문(文)·무(武)의 산관(散官) 서리(胥吏)들로부터 상인·사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주·부·군·현에서 말을 기르는 사람들 전부를 신기군(神騎軍)에 편입하고 말이 없는 자는 신보군(神步軍)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조탕(跳蕩)·갱궁(梗弓)·정노(精弩)·발화(發火) 등의 병종을 편대하였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과거 글공부를 하지 않은 청년은 모두 신보군에 배속시키고 무관과 각진(各鎭)·부(府)에 속한 군인들은 4월 계속하여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또 중을 선발하여 항마군(降魔軍)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군사 훈련과 군량 축

---

等又請 遣二王后各歸其鄉 遣扈從將卒 往東邊備急 王以問蔡文 蔡文大哭曰 今君臣失道 橫罹殃禍播遷如此 正當動由仁義 以收人心 棄王后以求生 其可忍乎 王曰 將軍言是也 遂行 過蛇山縣 蔡文見羣鴈在田 欲慰悅王心 躍馬而前 鴈驚飛翻 身仰射 應弦而墮 王大悅 蔡文下馬 取鴈進 曰 有臣如此 何憂盜賊 王大笑慰獎

적을 하여 재차 진공할 것을 계획하였다. … 그 후 왕이 윤관에  
 게 추충 좌리 평음 척지 진국공신(推忠佐理平戎拓地鎮國功臣) 칭  
 호와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  
 軍國重事) 관직을 주고 오연총에게는 협모 동덕 치원공신(協謀同  
 德致遠功臣) 칭호와 상서좌복야 참지정사(尙書左僕射參知政事) 벼  
 슬을 주었다. 그리고 내시랑중 한교여(韓傲如)를 보내어 조서(詔  
 書)와 고신(告身)이며 자색 수놓은 안장과 구마(廐馬) 2필을 옹주  
 까지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개선할 때에는 왕이  
 환영하는 군악과 의장병을 갖추어 영접하게 하고 대방후(帶方侯)  
 왕보(王輔)와 제안후(齊安侯) 왕서(王僖)를 동교에 파견하여 위로  
 연을 배설해 주었다. … 그 이듬해에 여진이 또 길주를 포위하니  
 오연총이 그들과 싸웠으나 대패하였으므로 왕이 윤관을 파견하  
 여 구원하기로 하고 측근자를 금교역(金郊驛)까지 보내서 전송하  
 게 하였다. 49)

49) 尹瓘 字同玄 坡平縣人 … 七年 女眞來屯 定州關外 疑其圖我 誘執酋  
 長許貞及羅弗等 囚廣州拷問 果謀我也 遂留不遣 … 於是 建議始立 別  
 武班 自文武 散官吏胥 至于商賈僕隸及 州府郡縣 凡有馬者 爲神騎 無  
 馬者 爲神步 跳蕩 梗弓 精弩發火等軍 年二十以上男子 非舉子 皆屬神  
 步 西班與諸鎮府軍人 四時訓練 又選僧徒 爲降魔軍 遂鍊兵畜穀 以圖再  
 舉進 … 王拜瓘 推忠佐理平戎拓地鎮國功臣 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 知  
 軍國重事 延寵 協謀同德致遠功臣 尙書左僕射 叅知政事 遣內侍郎中 韓  
 傲如 齎詔書告身及 紫繡鞍具 廐馬二匹 至雄州 分賜之 凱還王命具鼓吹  
 軍衛 以迎之 遣帶方侯備 齊安侯僖勞宴於東郊 … 又明年 女眞圍吉州 延  
 寵與戰大敗 王又遣瓘 救之命 近臣餞于金郊驛

『고려사』 권96, 열전9, 윤관 부 윤언이

○ 윤언이가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이전에 윤관(尹瓘)이 왕의 명령을 받고 대각국사(大覺國師)의 비문을 지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못했으므로 그의 문도들이 왕에게 밀고하였다. 그래서 왕이 김부식(金富軾)을 시켜 그것을 다시 짓게 했는데, 당시 윤관은 상부(相府)에 있었으니 예의상 김부식이 일단 사양할 일이었으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짓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윤언이(尹彦頤)가 내심으로 분한을 품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국자감에 가서 김부식에게 주역을 강의시키고 윤언이에게는 질문을 하게 하였다. 윤언이는 주역에 매우 정통하던 터이라 이모저모로 따지니 김부식이 대답하기 곤란하여 이마에 진땀을 흘린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윤언이가 김부식의 부하로 임명되니 김부식이 왕에게 고하기를 “윤언이는 정지상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었으니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윤언이는 양주방어(梁州防禦)로 강직되었다가 후에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임명되었으나 윤언이가 벼슬을 사퇴하였다. … 벼슬에서 은퇴한 후 파평(坡平)에 가서 거주하면서 호를 금강거사(金剛居士)라고 자칭하였다. 일찍이 중 관승(貫乘)과 불교를 연구하는 벗이 되었다. 관승이 초막을 자그마하게 만들었는데, 초막의 크기가 겨우 한 사람이 앉을 정도였으며 두 사람 중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여기서 좌선(坐禪)하여 죽자고 약속하

였다. 그 후 하루는 윤언이가 소를 타고 관승을 찾아가서 이 세상 떠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돌아왔더니 관승이 사람을 초막에 보냈다. 윤언이가 웃으며 말하기를 “스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구나”라고 하며 붓을 들어 암자 벽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봄 지나 다시 가을되니 피는 꽃 지는 잎이로세. 동에서 서로 가고 또 가는데, 나의 본성이나 좋이 기르리로다. 생사도중에 선 오늘 이내몸 돌이켜보니 아 모든 것이 만리 장공의 한 조각 한가한 구름이었네.” 글을 쓰고 나서 그 초막에 앉아서 죽었다.<sup>50)</sup>

『고려사』 권97, 열전10, 김경용

○ 광주판관 김경용

함문지후(閤門祗候)로 있다가 광주판관(廣州判官)으로 나갔는데, 정사가 가혹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한번은 겨울철에 술에 대취하여 말을 달리며 한강을

50) 先是 瓘奉詔 撰大覺國師碑 不工 其門徒密白 王令富軾改撰 時瓘在相府 富軾不讓 遂撰 彦頤心曠之 一日王幸國子監 命富軾講易 令彦頤問 難 彦頤頗精於易 辨問縱橫富軾難於應荅 汗流被面 及彦頤爲幕下 富軾奏 彦頤與鄭知常 深相結納 罪不可赦 於是 貶梁州防禦 後爲廣州牧使 謝上表 … 請老退居坡平 自號金剛居士 嘗與僧貫乘 爲空門友 貫乘作一蒲菴 止容一坐 約先逝者 坐此而化 一日彦頤 跨牛造貫乘 告別徑還 貫乘遣人送蒲菴 彦頤笑曰 師不負約 遂取筆書于壁曰 春復秋兮 花開葉落 東復西兮 善養眞君 今日途中 反觀此身 長空萬里 一片閑雲 書畢坐其菴而逝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건너가는데, 말굽이 닿는 곳마다 얼음에 구멍이 뚫리어 물이 솟아오르곤 했으나 강물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듣는 사람마다 이상한 일로 여기었다.<sup>51)</sup>

『고려사』 권97, 열전10, 김약온

○ 김약온이 광주통판을 역임하다

김약온(金若溫)의 자는 유승(柔勝)이요, 처음 이름은 의문(義文)이며 광양현(光陽縣) 사람이요, 시중 김양감(良鑑)의 아들이다. 그는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이 상의봉어(尙衣奉御)로부터 시작하여 광주통판(廣州通判)을 지내고 내직으로 들어가서 중서사인으로 되었다.<sup>52)</sup>

『고려사』 권99, 열전12, 최유청

○ 최유청이 광주목사로 강직되다

당시 낭중 정서(鄭敍)가 대령후(大寧侯)와의 은밀한 사건에 관련되어 6품관 이하의 지방관으로 나갔는데, 최유청(崔惟淸)은 정서의 매부이므로 정서가 대령후를 초대할 때에 정서에게 그릇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간관(諫官)들이 말하기를 “최유

51) 以閣門祗候 出爲廣州判官 爲政不苛 人畏敬之 嘗冬月 大醉乘駿馬走過漢江 馬蹄所觸 冰破水湧 而不溺 聞者異之

52) 金若溫 字柔勝 初名義文 光陽縣人 侍中良鑑之子 力學登第 自尙衣奉御 通判廣州 入拜中書舍人

청이 대신의 체면을 잃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남경유수사(南京留守使)로 강직되었으며 연이어 충주(忠州)와 광주(廣州)의 목사(牧使)로 강직되었다. 그가 비록 지방으로 강직되어 오랜 기간을 지냈으나 태도가 태연하였으므로 임금도 그가 충직하고 다른 뜻이 없는 것을 깨닫고 다시 평장사로 임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꺼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환되어 수사공좌복야로 있다가 그 후에 연로하여 치사하였다.<sup>53)</sup>

『고려사』 권99. 열전12. 염신약

○ 염신약이 광주장서기를 역임하다

염신약(廉信若)의 자는 공가(公可)이며 봉성군(峰城郡) 사람이다. 인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광주장서기(廣州掌書記)로 도입하였는데, 바른 도리로써 공직에 복무하였다. 부친의 상사를 당하고 3년 동안 여막에서 묘를 지켰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유사에게 지시하여 마을에 정문을 세워 주었으며 첨사부록사로 선임하였다. … 염신약의 토지가 봉성(峰城)에 있었는데, 정중부가 그 토지를 강탈하였다가 얼마 후에 돌려주었다. 염신약이 종을 보내어 수확을 하게 하였더니 정중부의 집 종이 도중에서 노리고 있다가 강탈하려 하므로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 정중부가 염신약의

53) 時郎中鄭敘 坐陰結大寧侯流外 惟清敘妹壻也 敘宴大寧 惟清假器皿  
臺諫劾以失大臣體 貶南京留守使 連貶忠廣二州牧使 雖久淹外寄處之怡  
然 王悟其忠直無他欲 復拜平章事 有沮之者 乃以守司空左僕射 致仕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중을 체포하여 가구소(街衢所)에 투옥 살해하고 중방(重房)을 시켜 염신약을 탄핵하게 하니 왕도 마지못해 그를 파면시켰다.<sup>54)</sup>

『고려사』 권100, 열전13, 경대승

○ 이돈실이 광주로 귀양가다

… 11년에 전 대정 한신충·채인정·박돈순 등이 반란을 음모하는 것을 영사동정 대공기(大公器)가 알고 경대승에게 밀고하였다. 경대승이 왕에게 고하여 붙잡아 국문하니 석화와 별장 박화, 주부 이돈실(李敦實)도 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이 발각되었으므로 한신충·채인정·박돈순 등은 섬으로 귀양보내고 석화는 남해현령(南海縣令)으로, 박화는 하산도 구당사(河山島勾當使)로 강직시켰으며 이돈실은 광주(廣州)로 귀양보냈다.<sup>55)</sup>

『고려사』 권105, 열전18, 홍자번

○ 홍자번이 광주통관을 역임하다

홍자번(洪子藩)은 재빠르고 활달한 기상을 가졌으며 학문을

---

54) 廉信若 字公可 峯城郡人 仁宗時 登第 調廣州掌書記 履正奉公 丁父憂 廬墓三年 命有司旌閭 選充詹事府錄事 … 信若有田在峯城 鄭仲夫奪之 旣而還之 信若遣奴收獲 仲夫家奴 邀奪與之鬪 仲夫捕信若奴 付街衢獄殺之 令重房劾之 王不得已 罷信若

55) … 十一年 前隊正 韓信忠 蔡仁靖 朴敦純等 謀作亂 令史同正 大公器知之 以告大升 大升白 王捕鞠之 辭連石和及 別將朴華 注簿李敦實 乃流信忠 仁靖 郭純等于島 貶和南海縣令 華河山島勾當使 流敦實于廣州

좋아하여 재상 유경이 알게 되었는데, 유경이 일찍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이 스물이 못 되어서 벌써 당후관(堂後官: 7품관)이 되었다. 왜 과거에 응시하여 여러 세대를 두고 과거에 급제할 영예의 길을 열어 주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홍자번이 그 말을 듣고 과거에 응시했으나 합격되지 못하고 나가서 남경유수판관(南京留守判官)이 되었다가 얼마 후에 광주통판(廣州通判)으로 전임되었는데, 그가 떠날 때에는 반드시 그 지방 사람들의 사모를 받았다. 또 충청·경상·전라 삼도의 안렴사로 있었고 서울에 들어와서는 호부시랑(戶部侍郎)이 되었다.<sup>56)</sup>

『고려사』 권108, 열전21, 이혼

○ 이혼이 광주참군을 역임하다

이혼(李混)의 자는 거화(去華) 또는 태초(太初)인데, 전의현(全義縣) 사람이다. 원종 때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광주참군(廣州參軍)이 되었다가 내직으로 들어가 국학학정(國學學正)으로 되었다.<sup>57)</sup>

---

56) 子藩敏達嗜學 爲宰相柳璈所知 璈嘗謂曰 君年未二十 已爲堂後 盍應學 以濟世科之美 子藩遂應舉不中 出爲南京留守判官 尋改廣州通判 去必見思 又按忠清慶尙全羅三道 入爲戶部侍郎 …

57) 李混 字去華 一字太初 全義縣人 元宗朝 年十七登第 調廣州參軍 入補國學學正

『고려사』 권109, 열전22, 이진

○ 이진이 광주사록을 역임하다

이진(李璘)은 과거에 급제하고 광주사록(廣州司錄)으로 임명되었다가 직한림원(直翰林院)으로 선발되었다. 충렬왕이 시(詩)로써 친히 문관 신하들을 시험하고 그 중에서 아홉 사람을 선발하였는데, 이진이 둘째 자리를 차지하였다.<sup>58)</sup>

『고려사』 권112, 열전25, 조운홀

○ 조운홀이 광주에 거주하다

조운홀(趙云佐)은 한양부 풍양현(豐壤縣) 사람이다. 공민왕 6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로 임명되고 여러 번 옮겨 각문 사인으로 되었다가 10년에 형부원의랑으로 임명되었다. 홍건적의 난에 왕이 남으로 가는데, 따라갔으므로 그를 2등공에 등록했다. 그 이듬해에 국자직장으로 옮겼다. 그는 전라·서해·양광 3도의 안렴사를 역임하였다. ... (신우) 6년에 사직하고 광주 고원강촌에서 살았다. 그는 판교(板橋)·사평(沙平) 양원을 다시 수선하여 원주(院主)라 자칭하고 허술한 옷에 쥘신을 신고 일꾼들과 함께 일하였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가 큰 벼슬을 지냈던 사람인 줄 몰랐다. ... 본조에 들어와 강릉대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 병으로 사직하고 광주(廣州) 별장으로

---

58) 登第調廣州司錄 被選直翰林院 忠烈以詩賦親試文臣 得九人 璘居第二

돌아왔다. 그는 또 검교정당문학으로 임명되었다. 검교는 전례에 의하여 녹봉을 받았는데, 조운홀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조운홀은 그 사람됨이 원래 소박하고 세세한 일에 구속되지 않는 걸출한 인물로서 자기의 뜻대로 곳곳이 행동하고 시세를 따라 진퇴하지 않았다. 죽을 무렵에 자기 묘지(墓誌)를 쓰기를 “조운홀은 본래 풍양(豐壤) 사람이며 고려 태조의 신하 평장사 조맹(趙孟)의 30대의 손자이다. 공민왕 때 흥안군 이인복(李仁復)이 시관일 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서울과 지방 관리를 역임하여 5주의 수령으로 있었으며 4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비록 커다란 명성과 업적은 없다 하더라도 과오는 없었다. 나이 73세에 병으로 광주 고원성(古垣城)에서 죽었다. 자식이 없었다. 해와 달을 구슬로 삼고 청풍명월을 제물(祭品)로 삼았다. 옛 양주 아차산(峩嵯山) 남쪽 마가야(摩訶耶)에 안장하였다.<sup>59)</sup>

59) 趙云伋漢陽府豐壤縣人 恭愍六年登第 調安東書記 累轉閣門舍人 十年授刑部員外郎 紅賊之亂從王南幸 錄功爲二等 明年遷國子直講 歷全羅西海楊廣三道按廉使 … 六年乞退居廣州古垣江村 重營板橋沙平兩院 自稱院主 敝衣草屨與役徒同 其勞過者 不知爲達官也 … 入本朝 授江陵大都護府使 尋以病辭歸于廣州別墅 又拜檢校政堂文學 檢校例受祿 云伋辭不受 爲人立志奇古跌宕瑰偉徑情直行不肯隨時俯仰 將終自述墓誌曰 趙云伋本豐壤人 高麗太祖臣平章事趙孟三十代孫 恭愍代興安君李仁復門下登科 歷仕中外佩印五州觀風四道 雖大無聲績亦無塵陋 年七十三病終廣州古垣城 無後 以日月爲珠璣 以清風明月爲奠 而葬于古楊州峩嵯山南摩訶耶

『고려사』 권114, 열전27, 나세

○ 나세를 광주옥에 가두다

나세(羅世)는 원래 원나라 사람이다. 공민왕 때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홍건적을 격퇴하여 그 공로가 2등으로 등록되었다. 후에 여러 관직을 거쳐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다. 교동(喬桐) 만호로 되었을 때에 왜적이 침입하자 그는 도망쳐 돌아왔으므로 왕이 노하여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 이어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었다. 그때 왜적이 강화에 침입하였다. 나세가 상서하기를 “저는 문장을 잘해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사대부의 집안에 나서 호강하는 축에 들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함으로써 왕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 하는 것이니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에 들어가서 왜적을 격퇴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신우가 그 정신을 장하게 여기어 궁마(宮馬) 2필을 주고 또 그 휘하들에게 10필을 나눠주었다. 나세는 조사민(趙思敏)·이원계(李元桂)·강영(康永)·박수년(朴壽年) 등과 함께 적을 격퇴하였다. 왜적의 병선 50척이 다시 강화에 침입하여 부사(府使) 김인귀(金仁貴)를 죽이고 1천여 명을 포로한 후 또 수원(水原)을 침범하였다. 나세는 원수 양백연(楊伯淵)과 함께 병선 50척을 거느리고 그를 격퇴하였다. 나세가 강화를 지날 때 어떤 부인 하나가 냇가에 숨어서 외딴 집을 가리켜 말하기를 “적의 첩자가 저가로 들어

갔다"고 하므로 나세가 빨리 달려가 그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적 29명을 죽였다. 왜선 45척이 신주(信州)·옹진(瓮津)·문화(文化) 등 현을 침범하였으므로 나세는 원수 조인벽(趙仁璧)·심덕부(沈德符) 등과 함께 공격하여 수 명을 죽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의 세력이 대단히 강한 데다가 아군은 피로하여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응원군을 보내어 원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왜적이 또 신주·문화·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범하였으므로 나세는 심덕부·양백익(梁伯益)·박보로(朴普老) 등과 함께 싸웠으나 패전하였다. 나세를 연안군으로 봉하고海道원수로 임명하였다. 왜적이 연안부(延安府)를 침략하였다. 나세는 김해군 김유와 함께 병선 50여 척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공격하였다. ... 왜적이 축산도(丑山島)에 침입하였을 때 신우가 나세에게 가서 칠 것을 명령하였는데, 나세가 재빨리 출동하지 않았으므로 신우가 노하여 광주(廣州獄)에 가두었다가 이어 석방하였다.<sup>60)</sup>

60) 羅世 本元人也 恭愍朝與諸將 擊走紅賊 錄功爲二等 累轉版圖判書 爲喬桐萬戶 倭入寇 世逃還 王怒命囚巡衛府 ... 尋判開城府事 時倭寇江華 世上書曰 臣非有文章 可以華國 又非衣冠之後 得處肉食之列 常思效死以報 萬一 請提兵入江華擊走倭賊 禍壯其志賜內廐馬二匹 又賜十匹 分與摩下 世與思敏李元桂康永朴壽年等擊却之 倭五十艘復寇江華 殺府使金仁貴 虜千餘人 又寇水原世與元帥楊伯淵 率戰艦五十艘擊走之 世過江華境 有一婦匿水滸 指示一家曰 賊謀入彼 世疾趨圍 而火之殺賊二十九人 倭四十五艘寇信州瓮津文化等縣 世與元帥趙仁璧沈德符等 擊之斬數級 不克而退 報于朝曰 賊勢甚強 我師疲弱 難以制勝 請遣軍助之 倭又

『고려사』 권114, 열전27, 최운해

○ 최운해가 광주 등처 절제사 겸 판광주목사가 되다

... 이어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임명되었으며 충근 좌명공신(忠勤佐命功臣) 칭호를 받았다. 또 양광도·광주등처 절제사 겸 판광주목사로 되어 왜적을 신창(新昌)에서 격퇴하였다. 최운해의 처권씨(權氏)는 성질이 질투가 심하고 포악하였다. 광주(廣州)에 있을 때 권씨는 투기로 운해의 얼굴에 상처를 주고 그 옷을 찢었으며 훌륭한 활을 꺾어 버렸고 검을 빼어 말을 찌르고 개를 쳐죽였다. 그리고 최운해(崔雲海)를 치려 하자 운해는 도망하여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아내를 버렸으나 아직 이혼하기도 전에 권씨는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에게 출가하였으므로 문하부(門下府)에서 헌사(憲司)에 통지하여 그를 신문하게 하였다.<sup>61)</sup>

『고려사』 권122, 열전35, 환자 백선연

○ 광주서기 김류가 백성의 자산을 토색하다

백선연(白善淵)은 본래 남경(南京) 관노(官奴)였다. 어느 날 의

---

寇信州文化安岳鳳州 世與德符梁伯益朴普老擊之敗績 封延安君爲海道元帥 倭寇延安府 世與金海君金庚以戰艦五十餘艘往擊之 ... 倭寇丑山島 禍命世往擊之 世不卽行 禍怒繫廣州獄 尋釋之

61) 尋拜密直副使 賜忠勤佐命功臣號 又爲楊廣道廣州等處節制使兼判廣州牧事 擊倭于新昌走之 雲海妻權氏性妬悍 在廣州妬傷雲海 面裂其衣折良弓 拔劍刺馬擊犬斃 又追雲海欲擊之 雲海走免 卽去之然 猶未絕嫁 永興君環 門下府牒憲司鞠之

중이 남경에 갔을 때 보고 마음에 들어 데려다가 양자(養子)라고 불렀다. … 또 광주서기(廣州書記) 김류(金鏐)는 백성의 재산을 토색하여 진귀한 물건을 사들여 환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으므로 백선연과 왕숙공(王肅恭)이 추천하여 내시에 소속시켰다. 또 예성강(禮成江) 근방에 사는 자가 백선연·왕숙공·영의(榮儀)에게 뇌물을 주고 예성을 현(縣)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던바 백선연 등이 왕에게 예성강으로 놀이 나가기를 권하였다. 한편으로 그 예성강 사람은 백성들에게서 은 300여 근을 거두어 기이하고 음란한 기교(技巧)를 연기하게 했다. 왕이 뱃놀이를 구경하려고 내시 박희준(朴懷俊) 등을 시켜 배 50여 척에다가 모두 색이 고운 돛을 달고 소리하는 기생들과 비단 휘장과 고기잡이 도구를 싣게 하였다. 왕 앞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불을 머금고 토하는 귀신놀이(鬼戲)를 하면서 실수하여 배 1척을 태워버렸다. 그래도 왕은 흥이 나서 크게 웃었다. …62)

『고려사』 권126, 열전39, 간신2, 왕안덕

○ 광주절제사 최운해가 왜적을 추격하다

… 찬성사(贊成事)가 되었을 때에 왜적이 또 고비인(古庇仁)

62) 白善淵本南京官奴 毅宗嘗幸南京 見而悅之 號爲養子 … 廣州書記金鏐 歛民財買珍玩器 皿重賂宦者 於是善淵王肅恭薦屬內侍 禮成江人賂善淵肅恭榮儀 請以禮成爲縣 善淵等勸王遊幸於江 江人歛民白金三百餘斤 爲奇技淫巧 王欲觀水戲 命內侍朴懷俊等 以五十餘舟 皆掛彩帆載 樂妓綵棚 及漁獵之具 張戲於前 有一人作鬼戲 舍火吐之誤 焚一船 王大噓 …

지경에 주둔하였으므로 왕안덕은 광주절제사(廣州節制使) 최운해(崔雲海) 양광도 도절제사 이승원(李承源)과 함께 적을 90리를 추격하여 도둔곶(都屯串)에서 교전하였으나 대패하였다. 이때 왕안덕은 말에서 떨어지고 겨우 죽음을 면했으나 사졸(士卒)은 죽은 자가 40여 명에 달했다. … 후에 대간이 자주 상소하여 다시 변안렬 일당을 논죄하였으므로 왕안덕을 풍주(豐州)로 홍우수를 인주(仁州)로 원상을 광주(光州)로 각각 귀양보내고 또 이을진과 이경도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으나 그 다음 달에 그들을 소환하였다.<sup>63)</sup>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1, 왕규

○ 광주인 왕규를 추방하다

왕규(王規)는 광주(廣州) 사람으로 태조를 섬기어 대광(大匡) 벼슬을 했다. 태조가 왕규의 두 딸을 후궁에 받아들여서 한 명을 열 다섯째 왕비로 다른 한 명을 열 여섯째 왕비로 삼았는데, 그 중 열 여섯째 왕비가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광주원군(廣州院君)이다. … 이에 앞서 혜종의 병이 위독하였을 때 정종이 왕규가 반역할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비밀리에 서경(西京)의 대광(大

63) … 拜贊成事 倭賊屯古庇仁境 安德與廣州節制使崔雲海 楊廣道都節制使李承源 追至九十里與 戰于都屯串大敗 安德墜馬 僅免士卒死者四十餘人 … 臺諫交章 復論安烈之黨 流安德于豐州 洪壽于仁州 元庠于光州 又流李乙珍 李庚道于遠地 踰月召還

匡) 식렴(式廉)과 사변에 대응할 계책을 상의해 두었다. 그리하여 왕규가 반란을 꾸미려고 하였을 때 식렴이 군사를 인솔하고 서울로 와서 숙위(宿衛)하여 왕규가 감히 반역 행동을 못하게 하였다. 이에 왕규를 갑곶(甲串)으로 추방하고 곧 사람을 파견하여 목을 베었으며 그의 도당 300여 명도 죽여버렸다.<sup>64)</sup>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한순

○ 진위현 사람 이장대가 광주로 쳐들어간다

진위현(振威縣) 사람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이 거란(契丹)의 난리 틈을 타서 동향 사람인 별장동정(別將同正) 김례(金禮)와 함께 반역을 모의하고 동류를 모집해 데리고 현령(縣令)의 병부(兵符)와 관인(官印)을 빼앗아 국가 창고를 열고 미곡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했으므로 농촌의 굶주리던 농민들이 다수 모여 와서 가담했다. 이웃 고을들에 글을 써서 돌렸는데, 자칭 정국병마사(靖國兵馬使)라고 하고 의병(義兵)이라 하였다. 종덕(宗德)·하양(河陽)의 두 창고를 열어 놓고 그 양곡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장차 광주(廣州)로 쳐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왕은 낭장 권득재

64) 王規廣州人 事太祖爲大匡 太祖納規二女 一爲第十五妃 一爲第十六妃 十六妃生一子曰廣州院君 … 初惠宗疾篤 定宗知規有異志 密與西京大匡 式廉 謀應變及 規將作亂 式廉引兵入衛 規不敢動 乃竄于甲串 遣人追斬 之誅 其黨三百餘人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權得材), 산원 김광계(金光啓) 등을 파견해서 안찰사 최박(崔博)과 함께 광주(廣州)·수주(水州) 두 주의 군사를 동원해서 토벌하게 했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충청도와 양주도의 군사를 더 징발해서 공격하여 이당필과 김례를 생포하고 적의 무리를 파멸시켰다. 이장대는 패전하고 상주(尙州)로 쫓겨갔다가 붙잡혔다. 안찰사가 목에다 질곡(楛楛)을 가하여 서울로 압송하여 모두 다 사형에 처했다.<sup>65)</sup>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6, 신돈

○ 광주 천왕사의 사리를 왕륜사로 옮기다.

신돈(辛旽)이 재추(宰樞)들과 함께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의 사리(舍利)를 왕륜사(王輪寺)로 맞아왔을 때 왕이 백관을 영솔하고 구경갔다. 백관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뜰에 서 있었으나 신돈은 반비의(半臂衣)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왕과 자리를 나란히 놓고 앉아서 있다가 소매에서 연화문(緣化文)을 꺼내서 들고 선 채로 왕에게 주면서 서명하라고 하니 왕은 이것을 받아 들고 더욱 공손하게 서명하였다. 며칠 후에 신돈이 승도(僧徒)를

65) 又有振威縣人 令同正李將大 直長同正李唐必者 乘契丹之亂 與同縣人 別將同正金禮 謀不軌嘯聚徒衆 劫奪縣令符印 發倉賑貸村落飢民多附之 移牒旁郡 自稱靖國兵馬使號義兵 至宗德河陽二倉發 粟恣人所取 將寇廣州 王遣郎將權得才 散員金光啓等 與按察使崔博 發廣水二州 兵討之不克 更徵忠清楊州道兵 攻之獲唐必禮 賊徒潰散 將大奔尙州 被擒按察使 械送于京 皆伏誅

데리고 사리를 돌려보내는데, 찬성 이인임(李仁任)은 도보로 신돈을 따라서 천수사까지 가서 배송하였다. 그 후 양부에서 정릉(正陵)에 제사하는데, 신돈은 배례치 않고 공주의 신좌(神座)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올렸으며 또 왕이 각처의 왕릉에 배알할 때 백관들은 모두 다 왕을 따라 배례하였는데, 신돈은 홀로 뺏뺏이 서서 배례치 않았다. ... 66)

---

66) 吨與宰樞 迎廣州天王寺舍利于王輪寺 王率百官往觀 百官冠帶立庭 吨著半臂 手圓扇竝御床坐 袖綠化文立授王 令押王受之愈謹居 數日吨率僧徒 還舍利 贊成李仁任從吨步 至天壽寺送之 後兩府祭正陵 吨不拜坐對公主神座侑食 王謁諸陵 百官皆隨王拜 吨獨立不拜 ...

여 백

## 『高麗史節要』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6월 병진

○ 왕건이 광주 등을 치다

태조가 포정전(布政殿)에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라 고쳤다. 일찍이 세조(世祖)가 송악(松嶽)의 남쪽에 집을 지었는데, 중 도선(道詵)이 문 밖에 와 쉬면서 탄식하기를 “이 땅에 마땅히 성인(聖人)이 날 것이다” 하였다. 세조가 이 말을 듣고 신을 거꾸로 신은 채 따라나가 맞이하여 그와 함께 송악산에 올랐다. 도선이 굽어살피고 우러러보더니 한 통의 글을 세조에게 주면서 “공이 명년에는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니 자라거든 이것을 주십시오” 하였다. 이 글은 비밀히 간직되어 세상에서 알지 못하였다. 태조의 나이 17세 때에 도선이 다시 와서 보기를 청하고서 “당신은 백륙(百六)의 운수를 만났으니 말세의 백성들이 공이 구제해 주기를 기다리오” 하고 군사를 쓰고 진(陣)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지리(地利)·천시(天時)의 법과 산천에 제사지내는 데 관한 감통(感通)

과 보우(保佑)의 이치를 말하여 주었다. 이때는 신라의 정치가 문란하여 못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던 때로 견훤(甄萱)은 반역하여 남쪽 고을을 점거하여 후백제(後百濟)라 일컫고 궁예(弓裔)는 고구려의 옛 땅을 점거하여 철원(鐵圓)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태봉(泰封)이라 하였다. 세조는 송악군(松嶽郡)의 사찬(沙粲)이었는데, 그 고을을 거느리고 궁예에게 귀부하니 궁예가 기뻐하며 즉시 그를 금성태수(金城太守)로 삼았다. 세조가 궁예를 달래며 아뢰기를 “대왕께서 만약 조선(朝鮮)·속신(肅愼)·변한(下韓) 땅의 왕이 되고자 하시면 먼저 송악군에 성을 쌓고 나의 맏아들들 그 성주(城主)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궁예는 그 말에 따라 태조로 하여금 발어참성(勃禦槩城)을 쌓게 하고 이어 성주로 삼으니 이때 태조의 나이 20세였다. 그 후에 광주(廣州)·충주(忠州)·당성(唐城: 京畿 南陽)·청주(靑州)·괴양(槐壤) 등의 고을을 쳐서 이를 평정하니 그 공으로써 아찬(阿粲)을 임명받았다.<sup>1)</sup>

1) 太祖卽位于布政殿 國號高麗 改元天授 初世祖築室松嶽之南 僧道誥來 憩門外樹下嘆曰 此地當出聖人 世祖聞之倒屣出迎 相與登松嶽 道誥俯察 仰觀 就爲書一封授 世祖曰 公明年必得貴子旣長可以與之 書秘世莫知也 太祖年十七 道誥復至請見曰 足下值百六之會三季蒼生 待公弘濟 因告以 出師 置陣地利 天時之法 望秩山川感通 保佑之理 時新羅政衰 羣賊競起 甄萱叛據南州 稱後百濟 弓裔據有高句麗之地 都鐵圓國號泰封 世祖爲松 嶽郡沙粲 以郡歸于裔 裔喜卽以爲金城太守 世祖因說裔曰 大王若欲王朝 鮮肅愼下韓之地 莫如先城松嶽 以吾長子爲其主 裔從之使 太祖築勃禦槩 城 仍爲城主 時太祖年二十 後伐廣州忠州唐城靑州槐壤等郡縣平之 以功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년 정월 을해

○ 현종이 광주에 머무르다

거란주가 서울에 들어와서 태묘(大廟)와 궁궐과 민가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렸다. 이날 현종(顯宗)은 광주(廣州)에 머물렀는데, 두 왕후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채문을 시켜 가서 찾게 하였더니 요탄역(饒吞驛)에 이르러 모시고 돌아왔다. 왕이 기뻐하여(왕후를) 위하여 3일 동안 머물렀다.<sup>2)</sup>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년 정월 무인

○ 현종이 광주를 출발하여 비뇌역에 이르다

왕이 광주(廣州)를 출발하여 비뇌역(鼻腦驛)에 이르렀다. 채문이 아뢰기를 “호종하는 장수와 군사가 모두 처자를 찾는다 칭탁하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어두운 밤에 간적(姦賊)이 몰래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청컨대 표지(標識)를 만들어 장수와 군사들의 관(冠)에 나누어 꽂아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sup>3)</sup>

授阿燾 …

2) 契丹主入京城 焚燒大廟宮闕民屋皆盡 是日王次廣州 失兩王后所之 令蔡文往尋之 至饒吞驛乃得奉還 王喜爲留三日

3) 王發廣州次鼻腦驛 蔡文奏 扈從將士 皆托尋妻子四散 昏夜恐有姦賊竊發 請爲幟分插將士冠以辨 從之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6월

○ 광주에서 도적이 일어나다

광주(廣州)의 산 숲속에서 도적이 일어났으므로 용호군(龍虎軍)의 장교(將校)를 보내어 잡게 하였다.<sup>4)</sup>

『고려사절요』 권4, 정종 2년 6월 무진

○ 광주 등지에 지진이 나다

경성·동경(東京)·상주(尙州)·광주(廣州)·안변부(安邊府) 등 관내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많이 무너졌다.<sup>5)</sup>

『고려사절요』 권5, 문종 18년 11월

○ 광주·봉주에 재해가 들다

호부(戶部)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에는 봄에서 가을까지 오랫동안 가물어 비가 오지 아니한 데다가 우박의 피해가 겹쳐 경내(境內)의 벼와 곡식이 온통 거들 것이 없습니다. 또 봉주(鳳州)는 경자년의 대수(大水)로 집과 벼농사가 거의 다 떠내려가서 백성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습니다. 양관(兩官)의 관하에 사신을 보내어 양전(量田)을 중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좃았다.<sup>6)</sup>

4) 盜起廣州山藪 遣龍虎軍將校往捕之

5) 京城及東京尙廣二州安邊府等 管內州縣地震 多毀屋廬

6) 戶部奏 廣州自春至秋 久旱不雨重以雨雹闔 境禾穀一無所收 又鳳州於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1년 정월

○ 흥왕사 낙성에 광주 등에서 채붕을 꾸미게 하다

흥왕사(興王寺)가 낙성(落成)되었는데, 2,800간이며 12년만에 준공하였다. 왕이 재(齋)를 베풀어서 낙성하니 각처에서 중들이 모여들었다. 계행(戒行)이 있는 자 1천명을 택하여 법회(法會)에 참례하게 하고 이어 상시(常時)로 머물게 했으며 특히 5일 동안 밤낮으로 연등대회(燃燈大會)를 개설하였는데, 칙령으로 중앙의 모든 관청과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개성부(開城府)·광주(廣州)·수주(水州: 京畿 水原)·양주(楊州)·동주(東州)·수주(樹州: 京畿 富平) 다섯 고을과 강화(江華)·장단(長湍) 두 현(縣)을 시켜서 뜰에서 절 문에 이르기까지 채붕(綵棚)을 꾸미게 하였는데, 빗살을 나란히 비늘처럼 차례로 잇달았으며 왕의 연(輦)이 지나가는 길 좌우에는 또 등산(燈山)과 화수(火樹)를 꾸며서 대낮같이 환하게 하였다. 이날 왕이 의장과 행렬(鹵簿)을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분향하고 재물을 보시하였는데, 불사(佛事)의 성대함이 전에 없던 것이었다.<sup>7)</sup>

---

庚子年大水 廬舍禾稼漂蕩幾盡 民無定居 請停兩官轄下發使量田 從之  
7) 興王寺成 凡二千八百間 十二年而功畢 王欲設齋以落之 諸方緇流盆集 命擇有戒行者一千赴會 仍令常住 特設燃燈大會五晝夜 勅令百司及安西都護 開城府廣州楊東樹五州江華長湍二縣 自闕庭至寺 門結綵棚 櫺比鱗 次連亘相屬 輦路左右 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 是日王備鹵簿率百官 行香 施納財觀 佛事之盛 曠古未有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0월 임인

○ 여진 추장을 잡아 광주에서 고문하다

숙종 7년 여진이 정주 관문 밖에 와 주둔했는데, 8년에 (우리가) 유인하여 추장 허정(許貞)과 나불(羅弗) 등을 잡아 광주에 가두고 고문하니 과연 우리를 (치려고) 도모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마침 변장 이일숙(李日肅) 등이 아뢰기를 “여진은 허약하니 죽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좋은 기회를 잃고 치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했다.<sup>8)</sup>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12월

○ 광주 등지의 기민을 진휼하다

근신(近臣)을 나누어 보내어서 홍화·운중·서해·남경·광주·충주·청주 등 제도(諸道)의 기민(飢民)을 진휼하였다.<sup>9)</sup>

『고려사절요』 권9, 인종 3년 9월

○ 광주목 판관을 역임한 김경용이 졸하다

낙랑백 김경용(金景庸)이 졸하였다. 경용은 인물이 잘나고 풍채가 좋았으며 젊어서는 방탕하고 풍류와 여색을 좋아하였다.

8) 肅宗七年 女眞來屯定州關外 八年誘執酋長許貞與羅弗等 囚廣州拷問果謀我也 遂留不遣 會邊將李日肅等奏 女眞虛弱 不足畏失 今不伐後必爲患

9) 分遣近臣 賑興化 雲中 西海 南京 廣州 忠清州等 諸道飢民

일찍이 어떤 사람과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송나라 상인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제 그대의 관상을 보건대 골격이 빼어나고 특이하여 반드시 부귀하고 장수할 것이니 스스로 자중하라” 하였다. 경용이 이로부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찍이 광주목(廣州牧)의 판관(判官)이 되었는데, 정치를 까다롭게 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다. 뒤에 재상이 되어서는 권세를 믿고 재산을 모으며 주택을 웅장·화려하게 꾸미니 여론이 그를 비난하였다.<sup>10)</sup>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12년 3월

○ 최유청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최유청(崔惟淸)을 양이(量移)하여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삼고 임극정을 충주목사로 김이영(金貽永)을 남경유수(南京留守)로 각각 임명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sup>11)</sup>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1년 8월

○ 왕이 남경으로 거둥하니 광주에서 마중나오다

남경에 행차하였다. 행차가 가돈원(加頓院)에 이르니 광주에

---

10) 樂浪伯金景庸卒 景庸偉麗有風采 少放逸好聲色 嘗與人鬪于道 宋商客見之語曰 今觀子相 骨法秀異 必富貴而壽請自愛 景庸由是頗自負 嘗爲廣州牧判官 爲政不苛人畏而敬之 及爲宰相倚勢殖貨治第壯麗 時議譏之

11) 量移崔惟淸爲廣州牧使 任克正爲忠州牧使 金貽永爲南京留守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서 의위(儀衛)와 악부(樂部)를 갖추어 맞이하고 말과 견여(肩輿)와 양산(陽傘)을 바쳤다.<sup>12)</sup>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1년 9월

○ 광주장서기 김류가 환관에게 뇌물을 주다

남경으로부터 돌아와 중의에 조(詔)하여 은전(恩典)을 차등있게 베풀었다. 이 행차 때에 광주장서기(廣州掌書記) 김류(金鏐)가 백성에게서 추렴하여 진귀한 기명(器皿) 등을 바꾸어 가지고 환관에게 많은 뇌물을 주었다. 이때 백선연·왕숙공 등이 김류를 천거하여 내시(內侍)로 들었다.<sup>13)</sup>

『고려사절요』 권12. 명종 11년 3월

○ 이돈실을 광주로 귀양보내다

전 대정(隊正) 한신충(韓信忠)·채인정(蔡仁靖)·박돈순(朴敦純) 등이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하는 것을 영사(令史) 대공기(大公器)가 알고 장군 경대승에게 고하였다. 대승이 왕에게 아뢰고 잡아다가 국문(鞫問)하니 초사(招辭)가 낭장 석화(石和), 별장(別將) 박화(朴華), 주부(注簿) 이돈실(李敦實)에게 관련되었다. 드디어

12) 幸南京 駕至加頓院 廣州備儀衛樂部以迎 獻馬及肩輿陽傘

13) 至自南京 詔中外推恩有差 是行也廣州掌書記金鏐 聚斂于民 貿易珍玩 器皿重賂宦者 於是白善淵王肅恭等 薦鏐屬內侍

신충·인정·돈순 등을 섬에 귀양보내고 석화를 남해현령(南海縣令)으로 박화를 하산도구당사(河山島勾當使)로 좌천(左遷)시키고 이돈실을 광주(廣州)에 귀양보냈다.<sup>14)</sup>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정월

○ 광주와 수주에서 징병하다.

진위현(振威縣) 사람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이 국가의 사단이 있는 틈을 타서 같은 현(縣) 사람 별장동정(別將同正) 김례(金禮) 등과 더불어 반란을 꾀하여 도중(徒衆)을 모아 현령(縣令)의 병부(兵符)와 인(印)을 겁탈하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촌락에 펼쳐 주니 주린 백성이 많이 따랐다. 이웃 고을에 통지하되 자칭(自稱) 정국병마사(靖國兵馬使)라 하고 (그 군사)를 의병(義兵)이라 이름하였다. 행군하여서 종덕(宗德)·하양(河陽) 두 창(倉)에 이르러 곡식을 풀어서 군사를 먹이고 제멋대로 꾸러 가지고 장차 광주(廣州)를 침범하려 하였다. 왕이 낭장 권득재(權得材)와 산원(散員) 김광계(金光啓) 등을 보내어 안찰사 최박(崔博)과 함께 광주(廣州)·수주(水州) 두 고을의 군사를 발하여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충청·양주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쳐서 당필과 김례를

14) 前隊正韓信忠蔡仁靖朴敦純等 謀作亂 令史大公器知之 以告將軍慶大升 大升白王捕鞠之 辭連郎將石和別將朴華注簿李敦實 乃流信忠仁靖敦純等于海島 貶和爲南海縣令 華爲河山島勾當使 流敦實於廣州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잡으니 도적의 무리가 흩어져 달아나고 장대는 상주(尙州)로 달아났는데, 안찰사가 (그를) 사로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내어서 모두 죽였다.<sup>15)</sup>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10월

○ 광주 등지에 토공을 독촉하다

안동·경주(慶州)·진합주(晉陝州)·상주(尙州)·영암(靈巖)·나주(羅州)·전주(全州)·양광주(楊廣州)·청주(淸州)·충주(忠州) 등 10도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모든 주의 토공(土貢)을 독촉하고 또 군사로서 겨울옷을 가지러 간다 하고 고향에 내려가 오래 번들여 올라오지 아니한 자를 독촉하여 서울로 올 것을 명령하였다.<sup>16)</sup>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8년 9월

○ 광주 관악산의 초적을 충군하다

최우가 사람을 보내어 광주(廣州) 관악산(冠岳山)의 초적(草

---

15) 振威縣人令同正李將大 直長同正李唐必 乘國家有事 乃與同縣人別將同正金禮謀不軌 嘯聚徒衆劫奪縣令符印 發倉賑貸村落 飢民多附 移牒旁郡 自稱靖國兵馬使號義兵 行至宗德河陽二倉 發粟啗士恣其所取 將寇廣州 王遣郎將權得材散員金光啓等與按察使崔博 發廣水二州 軍討之不勝 更徵忠淸楊州道兵攻之 獲唐必及禮 賊徒潰散 將大奔尚州 按察使擒之 械送于京皆伏誅

16) 遣使於安東慶州晉陝州尙州靈巖羅州全州楊廣州淸州忠州等十道 督諸州土貢 又軍士有 因取冬衣 請告歸鄉久不番上者 督令赴京

賊)이 둔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 적의 괴수 5명과 정예(精銳) 50명을 유치(誘致)하여 우군에 충군(充軍)하였다.<sup>17)</sup>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8년 12월

○ 몽고군이 광주 등지를 잔멸하다

몽고 군사가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 등지로 향하는데, 지나는 곳마다 잔멸(殘滅)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sup>18)</sup>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5월

○ 광주의 부세를 면제하다

조(詔)하기를 “광주(廣州)는 신묘·임진년에 오랑캐의 군사가 에워싸고 공격하였을 때에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요역이나 잡공(雜貢)을 면제하라” 하였다.<sup>19)</sup>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7월

○ 광주와 남경을 강화에 합치다

전·후·좌·우군 진주(陣主)와 지병마사에게 명하여 연강(沿

---

17) 崔瑀遣人 往廣州冠岳山草賊屯所 誘致賊魁五人 精銳五十人 厚賞以充右軍

18) 蒙兵向廣忠淸州 所過無不殘滅

19) 詔廣州於辛卯壬辰年 狄兵圍攻 能固守不下 其免常徭雜貢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江)을 방수(防戍)하게 하고 또 광주(廣州)·남경(南京)을 강화(江華)로 합하게 하였다.<sup>20)</sup>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0년 8월

○ 몽고군이 광주의 가옥을 불태우다

몽고 군사 3천명이 고주·화주 두 고을 지경에 와서 둔을 치고 척후병 300여 기가 광주에 이르러 가옥들을 불살랐다.<sup>21)</sup>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0년 11월

○ 광주에서 표문을 올리다

팔관회를 법왕사에서 베풀고 행차하였다. 그때 병란으로 인하여 여러 도에서 표문을 올린 것이 남경·광주·수주뿐이었다.<sup>22)</sup>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1년 8월

○ 몽고의 척후 기병이 광주에 이르다

몽고병이 서북 변경에 들어오고 척후 기병이 광주에 이르렀다.<sup>23)</sup>

---

20) 命前後左右軍陣主 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合入江華

21) 蒙兵三千來屯 高和二州之境 候騎三百餘 至廣州焚燒廬舍

22) 設八關會 幸法王寺 時因兵亂 諸道上表者 只南京廣州樹州而已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4년 3월

○ 설영임을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홍규를 첨의정승 지익성부사로 설영임을 찬성사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임명하였다.<sup>24)</sup>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5년 2월

○ 보우의 거주지인 광주 미원을 현으로 승격하다

중 보우(普愚)를 내불당(內佛堂)에서 밥을 먹였다. 보우는 곧 보허(普虛)인데, 광주 관내의 미원장(迷元莊)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왕에게 아뢰어 미원을 승격시켜 현(縣)으로 높이고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자기가 호령을 주장하고 감무는 다만 그의 명령대로 보내고 들이고 할 뿐이었다. 전원(田園)을 널리 점유하여 목마(牧馬)가 들에 가득하였으나 모두 내승(內乘)이라고 일컬어서 비록 벼를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감히 쫓지 못하였다.<sup>25)</sup>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0년 11월

○ 광주에 이르러 유탁에게 벼슬을 내리다

상주판관(尙州判官) 조진(趙縉)이 군사 1천4백 명을 데리고 왔

---

23) 蒙兵入西北鄙 候騎至廣州

24) 以洪奎爲僉議政丞知益城府事 薛永任爲贊成事廣州牧使

25) 飯僧普愚于內佛堂 普愚卽普虛 寓廣州管內迷元莊 白王陞迷元爲縣置監務 主號令 監務但進退而已 廣占田園牧馬滿野 皆以內乘稱雖害禾穀 人不敢逐

으므로 대장군(大將軍) 김득제(金得齊)로 하여금 거느리게 했다. 사평원(沙平院)에 이르니 개령감무(開寧監務)가 와서 쇄마(刷馬) 100여 필을 바쳤다. 광주(廣州)에 이르러 유탁(柳濯)을 경상도도순문 겸 병마사(慶尙道都巡問兼兵馬使)로 이춘부(李春富)를 전라도도순문 겸 병마사(全羅道都巡問兼兵馬使)로 이성서(李成瑞)를 양광도도순문 겸 병마사(楊廣道都巡問兼兵馬使)로 강석(姜碩)을 교주·강릉도도순문 겸 병마사(交州江陵道都巡問兼兵馬使)로 삼았다. 중랑장(中郎將) 임견미(林堅味)가 재상과 추신(樞臣)에게 말하기를 “적이 이미 경성에 들어 왔으니 임진강(臨津江) 북쪽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청하건대 모든 도의 군사를 뽑아 적을 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나 재상과 추신들이 응하지 않았다. 임견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왕에게 아뢰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창졸간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sup>26)</sup>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0년 11월

○ 조희고를 광주목사로 임명하다

장군 홍선(洪瑄)이 자청해서 유격장군(遊擊將軍)이 되려 하니 왕이 가상히 여겨 남경윤 양광도관군 상만호(南京尹楊廣道管軍上

26) 尙州判官趙縉 以兵千四百來 使大將軍金得齊領之 至沙平院 開寧監務來獻刷馬百餘匹 次廣州以柳濯爲慶尙道都巡問兼兵馬使 李春富爲全羅道都巡問兼兵馬使 李成瑞爲楊廣道都巡問兼兵馬使 姜碩爲交州江陵道都巡問兼兵馬使 中郎將林堅味言於宰樞曰 賊已入京 都臨津以北 非我有也 請徵諸道兵討之 宰樞不應 卽涕泣白王 王曰 其如倉卒何

萬戶)로 발탁하고 조희고(趙希古)를 광주목사 양광도 부만호(廣州牧使楊廣道副萬戶)로 삼았다.<sup>27)</sup>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4월

○ 광주 천왕사의 불사리를 왕륜사에 안치하다

신돈(辛旽)이 재추(宰樞)와 광주 천왕사(天王寺)의 불사리를 맞이하여 왕륜사(王輪寺)에 두었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보고 황금과 채색 비단을 보시하고 또 중에게 베 800필을 내려 주었다. 재·추 이하의 관원이 관대를 하고 뜰에 섰는데, 신돈은 반소매 옷을 입고 손에는 원선을 들고 왕과 나란히 평상에 앉았다. 왕이 사리를 보고 절하니 신돈도 또한 절하였으며 신돈이 연화문을 소매 속에서 꺼내어 서서 왕에게 주니 왕이 이것을 받으면서 더욱 공손히 하였다.<sup>28)</sup>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6월

○ 광주의 공물을 가로챈 이득림이 탄핵되다

상호군(上護軍) 이득림(李得林)이 신돈에게 붙어 전라도 안

---

27) 將軍洪瑄 自請爲遊擊將軍 王嘉之擢爲南京尹 楊廣道管軍上萬戶 以趙希古爲廣州牧使楊廣道副萬戶

28) 辛旽與宰樞 迎廣州天王寺佛舍利 置之王輪寺 王率百官 往觀之 施黃金綵帛 又賜僧布八百匹 宰樞以下 冠帶立庭 旽著半臂衣手 圓扇竝御床坐 王拜舍利 旽亦拜 旽袖緣化文立授王 王受之愈謹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림사가 되었다. 길을 떠나기 전에 헌사에서 독립이 일찍이 광주에서 공물로 바친 명주를 도둑질했다고 탄핵하니 왕이 죄를 다스리지 말도록 명하고 독촉하여 그로 하여금 임지에 가도록 하였다.<sup>29)</sup>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3년 6월

○ 시중 염제신을 광주로 귀양보내다

도당(都堂)에서 임밀(林密)과 채빈(蔡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생이 채빈의 모자에 꽃을 꽂은 것이 바르지 못하자 채빈이 크게 노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시중(侍中) 염제신(廉悌臣)을 광주(廣州)로 귀양보내었다. 채빈은 기생이 자기 뜻을 거스른 데 노하여 말을 달려서 돌아가려 하니 왕이 김흥경(金興慶)을 시켜서 금교역(金郊驛)까지 뒤쫓아가서 위유하여 도로 왔다. 이때 빈관(賓館)에서 사신을 대접함이 심히 후하니 부고(府庫)가 이 때문에 비게 되었으며 각 관사(官司)로 하여금 윤번(輪番)으로 연회(宴會)를 베풀게까지 하였다. 채빈은 성품이 횡패(橫悖)하여 사람을 구타하고 꾸짖기를 좋아하니 시중(侍中) 이하의 여러 재상(宰相)이 모두 능욕을 당하였다.<sup>30)</sup>

29) 上護軍李得林附辛旽 得爲全羅道按廉 未行憲司劾得林 嘗盜廣州貢紬 王命勿治督令之任

30) 都堂宴林密蔡斌 妓簪斌帽花不整 斌大怒 王聞之 流侍中廉悌臣于廣州 斌怒妓忤其意馳馬將還 王令金興慶追及金郊驛慰諭以來 時館待甚厚 府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4년 11월

○ 광주목의 지평현에 감무를 두다

광주(廣州) 관할 안에 있는 지평현(砥平縣)을 나누어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유모 장씨(張氏)의 고향이기 때문이었다.<sup>31)</sup>

---

庫爲之匱竭至 令各司輪辦宴慰 斌性橫悖好歐罵人 自侍中以下諸相 悉被陵辱

31) 析廣州任內 砥平縣置監務 以乳媪張氏之鄉也

여 백

## 『高麗圖經』

『고려도경』 권3. 성읍 봉경

○ 광주도

고려는 남쪽은 요해(遼海)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遼水)와 맞닿았고 북쪽은 옛 거란 땅과 접해 있고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아 있다. 또한 일본·유구·탐라(耽羅)·흑수(黑水)·모인(毛人) 등의 나라와 견아상제(犬牙相制: 땅의 경계가 서로 엇물려 있는 것)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오직 신라와 백제가 스스로 그 국경을 견고히 하지 못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합병(合併)되니 지금의 나주도(羅州道)와 광주도(廣州道)가 이것이다. 그 나라는 경사(京師: 송나라 서울)의 동북쪽에 있는데, 연산도(燕山道)로부터 육로(陸路)로 가다가 요수(遼水)를 건너 동쪽으로 그 나라 국경에 이르기까지 무릇 3,790리이다.<sup>1)</sup>

---

1) 高麗南隔遼海 西距遼水 北接契丹舊地 東距大金 又與日本流求耽羅黑水毛人等國犬牙相制 唯新羅百濟不能自固 其圍爲麗人所 并今羅州廣州道是也 其國在京師之東北 自燕山道陸走渡遼而東之 其境 凡三千七百九十里

『고려도경』 권4. 문궐 외문

- 안정문은 경주·광주·청주로 통하다

왕성(王城)의 모든 문은 거개 초창기(草創期)에 만든 것인데, 선의문(宣義門)은 사자(使者)가 출입하는 곳이고 북창문(北昌門)은 사자가 회정(回程: 돌아가는 길)하거나 사묘(祠廟)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게 꾸며져 있어 다른 문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회빈문(會賓門)·장패문(長霸門) 등부터는 그 제도가 대략 같은데, 오직 그 한가운데에 쌍문을 만들어 존비(尊卑)에 구애없이 모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성은 모두 양쪽을 나무로 받치고 철통(鐵箆)으로 보호하였으며 위에는 작은 행랑집을 지었는데, 산 지형대로 높고 낮게 쌓았다. 아래서 송산(菘山) 등성을 바라보면 성의 담장을 빙 두른 것이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형상과 같다. 장패문은 안동부(安東府)로 통하고 광덕문(光德門)은 정주(正州)로 통하고 선인문(宣仁門)은 양주(楊州)·전주(全州)·나주(羅州) 등 3주로 통하고 송인문(崇仁門)은 일본으로 통하고 안정문(安定門)은 경주(慶州)·광주(廣州)·청주(淸州) 등 3주로 통하고 선기문(宣祺門)은 대금국(大金國)으로 통하고 북창문은 삼각산(三角山)으로 통하는데, 신탄(薪炭: 떨나무와 숯)·잣·포백(布帛)이 나는 지방이다.<sup>2)</sup>

2) 王城諸門 大率草創 唯宣義門以使者出入之所 北昌門爲使者回程 祠廟之路故 極加嚴飾 他不逮也 自會賓長霸等門 其制略同 唯當其中爲兩戶 無尊卑皆得出入 其城皆爲夾柱 護以鐵箆 上爲小廊隨山形 高下而築之

『고려도경』 권23, 잡속2, 토산

○ 광주는 큰 소나무가 많다

고려는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굽어보며 땅은 척박하고 돌이 많다. 그러나 곡식의 종류와 길쌈의 이(利)와 우양(牛羊) 축산의 좋음과 여러 가지 해물의 아름다움이 있다. 광주(廣州)·양주(楊州)·영주(永州) 등 세 주에는 큰 소나무가 많다. 소나무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다만 다섯 잎이 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다. 나주도(羅州道: 지금의 전라도)에도 있으나 삼주(三州)의 풍부함만 못하다. 열매가 처음 달리는 것을 솔방이라 하는데, 모양이 마치 모과와 같고 푸르고 윤기가 나고 단단하다가 서리를 맞고서야 곧 갈라지고 그 열매가 비로소 여물며 그 방(房)은 붉은 색을 이루게 된다. 고려의 풍속이 비록 과실과 안주와 국과 적에도 이것을 쓰지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되니 사람으로 하여금 구토하여 몇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sup>3)</sup>

---

自下而望崧山之脊 城垣繚繞 若蛇虺蜿蜒之形 長霸門通安東府 光德門通正州 宣仁門通楊全羅三州 崇仁門通日本 安定門通慶廣清三州 宣祺門通大金國 北昌門通三角山 薪炭松子布帛所出之道也

3) 高麗依山瞰海 地瘠而磽 然而有稼穡之種 麻枲之利 牛羊蕃產之宜 海物惟錯之美 廣楊永三州多大松 松有二種 惟五葉者乃結實 羅州道亦有之不若三州之富 方其始生謂之松房 狀如木瓜青潤緻密 至得霜乃析 其實始成 而房乃作紫色 國俗雖果肴羹齋亦用之 不可多食 令人嘔吐不已

『고려도경』 권25. 수조 기거

○ 광주의 수령이 성체의 안부 등을 묻다

정사와 부사가 조서를 인도하여 궁정에 당도하고 나면 왕이 재배하고 일어나 자리에서 피해 서서 몸소 성체(聖體)의 안부를 묻는다. 정사 역시 자리에서 피해 서서 몸소 대답하기를 ‘근자에 대궐을 떠났는데, 황제의 성궁(聖躬)은 만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고는 각각 자리로 돌아가 재배 무도(舞蹈: 손을 휘젓고 발을 구르는 임금에 대한 예의)함이 조서를 받을 때의 의례와 같다. 이에 앞서 전주(全州)에서 광주(廣州)에 이르는 3주(전주·청주·광주)의 수령들이 성체의 안부를 왕이 한 의례같이 하여 묻고 영접 전송하는 관반관(館伴官)들이 만날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한다.<sup>4)</sup>

『고려도경』 권39. 해도6. 자연도

○ 자연도는 광주이다

이날 신시 정각에 배가 자연도(紫燕島)에 머물렀으니 이곳은 곧 광주(廣州)이다. 산에 기대어 관사를 지었는데, 방(榜)에 ‘경원정(慶源亭)’이라고 하였다. 경원정 곁에는 막집 수십 간을 지었다. 주민들의 초가집도 많다. 그 산의 동쪽 한 섬에 날아다니는

4) 使副既導詔至于廷 王再拜興避席 躬問聖體 使亦避席躬答曰 近離闕下 皇帝聖躬萬福 各復位拜舞 如受詔之儀 先是自全抵廣凡三州牧 問聖體 如王之儀 至其接送館伴官相見 亦如之

제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접반 윤언식(尹彦植)과 지광주(知廣州) 진숙(陳淑)이 개소(介紹)와 역관 탁안(卓安)을 보내어 서신을 가지고 와서 영접하게 하였는데, 병장과 의례가 융숭하였다. 신시(申時) 후에 비가 멎어 정사와 부사가 삼절(三節)과 함께 상륙하여 관사에 당도하였고 그 음식과 상건례는 전주에서의 예(禮)와 같았다. 밤의 누각(漏刻)이 2각으로 내려가자 배로 돌아갔다. 10일(신묘) 진각(辰刻)에 서북풍이 불어 8척의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할관 오덕휴(吳德休)와 제할관 서경(徐兢)은 상절과 함께 다시 채색 배로 관사에 갔다가 제물사(濟物寺)에 들러 원풍(元豐: 송 신종의 연호)때의 사신인 고 좌반전직(左班殿直) 송밀(宋密)을 위해 공양을 드린 뒤에 배로 돌아갔다. 사각(巳刻)에 밀물을 따라서 전진하였다.<sup>5)</sup>

---

5) 是日申正 舟次紫燕島卽廣州也 倚山爲館 榜曰慶源亭 亭之側爲幕屋數十間 居民草舍亦衆 其山之東一嶼 多飛燕 故以名之 接伴尹彦植知廣州 陳淑 遣介紹與譯官卓安 持書來迎 兵仗禮儀加厚 申後雨止 使副與三節登岸到館 其飲食相見如全州禮 夜漏下二刻歸舟 十日辛卯辰刻 西北風八舟不動 都轄吳德休提轄徐兢 同上節復以采舟詣館 過濟物寺爲元豐使人 故左班殿直宋密 飯僧畢歸舟 巳刻隨潮而進

여 백

## 金石文·記文

유진고□□중원부 고개천산 정토사 교시 법경대사 자등지탑비명 병서(有晉故□□中原府故開天山 淨土寺 教誡 法鏡大師 慈燈之塔碑銘 並書)<sup>1)</sup>

○ 법경대사가 한주와 광주를 거쳐 충주의 정토사에 이르다

… 임금은 부처를 섬기듯이 정성스러웠고, 깊이 친근한 곳을 구하여 이에 중주(中州)의 정토사를 들어 머물도록 청하였다. 대사는 이로부터 넓고 큰 바다를 건너자마자 늘 그윽하고 깊은 골짜기를 생각하였는데, '이를 버리고 어디로 가면 내가 원하는 곳 이리요'라고 하였다. 이에 곧 산에 갈 행장을 꾸려서 한주(漢州)와 광주(廣州)를 넘고 유유히 고개를 넘어 가서 머무니, 경지(境地)는 두루 아름답고 산천(山泉) 또한 매우 아름다웠다.<sup>2)</sup>

1) 『조선금석총람』 상, 150~156쪽. 고려 태조 26년 계묘에 제작되었다.

2)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 上事佛精勤深求親近仍舉中州淨土蘭若請以住持大師自此纔涉滄溟每思幽谷捨茲奚適適我願兮於是便挈山裝尋凌漢廣悠悠騫嶺往以居之境地偏佳山泉甚美

혜목산 고달선원 국사 원종대사지비(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 고려국 광주 혜목산 고달선원 고국사제 증시 원종대사혜진지탑비명 병서(高麗國廣州慧目山高達禪院故國師制贈諡元宗大師慧眞之塔碑銘并序)<sup>3)</sup>

○ 왕명으로 원종대사가 광주 천왕사에 머물다

고려국 광주 혜목산 고달선원 고 국사 제증시 원종대사 혜진지탑비명 병서. … 대사의 존칭은 찬유(璨幽)요, 자는 도광(道光)이며 속성은 김씨(金氏)로서 계림(鷄林) 하남(河南) 사람이다. 자자손손이 드러난 족속이요, 대대로 유명한 가문인데, 조상을 드높이는 깨끗한 규범과 종족을 공경하는 꽃다운 자취는 삭제하여 기록하지 않겠으니, 이는 불문의 종지를 따르는 것이다. … 대사는 다행히 소원대로 아버지의 승낙을 얻어 곧 머리를 깎고 출가하였다. 상주 공산(公山) 삼랑사(三郎寺)의 용제선사(融蹄禪師)가 도를 강론함이 깊고 사람을 교화함이 밝다는 소식을 삼가 듣고 그의 제자가 될 생각으로 멀리 선사를 찾아갔다. 선사가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오늘 너의 오는 모습을 보니 장차 훌륭한 사람을 만난 것을 알겠다. 우리 종의 선화상(禪和尚)은 범호가 심희(審希)인데, 진짜 한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여 동국을 교화한 주인이시다. 지금 혜목산(慧目山)에 계시니 너는 마땅히 찾아가서 그 분을 스승으로 섬겨라.” 대사는 ‘나의 스승임에 틀림없으니

3) 『조선금석총람』 상, 207쪽. 고려 광종 20년에 을해에 제작되었다.

나의 소원을 이루었다. 지체 말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 생각하고, 곧 혜목산을 찾아가 정성껏 섬기면서 도를 배우는 마음을 더 닦고 선을 익히는 뜻을 한층 가다듬었다. 얼마 되지 않아 묘리를 정밀히 탐구하고 현기(玄機)를 높이 깨달았으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 관통하였으면서도 계율을 준수하고 벗어나지 않았다. 22세 때 양주(楊州)의 삼각산 장의사(莊義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때는 인동초의 싹이 나온 이후이자 계주가 빛을 발산할 초기였다. 그런데도 도를 물어 지칠 줄 모르고 스승을 찾아 게을리함이 없었다. 때마침 대사의 스승이 광주(光州) 송계선원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대사는 멀리 행장을 꾸려 특별히 송계로 찾아가 예족(禮足)의 정성을 표하고 스승의 가르침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 삼가 듣자 하니, 우리 태조 신성대왕이 꿈에 복두성을 품에 안아 천운에 부응하고 순임금처럼 포(褒)자를 손안에 쥐어 왕통을 열음으로써, 하나라를 고쳐 하늘이 돌보는 명을 받고 주나라를 이어 해가 뜨는 나라를 일으켰다고들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조각달이 허공에 떠가듯 외로운 구름이 산봉우리에 나오듯 마음이 움직였다. 저 창룡이 물길을 헤쳐 나갈 때는 본디 뗏목에 의지할 마음이 없으나, 단봉이 허공을 날 때는 오히려 오동나무에도 깃들 뜻이 있는 법이므로, 멀리 명아주 지팡이를 들고 곧장 개성(開城)으로 가서 마침내 태조대왕을 배알하였다. 대왕은 대사가 현도(玄道)를 원만히 행하고 범신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여,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에 머물기를 청하므로 그 곳에 머

물렸다. 그 곳에 있더라도 세상을 교화시킬 수 있었지만, 혜목산은 노을진 피가 강연하는 자리에 너무도 적절하고 구름 낀 계곡이 선승의 거처로서는 매우 흡족하기 때문에, 그 곳으로 옮겨 머물렀다. … 임금(光宗)께서 믿어 향하는 마음이 깊고 공경하여 받드는 뜻이 지극하여, 마침내 대사를 받들어 증진대사라 호를 내렸다. 이어 도인과 속인의 두 사자를 보내어 조서를 내리고 궁궐로 불렀다. 대사는 ‘도가 행하여지려고 하는데, 이때를 놓칠 수 없다. 석가모니의 부촉을 생각하여 나는 가야겠다’ 하고, 마침내 호계를 나와 대궐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눈썹이 하얀 장로의 깨끗한 무리와 조정 신하의 못 영웅들이 법안을 바라보느라 함께 모이고 자안을 대하여 에워싸고 우러르면서, 왕성(王城) 사나원(舍那院)으로 보내 주었다. 다음날 임금은 사나원에 거둥하여 사례하기를, “제자가 동쪽 숲을 바라보며 목을 늘이고 남쪽 시내를 향하여 마음을 기울였는데, 스님께서는 근기(根機)를 따르기를 골짜기를 스치는 폭풍 소리와 같고 느낌에 부응하기는 못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귀의하는 마음 다시 간절하고 배우고 싶은 소원은 더욱 깊습니다”라고 하였다. 3일 후 중광전(重光殿)에서 법연을 열었는데, 금란 자락을 끌고 자전에 오르면, 임금은 대사의 도통한 입술을 보고 선에 들어 기뻐하고 등글고 맑은 눈을 받들기를 정성껏 하였다. … 드디어 천덕전(天德殿)에 법연을 크게 열어 원해(願海)의 일천 파도를 기울이고, 심향의 한 심지를 태웠다. … 현덕 5년(958, 광종 9) 세차 무오년 가을

8월 20일에 대사는 입적하고자 목욕을 마치고 방 앞에서 문생들에 명하여 모두 뜰 안으로 모이게 하고는 유훈을 하기를, “만법(萬法)은 다 공(空)한 것이라. 나 이제 떠나가련다. 한 마음은 곧 근본이니 너희는 힘쓰도록 하라. 마음이 생기면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사라진다. 자네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이니, 어찌 종자가 따로 있겠는가. 여래의 올바른 계를 보전하고 힘쓸지어다”라고 하고는 말을 마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단정히 가부좌하고서 고달원(高達院) 선당에서 입멸하였다. … 다음 날 신좌(神座)를 혜목산(慧目山) 감실로 받들어 옮겼는데, 얼굴빛을 보니 살아계실 때와 같아 임시로 돌문으로 닫아 봉하였다. 임금의 대사가 입적하였다는 말을 듣고 선월(禪月)이 빨리 사라지고 각화(覺花)가 먼저 진 것을 슬퍼하여, 사자를 보내어 곡서(鵠書)로 조문하였다. 시호를 원종대사라 추증하고 탑호를 혜진이라 하였으며, 영정 한 벌을 삼가 만들었다. 이어 국공(國工)에게 돌을 다듬어 여러 층으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하였다. 문인들은 소리쳐 울며 시신을 받들어 혜목산 서북 언저리에 탑을 세우니 불법에 따른 것이다. … 음기 건덕 9년(971, 광종 22) 세차 신미 10월 21일에 원화전에서 대장경을 읽을 때 황제 폐하가 조서를 내리기를, “국내 사원 가운데 오직 세 곳은 단지 그대로 두어 변동시키지 말고 문하의 제자로 서로 이어 주지하여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되, 이로써 법을 삼으라”라고 하였다. 이른바 고달원(高達院)·희양원(曦陽院)·도봉원(道峰院)의 주지삼보(住持三寶)

는 반드시 국왕의 힘에 의지하였으니, 이는 석가여래가 세상에 나와 불법을 말하고 왕과 대신에게 부촉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황제 폐하는 깊은 정으로 석문(釋門)의 묘리를 존중하고 함께 좋은 인연을 맺어 끝없는 가르침을 펴려고 한 것이다. … 병인년(966, 광종 17)에 시작한 비담이 마침내 정축년(977, 경종 2)에 이르러 공역이 끝났다.<sup>4)</sup>

4) 高達院元宗大師慧眞塔碑. 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高麗國廣州慧目山高達禪院故國師制贈諡元宗大師慧眞之塔碑銘并序 … 大師尊稱璨幽字道光俗緣金氏鷄林河南人也孫孫著族代代名家尊祖清規敬宗芳蹟剛而不記遵釋宗矣 … 大師以邂逅適願卽落髮出家伏承尙州公山三郎寺融諦禪師論道玄玄化人赫赫願爲弟子遙詣禪師禪師若曰格汝見今日之來儀認他時之利見吾宗禪和尚法號審希眞一佛出世爲東化主見在慧目山汝宜往師事之大師以是吾師也適我願兮得不時然後行利有攸往便詣慧目允叶服膺增修學道之心倍勵習禪之志未幾精窮妙理高悟玄機行覺路以雖通仗律儀而斯在年二十二受具於楊州三角山莊義寺於是忍草抽芽之後戒珠瑩色之初尙以問道忘疲尋師靡懈時本師移住光州松溪禪院大師遠携筇杖特詣松溪申禮足之素衷謝鑄顏之玄造 … 伏聞我太祖神聖大王懷斗膺期握褒啓聖革夏受顧天之命載周興出日之邦遂乃片月遊空孤雲出岫彼蒼龍濟浪本無憑筏之心丹鳳冲虛猶有栖梧之志遠携藜杖逕詣玉京遂入勤太祖大王大王以大師玄道周行法身圓對乃請住廣州天王寺遂從之住焉居則化矣而以慧目山乃霞嶠偏宜於宴坐雲溪甚愜於禪居移而住焉 … 上乃信向心深欽承志至遂奉師號爲證眞大師仍遣道俗重使遠飛芝檢徵赴金城大師以爲道之將行時不可失念付囑故吾其往矣遂出虎溪特詣龍關於是雪眉清衆鷲序群英瞻法眼以珠聯對慈顏以環仰送至王城舍那院翌日上幸舍那院謝曰弟子望東林以引領向南澗以傾心師尊隨機如颺谷之聲赴感似月潭之影瞻依更切鑽仰弥深越三日於重光殿開法筵及乎曳以金欄昇於紫殿上觀菓屑而禪悅奉蓮眼以精誠爲其環區申避席之儀 … 迺於天德殿高敞法筵傾願海之千波蕪心香之一炷 … 顯德五年歲集敦牂秋八月月缺五日大師將化往盥浴訖房前命衆悉至于庭迺遺訓曰萬法皆空吾將往矣一心爲本汝等勉旃心生法生心滅法滅人心卽佛寧有種乎如來正戒其護之助之哉言畢入房儼

광주 교산리 마애약사상(廣州 校山里 磨崖藥師像)

○ 광주 교산리의 마애약사상

태평 2년(977, 경종 2) 정축 7월 29일에 옛 석불이 있던 것을 (在如賜乙) 중수하오니, 지금 황제(今上皇帝: 景宗)께서 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sup>5)</sup>

고려국졸태사 삼중대광내사령 최정숙공 묘지(高麗國卒太師 三中大匡內史令崔貞肅公廟誌)<sup>6)</sup>

○ 최사위(崔士威)는 광주목 관내 수주인이다

공의 휘는 사위(士威)이고, 자는 동환(動寔)인데, 한남도(漢南道) 광주목 관내 수주(水州) 사람이다. 증조의 휘는 서천(徐遷)으로 호장(戶長)이었고, ... 공은 나이 81세가 되던 중희(重熙) 10년(정종 7년) 신사 3월 4일에 졸했다. 조를 내려 정숙공(貞肅公)이라

---

然趺坐示滅於當院禪堂 ... 翌日奉遷神座於慧目山龕觀顏色如生權施石戶封閉上聞之慨禪月之早沈嗟覺花之先落降之星使弔以鵠書追謚元宗大師塔號慧真敬造眞影一幀仍令國工功石封層冢門人等號奉色身豎塔于慧目山西北崗遵像法也 ... 【陰記】乾德九年歲次辛未十月二十一日於元和殿開讀大藏經時皇帝陛下詔曰國內寺院唯有三處只留不動門下弟子相續住持代代不絕以此爲矩所謂高達院曦陽院道峰院住持三寶須憑國主之力所以釋迦如來出世道佛法付囑國王大臣是以我皇帝陛下情深敬重釋門妙理共結良因軌矩恒流 ... 始丙寅年郢工碑塔終至丁丑年功畢也

5) 廣州校山里磨崖藥師像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古石佛在如賜乙重脩爲今上皇帝萬歲願

6) 『한국금석유문』 88, 89쪽. 문중 29년 제작되었다.

는 시호를 내리고, 그 달 24일에 불일사(佛日寺) 법운산(法雲山) 남쪽에다 국장을 지냈다. 막내아들 영언(永言)이 35년 뒤인 을묘년(문종 29년) 11월 8일에 송림현 경내 송현에 개장하였다. … 왕명을 귀하게 받들어 시의를 독단하여 삼보(三寶)와 궁실을 세운 것이 세 군데이다. 그 이름을 살피면, 현화사·봉은사·태묘(大廟)이다. 하물며 또한 주독사가 스스로 봉해 올려 말하길, 사사와 궁궐을 창건하거나 수리한 것이 15군데라고 하였다. 보제사 금당 및 나한전·의왕사·□중원·서경사천삼사, 그 경(평양)의 장악궁·대조진전, 연주(延州) 경내 진북 영화사, 전주 신중사, 진도현 점찰원, 시진현 경내 포천 미륵원, 낭천군 개통사·계성사, 개차근산 정양사, 수주 자복사, 송림현 경내 보현경관 등이었다.<sup>7)</sup>

중서시랑평장 문강공 묘지 병서(中書侍郎平章 文康公 墓誌 並書)<sup>8)</sup>

○ 윤언이(尹彦頤)가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공이 9월 3일 군영에 나가려고 문을 나서다가 몸이 좋지 않

7) 夫公諱士威字動寔漢南道廣州牧管內水州人也曾祖諱徐遷爲戶長 … 公歲八十一重熙十年辛巳三月四日卒詔諡曰貞肅公其月二十四日國葬於佛日寺法雲山之陽也有季男令言隔三十五年取乙卯十一月八日改葬於松林縣境內松峴也 … 貴承王命獨斷時宜造立三寶并宮室者三所也審其名焉玄化寺奉恩寺大廟者也況又自陳奏牘使奉日愈倉立修營寺舍宮□者一十五所也普濟寺金堂及羅漢殿醫王寺□衆院西京四天三寺其京長樂宮大祖眞殿延州境內鎮北靈化寺宣州神衆寺珍島縣占察院市津縣境內布川彌勒院狼川郡開通寺啓星寺皆次斤山正陽寺水州資福寺松林縣境內普賢鏡館等也

8) 『한국금석문추보』 120~123쪽, 의종 4년 제작되었음.

아서 다시 돌아와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었다. 광제사(廣濟寺)에 빈소를 마련하니 나이 60이었다. … 공의 휘는 언이(彦頤)이고 자는 원로(元老)이며 성은 윤씨(尹氏)로 영평현(鈴平縣) 사람이다. … 무오년(1138, 인종 16) 인종이 오해를 풀고 광주목사(廣州牧使)로 제수하여 임시로 벼슬길에 나가게 했다. … 무진년(1148, 의종 2)에 금상의 봉책하는 예를 행할 때 주상이 승평문(昇平門) 바깥에 나가서 영접하지 않게 했으니 예이다. … 경오년(1150, 의종 4) 4월 14일에 임강현 용봉산 숭복사(臨江縣龍鳳山崇福寺) 동쪽 산기슭에 뼈를 장사지내니 왕부인 시중 문숙공(文肅公)의 능침과 같은 경내이다.<sup>9)</sup>

졸내시검교 호부상서 시대복소경 윤공묘지명(奉內侍檢校 戶部尙書 試大僕少卿 尹公墓誌銘)<sup>10)</sup>

○ 윤언민(尹彦旼)이 광주목 부사를 역임하다

공의 이름은 언민(彦旼)이요, 자는 일장(日章), 그 선대는 평산 파평현(平山波平縣) 사람이다. … 시위위소경(試衛尉少卿) 광주목 부사(廣州牧副使)를 역임하였다. 다음해 경오년 봄에 들어가

9) 公九月三日欲坐軍營乃出門體中頗不佳卽還入與室語話閒遂化去殯于廣濟寺年六十 … 公諱彦頤字元老姓尹氏鈴平縣人 … 戊午仁宗意解除授廣州牧使許令權赴 … 戊辰禮行今上封冊不使主上出迎昇平門外例也 … 庚午四月十四日葬骨于臨江縣龍鳳山崇福寺東麓乃王父侍中文肅公陵寢一境內也

10) 『한국금석문추보』 135~136쪽, 의종 8년 제작되었다.

시공부 낭중(試工部郎中)에 배하여지고 시대복소경(試太僕少卿)으로 옮겼다. 이때 마침 숙질이 있어 아뢰어 한관(閑官)을 요청하니 안서대도호부사(安西大都護府使)에 제배되었다. … 7남이 있는데, … 2남 명첩은 도원도관역사이다. … 이 달 20일 경성 동북 운용산의 동쪽 기슭에 장사지냈다. … 하물며 영고는 일찍이 공과 함께 광주(廣州)에 부임하여 공을 막부에서 보좌하였다. … 처는 경원군부인 이씨(慶源郡夫人李氏)로 참지정사 이충린(叅知政事 李寵麟)의 장녀이다. 갑오 정월 6일에 파현 귀로(波縣歸老)의 땅에서 졸하니 향년 80세이다. 정유년 5월 21일에 이르러 홍호사(弘護寺) 북쪽 언덕에 뼈를 아울러 옮겨 부처 합장하였다.<sup>11)</sup>

졸고려국삼중대광개부의동삼사검교태사수사도 상서좌복야참지정사관상서공부사주국증시열정공 묘지명 병서(卒高麗國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檢校大師守司徒 尙書左僕射參知政事判尙書工部事柱國贈諡烈靖公 墓誌銘並書)<sup>12)</sup>

○ 광주목사를 역임한 윤포(尹誦)를 법운산에 장사지내다

예종 천경(天慶) 2년 임진에 호부 원외랑(戶部員外郎)으로 광주목(廣州牧)에 나가 3년을 다스렸다. … 이 해 8월 3일 갑신에

11) 公諱彥改字日章其先於平山波平縣人也 … 試衛尉少卿廣州牧副使越庚午年春入拜試工部郎中遷試太僕少卿當是時會有宿疾奏乞閑官除拜安西大都護府使 … 七男 … 次日明瞻桃源道館驛使 … 是月二十日葬於京城東北雲湧山之東麓 … 況永固曾與公出任廣州佐公幕府 … 妻慶源郡夫人李氏叅知政事李寵麟之長女也於甲午正月六日卒于波縣歸老之地嚮年八十至丁酉歲五月二十一日並移骨於弘護寺北岡夫妻同葬焉

12) 『조선금석총람』 상, 369~371쪽. 의종 8년 제작되었음.

경성 동쪽 법운산(法雲山) 기슭에 장사지냈다.<sup>13)</sup>

졸 이정정공묘지(卒李貞靖公墓誌)<sup>14)</sup>

○ 이식(李軾)이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공의 성은 이(李)요, 이름은 식(軾), 자는 처인(處仁)으로 그 선대는 경원군 사람이다. … 병오년에 원흥진(元興鎭)에 나가 지켰으며 얼마 안되어 옮겨 수개성부(守開城府)가 되었다. … 무오년에 광주목(廣州牧)에 나가 1년을 다스리고 지남경유수(知南京留守)로 고쳐졌다. … 중서령 계양공(中書令桂陽公) 이위(李瑋)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 3남 응장(應璋)은 시험문지후 지개성부사(試閣門祗候知開城府使)이다. … 정풍 원년 병자 11월 14일 우봉군 의룡산(牛峯郡 義龍山)의 동쪽 기슭에 장사지냈다.<sup>15)</sup>

고려국등사랑시상서형부시랑(高麗國登仕郎試尙書刑部侍郎)<sup>16)</sup>

○ 박득령(朴得齡)이 광주목 사록 겸 장서기를 역임하다

공의 이름은 득령(得齡)이고 나주(羅州) 승평군(昇平郡) 사람

13) 睿宗天慶二年壬辰以戶部員外郎出守廣州牧居三年 … 是年八月三日甲申葬于京東法雲山之麓

14) 『한국금석문추보』 140~141쪽. 의종 14년에 제작되었음.

15) 公姓李諱軾字處仁其先慶源郡人也 … 丙午年出守元興鎭俄而徙守開城府 … 戊午年出守廣州牧居一年改知南京留守 … 娶中書令桂陽公李瑋之女 … 次日應璋試閣門祗候知開城府使 … 以正豐元年丙子十一月十四日葬于牛峯郡義龍山之東麓

16) 『조선금석총람』 상, 373~374쪽. 의종 11년에 제작되었음.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이다. 과거의 진사시에 급제하여 광주목 사록 겸 장서기(廣州牧司錄兼掌書記)에 보임되었다.<sup>17)</sup>

윤종양 묘지명(尹宗諱 墓誌銘)<sup>18)</sup>

○ 윤종양(尹宗諱)이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얼마 후에 호부 원외랑지제고(戶部員外郎知制誥)에서 비서승(秘書丞)으로 옮기었고, 기해(1179, 명종 9)년에는 광주목사가 되어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 나와 진실로 게으른 기색이 없었으며 더욱 간소한 사람을 적발하는 데 힘쓰니 이로 인해 백성들이 모두 편안해졌다. … 공의 조부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이름은 언이(彦頤)이고 증조부는 문하시중으로 이름은 관이고 본은 영평현(鈴平縣: 지금의 경기도 파주)이며, 외조는 중서시랑평장사로 휘는 유충(惟忠)이고 성은 한(韓)이다. … 또한 □□□하여 이 달 25일에 송림현의 남산 언저리에 장사지냈으니 예이다.<sup>19)</sup>

17) 公諱得齡羅州昇平郡人也舉進士第補廣州牧司錄兼掌書記

18) 『한국금석문추보』 183쪽, 명종 18년에 제작되었음.

19) 俄自戶部員外郎知制誥轉秘書丞 己亥出守廣州牧□戴星出入固無怠色  
[免] 尤工摘發 [光□摘發] 姦千人□民 [皆□□□] 皆寧 … 公祖中書  
侍郎平章事諱彥頤□□□侍□諱□本鈴平縣人外祖中書侍郎平章事諱惟  
忠姓 [往] 韓 … 亦□□□以是月二十五日葬于松林縣□南山之麓禮也

졸대중대부호부상서 박공 묘지 병명(卒大中大夫 戶部尙書 朴公 墓誌 并銘)<sup>20)</sup>

○ 광주 연창군 출신 박인석(朴仁碩)

이때 상국(相國) 창원공(昌原公)이 공을 조정에 천거하면서 말하기를, “계림(雞林)공 박인보(朴寅輔)는 참으로 명가의 아들로 늙름하게 장상의 기국이 있었으나, 횡화를 당하여 연창군(延昌郡)에 머물며 늙은 농부가 된지 오래되었다. … 공의 지금 휘는 인석(仁碩)이요, 자는 수산(壽山)이며 광주 연창군(廣州延昌郡) 사람이다. … 북원(北原: 원주)의 민속이 자못 순고하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마땅하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터를 잡고 살았다. 전 역사(御史) 권불화(權不華)와 더불어 산수를 구석구석 유람하였다. 갑자기 떠도는 소문에 연루되어 거의 불측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공을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연창군으로 옮겨 안치케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고어에 있기를, ‘빈천은 몸을 욱되게 하고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또 남아가 죽으면 그만이지 구차하게 죽지 않으려고 어찌 능히 거머리나 지렁이와 같이 살겠는가. 그러나 능히 스스로 힘쓰지 않고 앉아서 처자식에게 추위와 굶주림을 겪게 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이에 전주를 개간하고 원포를 가꾸며 산에서 땀감을 마련하고 이랑에서 김매면서 소와 말을 먹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자신이 먼저 하였으니, 의식이 조금은 넉넉해진 연후에야 고인

20) 『조선금석총람』 상, 433~434쪽. 강종 2년에 제작되었음.

의 서를 읽었고, 때때로 글을 지으면서 정성을 즐겁게 하니 사환 하려는 마음도 모두 사라져 마음이 맑아졌다. 24년이 지나 과연 현명한 재상의 천거를 받아 동래현령(東萊縣令)에 기용되었는데, 이는 명창 7년 병진이다. … 그 후 정묘년(1207, 회종 3) 여름에 호부시랑으로 남경의 유수를 2년 동안 지냈다. … 금상이 즉위한 지 2년째인 대금 숭경 원년(1212, 강종 원년) 4월 임오에 병으로서 사제에서 졸하였고, 5월 무신에 오룡산(五龍山) 남쪽 기슭 종천의 양지 바른 곳에 장사지냈다. … 외손 2인이 있는데, 외손자는 안효덕(安孝德)으로 등제하여 서해부 서기(西海府書記)로 나아갔고, 딸은 급제한 김식(金軾)에게 시집갔다.<sup>21)</sup>

묘지(墓誌)<sup>22)</sup>

○ 이서림(李瑞林)이 광주목 판관을 역임하다

군은 병을 만나 낫지 않다가, 대금(貞佑) 정우 계유년(1213,

21) 時相國 昌原公薦公於朝曰雞林朴寅輔實名家子軒軒有將相器曩遭橫禍在延昌郡 爲老農久矣 … 公今諱仁碩字壽山廣州延昌郡人 … 聞北原民俗頗淳古宜於人迺往卜居 與前御史權不華窮山水之遊忽爲飛語所中幾陷不測朝有惜公者得移延昌郡安置公曰 古語有之貧賤不能辱身非人且男兒死則已苟不死安能若螻蛄 然不能自力坐使妻孥受寒餓耶於是墾田疇理園圃採樵于山鋤禾于畝至飼牛秣馬必以身先之使衣食粗給然後讀古人書時時爲文怡情性仕宦之心都息澹如也閱二十四年果爲賢相所薦引起爲東萊縣令是明昌七年丙辰也 … 越丁卯夏以戶部侍郎留守南京二載 … 以今上即位二載大金崇慶元年四月壬午以病卒私第五月戊申葬于五龍山南麓鐘川之… 有外孫二人男曰安孝德登第赴西海府書記女適及第金軾

22) 『조선금석총람』 상, 436~437쪽. 고종 즉위년에 제작되었음.

고종 즉위) 중동 하순에 집에서 졸하였다. 다음달 계동 24일에 송림현 법운산(松林縣 法雲山)을 복택하여 장사지냈다. … 이때 진강후(晉康侯)가 지국(持國)하고 □□□□ 우봉현령을 두는데, 창제하는 처음이라 전에 정적(政績)이 있던 사람들을 구하였는데, 군이 □변에서 □□하여(성적이 있었음으로 해서) 인애(仁愛)를 더하였으며 크게 진강(晉康)후의 지우와 장려를 받았다. … 그 사이에 외직으로 나아가 광주목(廣州牧) 판관 및 안북부 판관(安北府判官)이 되었는데, 그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sup>23)</sup>

고 조의대부 사재경 우간의대부 보문각직학사 지제고 사자금어대(故朝議大夫司宰卿 右議議大夫 寶文閣直學士 知制誥 賜紫金魚袋) 이군(李君)의 묘지명 병서(並書)<sup>24)</sup>

○ 몽고의 침입을 이세화(李世華)가 격퇴시키다

이군은 휘가 세화(世華)요, 자가 거실(居實)이며, 관향은 진주(眞州)이다. 아버지의 휘는 모(某)인데,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이요, 어머니 해양군부인(海陽郡夫人) 김씨(金氏)는 모관(某官) 모(某)의 딸이다. 이군이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비록 장관(將官)이

23) 君遇疾不瘳以大金貞佑 癸酉仲冬下旬卒于家越 季冬二十四日 卜宅松林縣法雲山而葬之 … 是時晉康侯持國□□□□峰置縣令 勅制之初 求前有政績者君被□□□邊而加仁愛大爲晉康知獎 … 其間出 爲廣州牧及安北府判官非其好也

24) 『동국이상국집』 후집 12. 고종 25년 제작되었음.

었지만, 그의 천성이 영오(穎悟)하므로 필시 스스로 통달할 것임을 알고 일찍이 글을 배우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군은 학문에 힘쓰고 작문을 공부하였다. 무오년 봄에 성균시(成均試)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임술년에 와서 과거를 보아 병과(丙科)에 뽑혔다. 회종 때에 다방(茶房)에 관적을 두었더니 얼마 뒤에 공사(公事)로 인하여 면직되었고, 뒤에 다시 내시(內侍)에 관적을 두었더니, 마침 강종(康宗)이 붕(崩)하자 규례에 따라 면직되었다. 이군은 지방관을 지내지 않고 녹을 받기 위한 벼슬을 얻었으니 즉 견주감목(見州監牧)에 제수되었다. 병자년에 도병마록사(都兵馬錄事)에 전보되었더니, 정축년 가을에 나아가서 정음분도(定戎分道)가 되었는데, 원수(元帥) 조공(趙公)의 신임을 받았다. 이군이 체직하게 되자 조공은 표(表)를 올려서 막하(幕下)에 머물게 한 다음 일을 맡기고는 그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조공이 조정에 돌아와서는 이군을 힘껏 천거하여 대영서 승(大盈署丞)에 제수되었다. 경진년 봄에 나아가서 백령진장(白翎鎭將)이 되었는데, 청렴하고 공평하게 고을을 다스렸다. 그 고을에는 예로부터 향교(鄕校)가 없었는데, 이군이 처음으로 창건하고 아전들의 자제를 모아 글을 가르치니, 몇 해 안 가서 모두 인재를 이루었으며, 공거(貢擧)에 응시한 자까지 있게 되매, 온 고을이 그를 사모하였으며, 여러 번 글을 올려서 그의 아름다움을 포장하였다. 임기가 차자 신호위녹사(神虎衛錄事)에 제수되고, 얼마 뒤에 다시 도병마(都兵馬)를 겸하게 되었으며, 이어 여러 번 전직하여 내원서령

비서랑(內園署令秘書郎)이 되고, 갑신년 여름에는 중서주서(中書注書)에 전임되고, 그해 겨울에는 우정언 지제고(右正言知制誥)에 재배되었다가 얼마 뒤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에 전임되고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았으며, 얼마 안가서 우사간 지제고(右司諫知制誥)로 전임되었다. 정해년 봄에는 나아가서 남원부(南原府)의 원이 되고 그 이듬해에는 동주(東州)의 원으로 전임되었는데, 또 정치를 잘한다고 알려졌다. 경인년 봄에는 시어사 금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이듬해 가을에는 나아가서 경상도를 안찰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몽고가 국경을 크게 침범하므로 5도의 염안사(廉按使)가 모두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가게 되었는데, 이군은 재촉해서 군사를 정돈하여 다른 도보다 먼저 약속된 시기에 달려갔고, 또 군사를 지휘하는 것도 마치 노숙한 장수처럼 하니, 이를 듣는 사람은 위대하게 여겼다. 임진년에는 예빈소경 어사 잡단에 제배되었다. 이해 여름에 국가에서는 오랑캐의 침범으로 인하여 도읍을 옮기려 하였는데, 광주(廣州)는 곧 중도의 큰 진이라 해서 조정 의논으로 적임자를 간택하게 되어, 이군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다.

이 해 11월 몽고의 대병력이 수십 겹으로 에워싸고 온갖 계략으로 여러 달 동안 공격이 계속되었다. 이세화는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되 기이한 계책을 내어 혹은 사로잡고 죽인 것이 심히 많으니 오랑캐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광주는 남로(南路)의 요충지에 해당하며 이 성이 함락

된다면 나머지는 가히 알 만한 일이라, 그대가 아니었다면 거의 위태로울 뻔하였다. 옛날에 장순(張巡)이 휴양(睢陽)을 지킴에 비록 그 의열(義烈)은 죽히 칭찬할 만하였으나 자신이 죽고 성이 함락되는 것은 먼치 못하였다. 그대는 이를 죽기로 지켜 능히 함락을 면했고, 마침내 몸도 보전하고 성도 보전하여 만인을 살렸으니 그 공렬(功烈)은 훨씬 뛰어난다고 하겠다.

당시 모두들 생각하기를 곧 은총을 입어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3년이나 그곳에 머물게 되었으니 그것은 아마 조정의 의논이 이군에게 수어(守禦)하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바꾸기를 어렵게 생각한 것이다. 을미년 겨울에 조산대부(朝散大夫) 예부시랑 우간의대부 보문각직학사 지제고(禮部侍郎 右諫議大夫 寶文閣直學士 知制誥)로 불러들였으니 대략 그의 공에 대해 상을 준 것이다. 얼마 뒤에 이부시랑(吏部侍郎)으로 전임되고 간의의 직은 그대로 가졌다. 정유년 여름에 또 나아가서 청주산성(淸州山城)을 진수(鎭守)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가 수어에 능숙한 것을 안 몽고군은 끝내 감히 범하지 않았다. 그 해 겨울 조의대부 사재경(司宰卿)에 제배되고 간의의 직은 그대로 가졌다.

무술년 8월 보름에 집에 있으면서 아들과 사위들을 불러 달구경을 하면서 술을 마시며 조용히 즐기던 가운데 마지막 잔을 들다가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더니 새벽에 서거하셨다. 아 이상하도다. 어찌도 이처럼 그리 빨리 떠났을까. 그는 사람됨이 우의와 자질이 심수하고 확실하며, 이미 글로써 세상에 이름

이 나고 또 행정이나 전략에 있어서도 모두 능란하였으니 온전한 인재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정승이 되지 못하고 운명하였으니 이것은 명이 아니겠는가. 먼저 예빈소경(禮賓少卿) 허경(許京)의 딸에 장가들었다가 그 부인이 죽음에 다시 흥위위장군(興威衛將軍) 설모(薛某)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6녀를 낳았다.

아들 수진(守鎭)은 남원부 통판(南原府通判)이고, 수년(守年)은 안경부 녹사(安慶府錄事)이며, 수심(守深)은 아직 관에 오르지 못하였다. 장녀는 당후관(堂後官) 유경로(柳卿老)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모관 모에게 셋째 딸은 모관 모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 3딸은 모두 어리다.

장사지낼 적에 아들 수년과 사위 유경로 등이 행장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니 이는 영원히 전하려 함이다. 나 역시 일찍이 이군과 아는 사이라 일상 사양하기 어려우므로 드디어 다음과 같이 명하는 바이다.

명문에 이르기를,

남쪽 지방 광주라는 곳은 요충을 막아 있는데,  
 성상께서 의지하시니 온 나라 수호하듯 하셨네.  
 그 당시 우리 공, 나가서 방백이 되었는데,  
 오랑캐 와서 둘러싸니 운명을 알 수 없었네.  
 기운으로 진압하고, 담소하며 적 물리쳤네.  
 몸을 돌보지 않고 난을 구제하니 이처럼 공렬이 드러났고  
 온전하게 만인을 살리니 저처럼 음덕을 끼쳤다.

세상의 중론이 떠들썩하기에 정승이 되리라 기대했는데,  
 등급을 따라 올라가는 것 또한 더딘 걸음이었네  
 하늘이 조금도 구멍을 빌려주지 않아  
 아침 이슬처럼 갑자기 사라졌네  
 열기설기 얽힌 일들 누가 그 까닭을 물어보라  
 찬란한 그 공명 천고에 빛나리니  
 구구하게 명을 새기는 것이 큰 봉세의 한 것에 불과하네<sup>25)</sup>

25) 故朝議大夫司宰卿 右諫議大夫 寶文閣直學士 知制誥 賜紫金魚袋 李君 墓誌銘 竝書

君諱世華 字居實 系出眞州 考諱某 檢校大將軍 母海陽郡夫人金氏 某官諱某之女也 君方妙齡 父雖將官 知其性穎悟 必自建 早令從學 由是力學工屬文 越戊午春赴成均試中之 至壬戌舉春場 擢丙第 貞廟朝 籍茶房 俄以公事免 後復籍內侍 會康廟崩 隨例見免 君不經外寄得祿仕 除見州監牧 丙子歲 遷補都兵馬錄事 丁丑秋 出爲定戎分道 爲元帥趙公所器 及見替 公表留幕下 委以事甚重之 公還朝力薦 除大盈置承 庚辰春 出爲白翎鎮將 理邑廉平 此郡舊無鄉校 君首創之 集吏人子弟教以學 不數年 皆得成其才 至有應貢舉者 一郡慕之 屢騰狀褒美秩滿 除神虎衛錄事 俄復兼都兵馬 因累歷內署令秘書郎 甲申夏遷中書注書 其冬拜右正言知制誥 俄遷殿中侍御史 賜緋魚袋 未幾 遷右司諫知制誥 丁亥春 出守南原府 明年 移守東州 又以理最聞 庚寅春 以侍御史金紫見詔 明年秋出按慶尙州道 會蒙古大寇邊 五遣廉使 皆領兵赴援 君促理兵 先諸道赴期 又持軍如宿將 聞者趨之 壬辰除拜禮賓少御史雜端 是夏 國家因虜寇 將遷都 以廣州迺中道巨鎮 朝論棟汰 遣公出刺 冬十一月 蒙古大兵 來圍數十重 以百計攻之 至數月 公日夜繕守備 隨機應變 出其意表 或俘殺甚衆 虜知不可 遂解圍去 州當南路要會 此城陷則餘可知已 微君幾殆矣 昔張巡之守睢陽也 雖義烈有足嘉者 猶未免死城陷矣 君能守之以死 而迴之生地 卒得身保城完 全活萬人 則功烈可謂優矣 時皆以爲亟被寵兒喚 而猶留三年者 朝議豈以公有守禦之能 而重亦其人也 乙未冬 以朝散大夫禮部侍郎右諫議大夫寶文閣直學士知制誥徵還 蓋賞功也 俄遷吏部侍郎 仍諫議 丁酉

단성량절공신벽상삼한삼중대광첨의정승판선부사증시문청공 권공묘지명 명서(端誠亮節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僉議政丞判選部事 贈謚文淸公 權公墓誌銘 並書)<sup>26)</sup>

○ 이진(李璵)이 광주목 사록을 역임하다

공은 장단현위(長湍縣尉)로 시작하여 옮겨 인주판관(仁州判官)이 되었다. … 동경(東京: 경주)에는 예전부터 갑방(甲坊)이란 이름이 있었는데, 국세의 소출로 삼고 그 나머지는 곧 담당관리가 사사로이 하였다. 공이 유수일 때 곧 없애버리니 1년의 수입으로 3년을 쓸 수 있었다. 또한 사호(司戶)로서 탐욕으로 조세를 도용하는 자를 징계하니 백성이 지금까지 이를 칭찬하였다. 예를 들면 전라도·경상도를 안찰할 때의 일은 널리 인구에 회자됨이 진실로 많다. 충청도에 계실 때 내가(李璵) 광주목 사록(廣

夏 又出鎮清州山城 公既閑於守禦 蒙兵竟不敢犯 冬拜朝議大夫司宰卿 仍諫議 戊戌仲秋望 在家召子壻等 翫月飲酒 從容甚樂 方舉杯 忽仆不起 至曙而逝 嗚呼異哉 何其大速也如此 公爲人偉儀表資 沈遂確實 既以文鳴世 又吏幹虎略 皆所游刃 是可謂全才者 然未相而卒 茲非命歟 先取禮賓少卿許京女 卒再醮興威衛將軍薛某女 凡生男三人女六人 男曰守眞南原府通判 曰守年安慶府錄事 曰守深未冠 女一適堂後官柳卿老 次適某官 次適某官某 三女尙幼 其葬也 子守眞壻卿老等 具行狀 求予爲銘 圖有以不朽者 予亦嘗與君有舊 理難可辭 遂銘之曰 南紀曰廣 衝要是扼 帝所倚重 如護全國 時惟我公 出作方伯 方虜之圍 寄命不測 能以氣壓 談笑却敵 橫身濟難 顯烈如此 全活萬人 陰德若被 物論僉騰 朝以三事 計級而升 亦跬步耳 天不少借 奄若朝露 糾纏紛軋 孰詰其故 爛然功名 暉日央千古 刻銘區區 大鵬一羽

26) 『해동금석원』 부록 상, 1068~1075쪽, 충선왕 4년 제작되었음.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州牧司錄)으로 있어 직접 그것을 보았다. 오로지 민생고를 묻고  
관리의 현부를 감독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다.<sup>27)</sup>

고밀직부사치사박공묘지(故密直副使致仕朴公 墓誌)<sup>28)</sup>

○ 박화(朴華)가 광주목사를 역임하다

예빈부군(父)은 음죽(陰竹) 안씨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음  
평군부인(陰平郡夫人)에 봉해졌다. 이 분이 공을 낳았으니 실로  
원조 현종황제 제2년 임자해(1252, 고종 39)였다. … 판적요직  
공역서(板積窯直供驛)·사온서령(司醞署令)·자운방판관(紫雲坊判  
官)을 역임하였다. 연우 3년(1316, 충숙 3)에 장자인 인간(仁幹)  
이 태위심왕(太尉瀋王)의 저에 부름받아 나아가자 선부산랑(選部  
散郎)에 기용되었고 나가 경원부(慶原府)를 맡다가 이윽고 치사  
하였다. 태정 원년(1324, 충숙 11)에 인간이 태위왕을 따라 토변  
으로부터 돌아왔다. 이에 다시 광주목(廣州牧)에 임명되었다. 다  
음해에 통헌대부(通憲大夫) 밀직부사 상호군(密直副使上護軍)으로  
치사하였다. 후지원 2년(1336, 충숙 후 5) 정월 12일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향년이 85세였다. 3월 8일에 왕경의 동쪽 대덕산  
감은사(大德山感恩寺)의 북쪽 기슭에 장사지냈다. … 자식은 아들

27) 公始自長湍縣尉移爲仁州判官 … 東京古有甲坊名 爲國稅之所出 其羨  
餘寔爲專城者所私及公之留守也卽破去以一年之收支三年 又徵司戶之貪  
猾盜用租賦者民到于今稱之 若全羅慶尙攬轡之事播在人口者固多矣 於忠  
淸時予爲廣州牧司錄目觀之專務問民苦瘼察吏賢不肖外無他事

28) 『조선금석총람』 상, 부록 612~614쪽, 충숙왕 복위 5년에 제작되었음.

이 다섯, 딸이 둘이다. 인간은 경자년(1300, 충렬 26)에 등제하고 다시 을묘년(1315, 충숙 2) 시험에 수석하였고 진성 병의 익찬공신(盡誠秉義翊贊功臣)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평리(僉議評理)로 현임 한양부윤(漢陽府尹)이다.<sup>29)</sup>

계림부윤시문경공안선생 묘지명 병서(雞林府尹諱文敬公安先生墓誌銘 并序)

○ 안보(安輔)가 광주사록 · 양광도안찰사 등을 역임하다

… 처음 지낸 벼슬은 광주사록 권지전교교감 예문검열 춘추수찬 예문공봉 문하주서 감찰규정 군부좌랑 좌정언 우헌납 전리정랑 감찰장령 전의부령 전리총랑 위위윤 감찰집의 우대언 겸 집의 전법판서(廣州司錄權知典校勘藝文檢閱春秋修撰藝文供奉門下注書監察糾正軍簿佐郎左正言 右獻納典理正郎監察掌令典儀副令典理摠郎衛尉尹監察執義 右代言兼執義典法判書)였고, 관직은 제학으로부터 대제학에 이르렀다. 그가 중국 진사과에 오른 것은 을유년(1345, 충목왕 1)이요 그가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나간 것은 갑신년(1344, 충목왕 즉위)에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요, 을유년(1345, 충목왕

29) 禮賓府君娶陰竹安氏女封陰平郡夫人 是生公實元朝憲宗皇帝第二年壬子歲也 … 歷板積窻直供驛司醞署令紫雲坊判官 … 延祐三年 長子仁幹赴召太尉潘王邸起以選部散郎出知慶原府尋致仕 泰定元年仁幹從太尉王廻自吐蕃於是又起任廣州牧明年以通憲大夫密直副使上護軍致仕至後 至元二年正月十二日病卒享年八十有五 越三月八日葬王京東大德山感恩寺之北麓 … 子男五人女二人仁幹登庚子科 又中乙卯應舉試魁盡誠秉義翊贊功臣匡靖大夫僉議評理見任漢陽府尹

1)에 교주도 안렴사이며, 정유년 9월 4일에 순흥부(順興府)에서 졸하여 장사하였는데, 향년 56세였다. … 부도(浮屠)를 물리쳐 오도를 붙든 자는 초계 정습인(鄭習仁)이요, 원수를 피해서 능히 거친 들에 은둔한 자는 광주(廣州) 이원령(李元齡)이었으니, 인재를 얻은 것이 성하다 하여, 당세에서 칭도하였다.<sup>30)</sup>

파평군 윤공 묘지명 병서(坡平君尹公 墓誌銘 並書)<sup>31)</sup>

○ 윤해(尹該)가 왕을 따라 광주 객사에 머무르다

… 지정 신축년(1361, 공민왕 10) 겨울에 사적(沙賊)이 서울을 핏박해 오므로 현릉이 남방으로 행행할 계획을 결정하니, 조관들이 많이 벼슬을 버리고 달아났다. 파평군(坡平君) 윤해(尹該)가 전직 북주목사로서 필마로 왕의 거가를 따라 광주(廣州)에 이르러, 객사의 문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는데, 비로소 그 얼굴을 알게 되었으니 대개 기이한 큰 인물이었다. … 공의 이름은 해(該)이요 자는 자기이니, 파평현(坡平縣) 사람이다. … (이때) 감시주사 민사평 집 종이 나무를 하려고 성밖

30) … 其初歷官 廣州司錄權知典校校勘藝文檢閱春秋修撰藝文供奉門下注書監察糾正軍簿佐郎左正言右 獻納典理正郎監察掌令典儀副令典理摠郎衛尉尹監察執義右代言兼執義典法判書也 館職則自提學至大提學也其登中國進士科乙酉歲也其奉命出使甲申楊廣道按廉使乙酉交州道按廉使也 丁酉九月初四日卒于順興府因葬焉五十六歲其享年也 … 闢浮屠以扶吾道者草溪鄭習仁也 避仇怨能遁荒野者 廣州李元齡也 得人之盛當世稱之

31) 『조선금석총람』 상, 부록 689~691쪽, 우왕 6년 제작되었음.

으로 나아가서 생소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반주 인안이 마침 교의에 나갔다가 보고 법으로 보아 당연히 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지하였던바, 민사평(閔思平) 집 종들이 그가 반주임을 알지 못하고 모여들어 이를 쳐서 그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임금의 크게 노하여 증방으로 하여금 민주사의 가택을 부수라고 하니, 공은 말하기를, “중은 진실로 죄가 있으나 그 주인이 어찌서 관련된단 말입니까. 또 지금 많은 선비들이 모두 눈을 씻고 방의 게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사의 집을 부수려 한다면 주사가 무슨 마음으로 시권을 고열하겠습니까” 하였더니, 얼마 후에 임금의 노기가 풀려 그 일이 정침됨을 얻었다. … 병진년(1376, 우왕 2) 12월 12일에 병으로 자택에서 별세하니 향년 70이었고, 다음해 정월 갑인일에 송림(松林)의 선영 아래에 장사하였다. 부인은 최씨니 … 4남 2녀를 낳았다. … 다음은 지여흥군사(知驪興郡事) 유원무(柳元茂)에게 시집갔다. … 지여흥군사(知驪興郡事)가 6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아무개요, 다음은 아무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 명에 이르기를, 영평(鈴平)의 봉군을 왕이 윤공에게 주었네.<sup>32)</sup>

32) … 至正辛丑冬沙賊逼京城玄陵決策南幸士大夫多棄官奔竄坡平君尹佺以前福州牧使匹馬屬駕至廣州坐客舍門談笑自若予始得知其面盖奇偉人也 … 公諱佺字子奇坡平縣人也 … 監試主司閔思平家奴 取柴城外而析生松班主印安適出郊法當禁 故禁之家奴不知其爲班主也聚擊之傷其脚王大怒令重房壞主司宅公以謂奴信有罪矣 其主何與焉且今多士刮目放膀而壞主司宅主司何心而考閱哉未幾上怒解事得寢 … 丙辰冬十二月十二日 以病卒于第享年七十 明年正月甲寅葬于松林先塋夫人崔氏 … 生四男二女 … 次適知驪興郡事柳元茂 … 驪興生六男一女長曰某次曰 某餘皆幼 … 銘

대원고려국 광주신복선사 중흥기(大元高麗國 廣州 神福禪寺 中興記)<sup>33)</sup>

○ 신복선사 중흥기

동지민장총관부사(同知民匠總管府事) 박군(朴君)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약간에 부모를 하직하고 황제의 딸에 내시가 되어 무종(武宗) 대부터 두터운 은택을 입었고 인조(仁祖)가 황통을 계승함으로부터는 동궁의 옛 신하라 하여 사랑하고 대우함이 보통과 달랐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어찌 고향 동리를 생각하고 부모를 그리워할 수 있겠는가. 저번에 황제의 명을 받들고 승전(乘傳)하는 마차를 타고 돌아가서 이어 귀향하였더니, 선군(先君)이 이미 늙으셨는지라, 나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기를 ‘늙은이가 밤낮으로 네가 귀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네가 돌아오는 것을 바랐으나 어찌 알라’ 하시며 데리고 신복사에 가서 ‘이곳은 네가 총각 때에 놀던 땅인데, 성안 풀만이 자라던 곳이다. 네 늙은 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은 심지어 옷가지나 수건 하나까지도 모두 다 희사하여 위로는 임금님을 위하여 복을 빌고 아래로는 너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큰 절이 되었다’ 하였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되었건만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하루라도 감히 잊지 못하였다. 아슬픈 일이다. 낳았을 뿐만 아니라 기르고 가르치셨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에게까지도 비셨으니 이것으

---

日鈴平之封王錫尹公

33) 『가정집』 권3.

로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사람이 능히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는 천하에 드물 것이다. 이제 선군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도 역시 늙었으나 신복사를 흥하게 함을 기록하는 것이 불초한 자식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데 큰 것이다. 앞으로 연산(燕山)의 돌을 사서 그 자초지종을 기록하고 아울러 선군의 말씀과 내 고향 동리 형제들의 이름을 새겨서 가져다가 신복사의 뜰에 세워 놓고 후세의 자손으로 하여금 우리 부자가 천성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게 하겠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 글을 쓰라고 하기에 나는 그 말을 듣고 느끼는 것이 없지 않았다. 무릇 부(富)하고 귀(貴)하며 이(利)하고 달(達)하는 데에만 급해서 만리 밖에 가서 벼슬하는 자가 어찌하다가 그 고향 동리를 생각하고 그 부모를 사모하겠는가. 또 우리 동쪽 나라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 황궁(皇宮) 안에서 우쭐거리며 한 때 밝은 자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고향 동리 보기를 진나라 사람들이 월나라 사람들의 땅을 보듯이 하고, 친척 대접하기를 길가는 사람 대하듯이 하는 자가 없는지 어찌 알겠는가. 그런데 박군은 한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효성한다는 마음을 종신토록 잊어버리지 아니 하고 반드시 좋은 옥돌에 새겨서 무궁한 후대에까지 전하려 하니, 가히 그를 위하여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은 광주(廣州)에 있는데, 처음으로 창건하기는 고을과 같이 시작하여 흥하고 패하는 것이 무상하더니, 이제는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데 법당이 있고, 종이 거처하는 데 집이 있으며, 마루와 행랑이

깊숙하고 문과 뜰이 시원스럽고 멀찍하여, 한 고을의 명승지를 차지하여 여러 곳의 선사들이 모이는 곳으로 되었다. 연우(延祐) 갑인년에 시작하여 지치(至治) 말년에 준공하였는데, 중 영구(永丘)가 실제 그 일을 맡아서 주장하였다. 전에는 항상 거주하는 이가 없더니, 박군이 주의 서쪽 마을 오산(烏山)에 있는 좋은 땅 15결을 시주하고, 그의 부인 김씨가 저폐(楮弊) 500관(貫)을 시주하여 공양할 재산으로 충당시켰다. 이 주는 삼한에서 여러 주목(州牧)의 으뜸이 되고, 박씨는 또 주의 대성이 되어서 그 조부 수도(守道)로부터 이상은 다 본 고을의 직책을 맡아서 한 고을의 어른이 되었었고, 아버지의 휘는 견(堅)인데, 중랑장으로서 나이가 많다고 사직하려 할 때에는, 중현대부(中顯大夫) 감문위 대호군(監門衛大護軍)이 되었다. 나이 78세로 태정(泰定) 갑자년 9월 2일 집에서 돌아가시니 광정대부(匡靖大夫) 밀직사사 상호군(密直司使上護軍)에 증직되었다. 어머니 장씨는 당진군대부인(唐津郡大夫人)에 봉하였는데, 원통(元統) 을해년 정월 25일에 돌아가시니 나이 84세였다. 군은 두 형과 두 아우가 있었는데, 맏형 효진(孝眞)은 검교별장(檢校別將)이요, 다음은 연(璉)인데 낭장(郎將)이요, 아우 천우(天祐)는 벼슬하지 아니하였고, 다음은 관(寬)으로 안산군(安山郡)의 원이었다. 여동생은 사온령 동정(司醞令同正) 이주(李注)에게 시집갔다. 효진은 3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순(純)이고, 차자는 미찰실례(彌札實禮)로 지금 감문위 대호군(監門衛大護軍)으로 연곡(輦轂)에서 숙위(宿衛)하고 있다. 다음은 탈침목아(脫帖木

兒)이고 딸들은 모두 선비에게 시집갔다. 천우는 3아들을 두었는데, 인만(仁萬)·평(平)·문(文)이라 한다. 관의 3딸은 모두 선비에게 시집갔다. 손자와 손녀딸 그리고 외손이 매우 많으나 기록하지 않는다. 군의 어릴 때 이름이 쇠로올대(瑣魯兀大)였는데, 무종 초년에 명령을 받들고 입궐하여 내시에 보임되자, 황제가 항상 작은 쇠노을대라 부르고 이어 하사하여 이름으로 정하였다. 처음에는 의란국 대사(儀鸞局大使)에 임명되었다가 두번째 옮기어 조열대부(朝列大夫) 동지대도로북첩영구제색민장도총관부사(同知大都路北怯怛口諸色民匠都總管府事)가 되었다. 성품이 신중하여 이미 열성(列聖)의 지우(知遇)가 되었고 얼마 후에 겸손하게 물러나 불교의 일로 만사(晩事)를 보냈다.<sup>34)</sup>

34) 大元高麗國 廣州神福禪寺 中興記

同知民匠總管府事朴君 造予言曰 吾弱冠辭親 宦于帝庭 自武宗之世 已承恩渥 泊仁廟繼極 以東宮舊臣 眷遇異常 當此之時 豈知思鄉里而慕父母乎 曩奉玉音 乘傳而歸 因覲省桑梓 則先君已老矣 拊吾背曰 翁日夜願汝貴望汝來 汝豈知之 引至神福蘭若曰 是汝卯角所遊地 而鞠爲茂草者也 翁殫家之有 雖衣巾盡拾之 上爲君王祝釐 下與汝乞福 堂堂乎一大佛刹也 自爾迄今幾三十年 言猶在耳 不取一日之忘 嗚呼不惟生之 而教養之 不惟思之于心 而又禱之于佛 是知父母愛子之心 無所不至 而人能以父母之心爲心者 天下鮮矣 今先君下世 吾亦老矣 而神福之興未有紀 此不肖之嗣忘親之大者也 將買燕山之石 載其顛末 并刻先君之言 與吾鄉里 昆季之名 歸置之神福之庭 俾後子孫 知有吾父子而天性若此也 予爲我筆之 予聞之不能無感 凡急於富貴利達而游宦萬里之外者 豈盡思其鄉里而慕其父母乎 且以吾東人言之 其高步禁闈 烜赫一時者 不爲不多矣 安知不有視 鄉里如秦越 待親戚如塗人者哉 朴君一聞 其親之言 慈孝之感 終身不忘 必欲刻之貞珉 傳之無窮 可不爲之書乎 寺在廣州 其劫始蓋與州并興 興廢不常 今

청풍정기(淸風亭記)<sup>35)</sup>

○ 광주 청풍정에 대해 말하다

지정(至正) 기축(己丑)년 여름 4월에 근친(覲親)하러 시골로 돌아오는 길에 낙생역(樂生驛)에 머물렀다. 광주(廣州)목사 백군(白君) 화부(和父)가 편지를 가지고 달려와 청하며 말하기를 “관사(官舍) 북쪽 옛날 청풍정 터를 얻어서 네 기둥의 집을 지었는데, 실로 한 고을의 승경(勝景)이니 청컨대 기(記)를 지어라” 하였다. 내가 가는 길이 바빠서 회답하기를 “뒤에 서울에 돌아갈 겠으니 한번 그 곳에 가서 구경한 뒤에 기를 지어도 늦지 않다” 하였다. 이듬해 광주에 이르니 백군은 이미 소환되고 이군(李君) 모가 대신하여 부임한 지가 반년이나 되었다. 그 때는 어느

---

則奉佛有殿 居僧有堂 廊廡靚深 門庭敞達 據一州之勝地 而爲諸方之禪藪也 始于延祐甲寅 訖工于至治之末 山人永丘 實尸其事 舊無常住 資朴君 施良田 在州西材之烏山者一十五結 其夫人金氏 施寶楮五百貫 以充供具焉 州於三韓 居諸牧之首 而朴氏又爲州大姓 自其祖守道以上 皆爲本州之職 長於一鄉 父諱堅 由中郎將 引年致事爲中顯大夫監門衛大護軍 年七十八 泰定甲子九月初二日 終于家贈匡靖大夫密直司使上護軍 母張氏 封唐津郡大夫人 元統乙亥正月二十五歿 壽八十四 君有二兄二弟 伯孝眞 檢校別將 次璉 郎將 季天祐 不仕 次寬 知安山郡事 女弟適司醴令同正李注 孝眞三男四女 長純 次彌札寶禮 今監門衛大護軍宿衛輦轂 次脫帖木兒 女皆適士人 天祐三男 曰仁萬曰平曰文 保寬三女 皆適士人 孫男女及外孫甚衆 不錄 君小字璣魯兀大 武宗之初 奉旨入充內侍 帝帝呼小璣魯兀大 因賜爲名 初拜儀鸞局大使 再遷朝列大夫同知大都路北怯伶口諸色民匠都總管府事 性慎重 既知遇列聖矣 已而謙退 老於佛事云

35) 『가정집』 권6.

몇 흑독하게 더워서 숨쉬는 것이 실날과 같았다. 이에 소위 '청  
 풍정(淸風亭)'이라는 데 올라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옷깃을 헤치  
 니, 정신이 맑고 시원하고 모발이 쓸쓸하고 삼삼하여 마치 매미  
 가 시궁창에서 껍질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이군  
 이 술을 내며 조용히 말하기를 "네 기둥의 체제가 간단하기는  
 하나 아침저녁 햇볕이 동쪽 서쪽으로 비치어 앉아 있는 손님이  
 병이 되게 여기므로, 내가 양 옆에 퇴를 달고 남쪽 추녀를 만들  
 어 각각 5척씩하고 북쪽도 또한 그와 같이 하니 조금 넓고 또  
 깊었다. 이미 흙손질을 하고 또 단청을 하려 하는데, 그대가 마  
 침 이르렀으니, 어찌 술잔을 들어 낙성(落成)하고 세월을 써서  
 기록하지 않으리요" 하였다. 내가 이미 백군에게 허락한 지라  
 정자가 폐지된 지가 몇 해인가 물으니 부로(父老) 중 아는 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황폐된 것을 일으키는 것이 실상은 새로  
 창건하는 것과 같다. 『춘추(春秋)』에 "글을 쓰고 지을 것이 아니  
 라"고 말한 것도 있고, 또 "노(魯)나라 장부(長府)를 어찌 반드시  
 고쳐 지으랴" 하고 말한 것도 있으니 성인이 가르침을 남긴 뜻  
 이 은미하다. 내가 광주의 고을 된 것을 보건대, 삼면은 모두  
 높은 산이고 북쪽은 비록 광활(曠豁)하고 머나 지세가 평평하고  
 낮아서 공청과 민가가 우물 밑에 있는 것 같아서, 빈객이 오면  
 차라리 낮고 더러운 것을 병되게 여길지언정, 몇 걸음 사이에  
 이런 시원하고 높고 조강한 곳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정  
 자의 지은 것이 깎아 내리는 예(例)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쓴다. 청풍의 뜻에 있어서는 백군이 말을 다하였으므로 나는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않는다. 백군은 같은 해에 등과한 친구요, 이군은 뜻이 같은 친구이다. 정사를 펼침에 있어 모두 청렴하고 부지런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경인(庚寅) 중하(中夏)에 기록한다.<sup>36)</sup>

둔촌기(遁村記)<sup>37)</sup>

○ 둔촌 이집에 대해 말하다

광주 이씨(廣州)가 이미 『맹자집의(孟子集義)』의 집자를 따서 이름을 짓고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호연을 따서 자(字)로 삼았다. 성산(星山)인 이자안(李子安)이 그 뜻을 해설하였다. 내가 또 끝

---

36) 淸風亭記 至正己丑夏四月 覲省還鄉 行次樂生驛 廣牧白君和父 父走書而邀之 且曰官舍之北 得古淸風亭基 作四柱屋 實一州之勝 請記之 余行忙 姑復之曰 後當如京 可一至而寓目焉 爲記未晚也 明年至廣 則白君已召還 而李君某代任半歲矣 時方酷熱 氣息如縷 乃登所謂淸風亭 倚柱而披襟 精神清爽 毛髮蕭颯 如蟬蛻溷濁而出乎塵埃之外 李君置酒從容言曰 四柱之制 簡則簡矣 朝夕陽暉 東西兩脚 坐客病焉 余翼其兩旁而作南榮 各五尺 北亦如之 稍廣且深 旣圻而將丹碧之 而子適至 盍舉觴落之而書歲月以志 余旣許白君矣 乃問亭之廢幾年 而父老無有知之者 則今之起廢 實同於勅新 春秋書作 有謂不宜作者 又謂魯長府何必改作 聖人垂教之意微矣 余觀廣之爲州 三面皆高山 北雖曠遠 地勢夷下 公廨民居 如在井底 賓客之來 寧病于卑陋 而不知跬步之間 有此爽塏 則此亭之作 當不在貶例 余於是書 若夫淸風之義 白說盡之 余不復贅 白君同年 李君執友 爲政俱有廉勤聲 庚寅仲夏記

37) 『목은문고』 권1, 기.

에 제사(題辭)를 서 주었더니 호연(浩然)이 말하기를 “나의 이름과 자가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나 내가 거친 들판에 도망하여 취성(驚城)의 당화(黨禍)를<sup>38)</sup> 피했으니 그 고생스러운 모양은 아무리 참을성 있는 자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이 「둔(遁)」의 힘이다. 무릇 속손(叔孫)이 적을 이긴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이것은 대개 그 기쁨 때문인 것이다. 자식은 자기의 몸에서 나누어진 것인 데도 오히려 또 이름을 지어서 그 기쁨을 나타냈으니 더구나 내 한 몸에 있어서이겠는가. 이제 내가 이름과 자를 모두 고쳤으니 이것은 내가 다시 처음이 된 것이다. 그러니 둔(遁)이 나에게 덕(德)이 되게 한 것을 장차 내 몸을 마칠 때까지 잊을 수 없다. 그런 연유로 내가 사는 곳을 「둔촌(遁村)」이라 했다. 이것은 둔을 덕(德)으로 생각한 까닭이며 또한 그 위험한 데에서 나와서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생각해서 스스로 권면하고자 함이다. 대개 둔(遁)이란 것은 도리에 맞는 말(知言)의<sup>39)</sup> 하나이다. 하지만 그 뜻은 깊어 이와 같이 취했으니 오직 선생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시어 두세 번의 피로우심을 잊으시고 끝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자네가 맹자(孟子)에 대하여 진실로 맛을 알고 즐거워하니 그 성인(聖人)의 도를 구해 보는 데에 거의 가깝다. 그런

38) 신돈에 의한 화를 지칭함.

39) 『맹자』에 있는 말로 도리에 밝음 날을 뜻함.

이유로 내가 다른 글을 상고해 보지 않고 맹자의 글을 가지고 그 말을 끝내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순(舜)이 천자(天子)가 되고 고요(皐陶)는 관리가 되었을 적에 고수(瞽瞍)가 살인을 하였다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물으니, 맹자가 이르기를 남몰래 어버이를 업고 도망가 바닷가에서 살면서 혼연히 기뻐하며 천하의 일을 잊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임시로 만들어진 말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지를 당했더라면 이렇게 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호연(浩然)이 화를 당한 것은 비록 자기가 한 소치이다. 하지만 부모가 늙고 자식은 어린데, 이들을 업고 끼며 손을 잡고 낮에는 숲속에서 숨어 있고 밤에는 비와 이슬을 맞으면서 험한 산골짜기 속을 헤매면서도 오히려 뒤에서 쫓아오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려 아내나 아들을 보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경계하였다. 그의 도망함은 역시 참혹하다고 하겠다. 이는 마땅히 꿈속에서도 놀라고 깨어서고 역시 놀랄 일이다. 그런데도 바야흐로 그는 또 의기가 양양하여 안으로는 자기 몸이 즐거워하고 밖으로는 이것을 남에게 자랑한다. 그러니 호연(浩然)이야말로 참으로 비상한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주장하는 바가 있어 그 이름을 헛되게 얻은 것이 아닌 것이다. 맹자가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려면 반드시 그 몸을 굽주리게 하고, 행동을 어지럽게 해서 그의 능하지 못한 바를 능하게 하여 준다고 했다. 호연이야말로 이렇게 그 몸을 굽주리게 하고 그 행

하는 길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그에게 큰 책임을 내린다는 것을 꼭 기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호연이 둔촌에서 몸을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할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그곳의 강산(江山)이나 풍경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그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글을 읽는 즐거움에 대하여는 호연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지이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쓰지 않는다. 창룡(蒼龍) 정사(丁巳)년 9월에 쓴다.<sup>40)</sup>

40) 廣李氏 既取孟子集義之集 爲名而取浩然之氣 爲字 星山李子安 說其義 予又題辭其後以與與之 浩然曰 吾名吾字 既受教矣 吾之遁于荒野 以避驚城之黨之禍 艱行之狀 雖驚忍者聞之 不能不動乎色 雖然 吾之所以得至今日 遁之力也 夫叔向勝敵以名其子 蓋喜之也 子身之分也 猶且名之以志其喜 況吾一身乎 今吾既皆更之 則我之再初也 遁之德于我也 將終吾身而不可忘焉者 故名吾所居曰 遁村所以德其遁也 亦欲寓其出險不忘險之意 以自勉焉 蓋遁者 知言之一也 而義則竊取之如是 惟先生哀憐之 忘其再三之瀆 以終惠焉 予曰 子於鄒國之書 誠味而樂之矣 其求觀聖人之道 殆庶幾乎 予故不徵他書 就孟子以舉其說 或問 舜爲天子 臯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 孟子曰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訖然樂 以忘天下 此雖說辭 處之 不過如此爾 浩然之禍 雖自其身致之 親孝子幼 抱負携持 晝歲榛葬 夜犯兩露 埼嶇山谷之中 猶恐迫者踵至 屏氣縮縮 戒妻子 無敢出聲 其遁也 亦慘矣 時宜夢驚 而悟愕也 方且揚揚焉 內以樂於己 外以誇於人 浩然信非尋常人矣 其中 必有所主 而名不虛得矣 孟子曰 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將餓其體膚 行拂亂 其所爲增益其所不能 浩然 信乎餓其體膚矣 拂亂其所爲矣 則其降大任也 又信乎其可必也 予恐浩然之不得終身於遁村也 若其江山風物之膳朝耕夜讀之樂 浩然自有地矣 故不詳著云 蒼龍丁巳九月記

여 백

## 『世宗實錄地理志』

廣州牧(광주목)

목사(牧使) 1인, 판관(判官) 1인, 유학 교수관(儒學教授官) 1인.

백제 시조(百濟始祖) 온조왕(溫祚王)이 한(漢)나라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B.C.18) 계묘에 국도(國都)를 위례성(慰禮城)에 세웠다가, 13년 을묘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매, 한수(漢水) 남쪽의 땅이 기름지고 걸으니, 마땅히 여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 하고, 드디어 한산(漢山) 아래에 나아가 목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병진 정월에 도읍을 옮기고 남한성(南漢城)이라 하다가, 376년을 지나 근초고왕(近肖古王) 24년 신미년 곧, 동진(東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 도읍을 남평양(南平壤)에 옮기고 북한성(北漢城)이라 하였다. 당(唐)나라 고종(高宗) 현경(顯慶) 5년 경신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치는데, 신라 태종왕(太宗王)이 김유신(金庾信)을 보내어 협공(夾攻)하여 (백제를) 멸하고, 당나라 군사가 다 돌아

가매, 문무왕(文武王)이 차츰 그 땅을 거두어 차지하여, 3년 갑자인 인덕(麟德) 원년 한산주(漢山州)로 고치고, 8년 경오인 함형(咸亨) 원년 남한산주(南漢山州)로 하였다가, 경덕왕(景德王) 15년 정유 곧 당나라 숙종(肅宗) 지덕(至德) 2년 한주(漢州)로 고쳤다. 이어 신라가 이미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매, 신문왕(神文王)이 비로소 신라 경내의 사벌(沙伐)·삽량(插良)·거열(居列)의 3주(州)와 백제의 옛땅 웅천(熊川)·완산(完山)·무진(武珍)의 3주와 고구려의 옛땅 한산(漢山)·우수(牛首)·하서(河西)의 3주로써 구주(九州)의 수를 갖추었는데, 경덕왕 때에 이르러 구주(九州) 및 모든 군현(郡縣)의 이름을 모두 고치었으므로, 뒤에 대개 신라가 고쳐서 모모(某某)로 하였다고 한 것은 모두 이 해의 일이다. 고려 태조(太祖) 23년 경자인 진(晉)나라 고조(高祖) 천복(天福) 5년 광주(廣州)로 고치고, 성종(成宗) 2년 계미인 송(宋)나라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 처음으로 12주·목(州牧)을 두니, 광주가 곧 그의 하나이다. 성종 14년 을미인 송나라 지도(至道) 원년 12절도사(節度使)를 두고 광주봉국군 절도사(廣州奉國軍節度使)라 하였다가,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절도사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고치고, 9년 무오에 곧 송나라 진종(眞宗) 천희(天禧) 3년 8목(牧)을 정해 둠에 따라, 광주목(廣州牧)이 되었다.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別號)는 회안(淮安)이다. 성종(成宗) 10년 신묘에 주군(州郡)의 별호(別號)를 정하였는데, 광주를 회안(淮安)이라 하니, 곧 송나라 태종(太宗) 순화(淳

化) 원년이다. 뒤에 순화(淳化)에 정한 바라 한 것은 모두 이를 말함이다.

검단산(黔丹山)은 주 동쪽에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진산(鎭山)이라고 일컫는다. 도미진(渡迷津)은 주 동북쪽에 있으며, 나룻배가 있다. 그 서쪽을 진촌진(津村津)이라 하며, 주 북쪽에 있으니, 나룻머리에 수참(水站)을 두었고, 참선(站船)이 15척이다. 또 그 서쪽에 광진도(廣津渡)가 있다. 도승(渡丞)이 있어서 사람의 드나드는 것을 조사하는데, 좌도수참 전운관관(左道水站轉運判官)이 겸하여 조운(漕運)을 관장한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근(楊根) 용진(龍津)에 이르기 30리, 서쪽으로 과천(果川)을 지나서 수원(水原) 경계의 성곶(聲串)에 이르기 85리, 남쪽으로 이천(利川)의 양지(陽知)에 이르기 45리, 북쪽으로 양주(楊州)에 이르기 11리요, 동서(東西)가 115리, 남북(南北)이 56리이다.

헌릉(獻陵)은 태종 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과 원경왕후(元敬王后)를 합장하였다. 주(州) 서쪽 대모산(大母山)의 양지쪽 건해산(乾亥山)에 있으니, 건좌손향(乾坐巽向)이다. 능 앞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능직(陵直)·권무(權務) 2인과 수호군(守護軍) 1백 호를 두고, 매 호마다 쌀 2결(結)을 주었다.

문묘(文廟) : 주(州) 북쪽에 있다. 나라에서 각 도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모두 문묘를 두고 향교(鄕校)라 한다. 그 생도(生徒)의 액수(額數)는, 유수관(留守官)에는 50명, 목(牧)과

도호부(都護府)에는 40명, 군(郡)에는 30명, 현(縣)에는 15명으로 하며, 제전(祭田)·학전(學田)과 노비(奴婢)를 주는데, 각기 차이를 둔다. 도호부(都護府) 이상은 모두 교수관(教授官)을 두고, 군과 현에는 혹은 교수관, 혹은 교도(教導)를 두며, 만일 민호(民戶)가 5백 호가 차지 못하면 학장(學長)을 두어 생도들을 가르치게 한다. 뒤에는 각 고을에 다시 문묘를 적지 아니한다

호수는 14,036호, 인구는 3,110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122명이고, 선군(船軍)이 263명이다. 잡색군(雜色軍)은 다 토정(土丁)을 뽑아 군사를 삼았으므로 같이 적지 아니한다. 나머지 고을도 모두 이와 같다

토성(土姓)이 3이니, 이(李)·안(安)·김(金)이요, 가속성(加屬姓)이 3이니, 박(朴)·노(盧)·장(張)이요, 이 6성은 옛 문적과 지금의 본도(本道) 관록(關錄)에 의거한 것이며, 그 가속성(加屬姓)이란 것은 옛 문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망성(亡姓)이 5이니, 윤(尹)·석(石)·한(韓)·지(池)·소(素)이다. 대개 망성(亡姓)이라 한 것은 옛 문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음을 이름이니, 뒤에도 모두 이와 같다.

땅은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서로 반반 되며, 간전(墾田)이 16,269결(結)이다. 논이 4분의 1이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五穀)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모든 책이 같지 아니하다. 오직 『주례(周禮)』 직방씨(職方氏)에 “예주(豫州) 땅에 곡식의 5종류가 알맞게 된다” 함에, 안사고(顔師古)가 주를 내되, “기장·피·콩

· 보리·벼"라 하였고, 주자(朱子)가 『맹자』의 오곡을 주내되, 안 사고의 말을 좃았으므로, 이제 그를 따른다.

잡곡(雜穀)과 대추·칠·닥·왕골·뽕이요, 토공(土貢)은 느 타리(眞茸)요, 약재(藥材)는 돌고드름·안식향(安息香)·사자발쑉(獅子足艾)·현호색(玄胡索)·진봉이요, 토산(土產)은 은구어(銀口魚)이다. 주 서쪽 어원(御院) 앞내에서 난다. 염소(鹽所)가 1이 요, 분(盆) 1, 구(區) 2이다. 자기소(磁器所)가 4이니, 하나는 주(州) 동쪽 벌내(伐乙川)에, 상품(上品) 하나는 주(州) 동쪽 소산(所山)에, 하나는 주(州) 남쪽 석굴리(石掘里)에, 모두 하품(下品)이다. 하나는 주(州) 동쪽 고현(羔峴)에 있다. 도기소(陶器所)가 3 이니, 하나는 주(州) 남쪽 초현(草峴)에, 중품(中品) 하나는 주(州) 동쪽 초벌리(草伐里)에, 하나는 주(州) 서쪽 배곶이(梨串)에 있다. 모두 하품(下品)이다.

일장산성(日長山城)은 주치(州治)의 남쪽에 있다. 높고 험하 며, 둘레가 3,993보요, 안에 군자고(軍資庫)와 우물 7이 있는데, 가물을 만나도 물이 줄지 아니한다. 또 밭과 논이 있는데, 모두 124결(結)이다. 『삼국사(三國史)』에는,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비 로소 한산(漢山)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고 하였다.

역(驛)은 4곳이 있는데, 덕풍(德豊)·경안(慶安)·봉안(奉安)· 낙생(樂生) 옛 안박이다. 목장(牧場)은 2이니, 하나는 주(州) 서 쪽 마전포(麻田浦)에, 둘레 20리 하나는 주(州) 서쪽 조포평(助布坪)에 있고, 둘레 18리 봉화(烽火)가 1곳이니, 천천산(穿川山)은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주(州)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 용인(龍仁)의 석성(石城)에 응하고, 북쪽으로 서울 목덕산(木覓山)에 응한다.

관할은 도호부(都護府)가 1이니 여흥(驪興)이요, 군(郡)이 1이니 양근(楊根)이요, 현(縣)이 6이니 음죽(陰竹)·이천(利川)·과천(果川)·천녕(川寧)·지평(砥平)·금천(衿川)이다.

## 『新增 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동(東)은 양근군(楊根郡) 경계(境界)까지 25리, 여주 경계까지 75리, 남은 이천부(利川府) 경계까지 74리, 양지현 경계까지 85리, 용인현 경계까지 43리, 서는 과천(果川)현 경계 양재역(良才驛)까지 27리, 안산군 경계까지 76리, 북은 양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10리, 서울에서의 거리는 41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는 백제의 남한산성이다.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 13년에 위례성(慰禮城)으로부터 이 곳에 도읍을 옮겨왔고, 근초고왕(近肖古王) 26년에 또 도읍을 남평양성으로 옮겼다. 지금의 경도(景都).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쳐서 없애고, 당나라 군사가 돌아간 뒤에 신라가 그 땅을 점차 거두어 남한산성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을 고쳐 한산주라 하고, 또 남한산주라고도 불렀다. 경덕왕(景德王) 15년에는 한주(漢州)라 고쳤고, 고려 태조 23년에는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성종(成宗) 2년에 처음으로 12목(牧)을 두었는데, 광주는 그 하나이다. 14년에 절도사를 두어 봉국군(奉國軍)이라 이름하고 관내도(關內道)에 예속시켰다. 현종(顯宗) 3년에 폐하여 안무사가 되었다가 9년에 8목을 정할 때에 다시 목이 되었다. 본조에서는 이것을 따랐다. 세조 때 진(鎭)을 두었다.

진관(鎭管)

목 1. 여주도호부 1. 이천군 1. 양근현 5. 지평(砥平)·음죽(陰竹)·양지(陽智)·죽산(竹山)·과주(果州)

관원(官員)

■ 목사 1명, 종3품이다. 여러 목도 같다.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를 겸하였는데, 여러 도와 여러 진(鎭)이 같다.

■ 판관(判官) 1명, 종5품으로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衛)를 겸하였는데, 여러 도와 여러 진이 같다.

■ 교수(教授) 1명, 종 6품이다. 여러 도의 도호부 이상은 모

두 같다.

**신증** 연산(燕山) 11년에 이 주의 사람으로 난언(亂言)한 자가 있어 본주(本州)를 혁파하였더니, 지금 임금 초년에 복구하였다. 6년에는 주가 잔악하고 피폐함으로써 판관(判官)을 폐지하였다.

군명(郡名)

남한산(南漢山) · 한산주(漢山州) · 한주(漢州) · 회안(淮安) · 봉국군(奉國軍)

성씨(姓氏)

(본주) 이(李) · 윤(尹) · 석(石) · 한(韓) · 안(安) · 김(金) · 지(池) · 소(素) · 노(盧) · 장(張) · 박(朴)이다. 아울러 속한다.

풍속(風俗)

상기사독서사(尙騎射讀書史): 『수서(隋書)』에 “백제의 풍속에 말을 타고 활을 쏘기를 숭상하며, 서사(書史)를 많이 읽어 행정

##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의 일에 능하고, 또 의약과 점치고 관상보는 법을 안다”고 하였다. 혼인의 예절은 대략 중국과 같다.(위와 같다) 양손으로서 땅에 디딤을 공경으로 삼는다.(위와 같다) 의복은 정결하다 : 『남사(南史)』 삼년거복(三年居服), 『북사(北史)』에 “부모 및 남편이 죽은 자는 3년 동안 복을 입고, 나머지 친척은 장사를 치르면 복을 벗는다” 하였다.

## 형승(形勝)

한수(漢水)의 남쪽에 토양이 기름지다. 백제 시조 온조의 말이다. 고적(古跡) 편에 나타나 있다. 면이 모두 높은 산이다. 이곡(李穀)의 청풍정기(淸風亭記).

## 산천(山川)

- 검단산(黔丹山) : 주 동쪽 7리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다.
- 청계산(淸溪山) : 주 서쪽 50리에 있는데, 또 과천현 편을 참조하라.
- 대모산(大母山) : 주 남쪽 30리에 있다.
- 일장산(日長山) : 주 남쪽 5리에 있는데, 일명 남한산이라고도 한다.

■ 조곡산(早谷山) : 주 동쪽 30리에 있는데, 일명 초동산(草洞山)이라고도 한다.

■ 문현산(文懸山) : 주 남쪽 45리에 있다.

■ 천천현(穿川峴) : 주 서쪽 30리에 있다.

○ 승려 선탄(禪坦)의 시에 “관산(關山)은 아득히 멀고, 길은 굽이굽이 들었는데, 걸음이 양주에 가까우니 안계(眼界)가 점점 열리는구나. 삼산(三山)이 본래부터 친함이 있는 듯, 은근히 백리에 강을 건너움을 깊이 사례하노라” 하였다.

■ 영장산(靈長山) : 주 남쪽 20리에 있다.

■ 운길산(雲吉山) : 주 동쪽 30리에 있다.

■ 수리산(修理山) : 주 서쪽 60리에 있다. 또 과천현 편에 보라.

■ 대해산(大海山) : 주 남쪽 50리에 있다.

■ 군월라산(軍月羅山) : 주 동쪽 15에 있다.

■ 원적산(元寂山) : 일명 무적산(無寂山)으로 주 동쪽 60리에 있다.

■ 대쌍령(大雙嶺) : 주 동쪽 40리에 있다.

■ 소쌍령(小雙嶺) : 주 동쪽 45리에 있다.

■ 가정령(佳丁嶺) : 주 동쪽 45리에 있는데, 성종(成宗)의 어태(御胎)를 봉안했다.

■ 이령(梨嶺) : 주 남쪽 30리에 있는데, 지금 임금의 어태를 봉안했다.

- 추령(楸嶺) : 주 남쪽 47리에 있다.
- 망월봉(望月峰) : 주 서쪽 10리 몽촌(夢村)에 있다.

○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긴 바람에 배부른 듯으로 한수(漢水)에 급히 달려,  
산중으로 돌아오니 술이 처음 익었네.  
마른 창자에 술이 들어가니 또한 쉽게 취하는구나.  
두 귀가 취중에 쩡 울리며 흥이 스스로 죽하니,  
술 두루미를 옮겨 몽산 머리에 날아 올라가,  
슬쩍 눈을 동쪽 봉우리로 돌려 새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본다.  
새 달이 넘실넘실 구름 끝에 나오니,  
빙륜(氷輪)이 둥그러운데, 금물결 무늬 일렁거리네.  
잠깐 사이 하늘 중앙에 달려 있으니,  
구주(九州)와 사해(四海)가 모두 맑은 빛이네.  
잔을 들어 달에게 물어도 달은 응하지 아니 하는데,  
돌아보니 토끼가 나의 청광(淸狂) 많음을 웃는구나.  
옛 사람이 달을 사랑하는 이는 모두 유선(儒仙)이라,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지 천년이나 되었네  
적벽(赤壁) 어느 시절에 검은 학이 춤추었더냐,  
백중(伯仲)되는 호걸 기운이 천하의 제일이었네.  
한 두루미 술이 넘실넘실 강과 같이 다함이 없으니  
지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지 않을까.  
오경 밤이 깊어도 달을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가(四佳) 취한 늙은이 머리가 반백일세

- 구질포(仇叱浦) : 서쪽 90리에 있다.

- 이관포(梨串浦) : 주 서쪽 88리에 있다.
- 조포평(助布坪) : 주 서쪽 30리에 있는데, 옛 목장이다.
- 탄천(炭川) : 주 남쪽 30리에 있는데, 삼전도(三田渡)로 들어간다.
- 소천(小川) : 주 동쪽 30리에 있는데, 도미진(渡迷津)으로 들어간다.
- 독포(秃浦) : 주 북쪽 11리 도미진 하류에 있다. 양주 편을 참조하라.

○ 이색(李穡)의 시에

독포 모래 가에 어둠 빛이 닥치니,  
먼 산과 편평한 들의 형세가 굽이쳐 뻗었네.  
뱃사람이 닻줄을 걷어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서,  
달이 양주에 밝은데, 마침 시를 지었네.

- 세고탄(洗姑灘) : 주 서쪽 15리 광진(廣津) 하류에 있다.

○ 서거정의 시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새색시 얼굴이 꽃과 같은데,  
어릴 적부터 빨래하여 생활하였네  
아침에는 흰쌀을 씻으니 눈빛과 같고  
저녁에는 흰 팔을 씻으니 서릿발과 같네  
아침과 저녁마다 씻고 또 씻으니  
한 물이 스스로 깨끗해짐을 마음으로 스스로 만족하리.  
흰 실을 내리니 빙사(氷絲)가 더 희고

밤마다 흰 달 아래 찬 북(梭)을 올리네  
가는 비단을 짜고 재단하여 옷을 만드니  
교초(蛟綯)보다 가늘고 월사(越紗)보다 가볍네.  
강물이 맑고 또 잔잔함이어  
날마다 눈을 내리어 설 때 없어라.  
씻기 끝나매 소담(談)한 화장이 물아래에 비추니  
소아(素娥: 월궁의 선녀)도 깨끗함을 사양하겠고  
강비(江妃: 강의 선녀)도 부끄러워하겠네.  
문득 미친 바람이 있어 천지가 어두우니  
티끌이 아득하여 갈 곳을 잃었네.  
허둥지둥 진흙물 가운데서 당황하니,  
옥질(玉質)은 이미 잘못되어 옷도 검어졌네.  
시누이가 문에 나와 새색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새색시는 빨래하는 것이 이리 왜 더딘가  
새색시가 돌아오매 시누이는 손뼉치며 웃되,  
추악하여 우리 집 시(施)가 아니라 하네  
시누이의 나이는 겨우 13세,  
이 때에 철이 아직 안 들었네.  
시누이야, 시누이야 새색시를 웃지 말아라  
이 한을 너도 혹 알게 되리라

■ 도미진(渡迷津) : 주 동쪽 10리, 양근군 대탄(大灘) 용진(龍津) 하류에 있는데, 그 북쪽 언덕을 도미천(渡迷遷)이라 한다. 동쪽으로 봉안역을 향하여 돌 길이 7~8리나 빙빙 돌렸는데, 신라 방언(方言)에 흔히 물 언덕 돌길을 천(遷: 베투)이라 불렀다. 뒤에 나오는 것도 이에 의한다.

○ 고려 한수(韓脩)의 시에,

햇별이 잠깐 움직이자 오는 바람이 부드럽고,  
하늘 그림자는 멀리 비추었는데, 뜻은 한가히 가네.  
머리를 돌려 은근히 삼각산을 이별하되,  
달이 아직 반쯤 등글기 전에 내가 돌아오리라.

○ 권우(權遇)의 시에,

산허리 구불구불 사닥다리 길 비졌는데,  
가다가 길 다한 곳에 사람 집이 있구나.  
하늘은 차고 날은 저물어 바람은 급하게 부는데,  
머리 돌려 긴 강을 바라보니 물결이 꽃을 피우네

■ 광진(廣津) : 주 서쪽 18리 독포 하류에 있다. 또 양주 편을 참조하라.

■ 삼전도(三田渡) : 주 서쪽 18리에 있는데, 한성부(漢城府) 편에 자세히 있다.

토산(土山)

실(絲) · 삼(麻) · 자기(磁器) : 해마다 사옹원(司饗院) 관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인솔하고 가서 궁중에서 사용할 그릇을 감독하여 만든다. 도기(陶器) · 은구어(銀口魚) · 놀어(訥魚) · 금린어(錦鱗魚) · 게(蟹)

봉수(烽燧)

■ 천천현봉수(穿川縣烽燧) : 남쪽으로는 용인현(龍仁縣) 보개산(寶蓋山)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서울 남산 제2봉수에 응한다.

누정(樓亭)

■ 청풍루(淸鳳樓) : 객관 동북쪽에 있는데, 옛 청풍정이다. 목사 홍석(洪錫)이 다시 지어 누로 만들었다.

○ 이곡(李穀)의 기문에, “지정(至正) 기축(己丑)년 여름 4월 어버이를 뵈러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낙생역(樂生驛)에 이르니, 광주목사 백군화(白君和)가 글을 보내 초청하여 말하기를, ‘관사의 북쪽에 옛날의 청풍정 터를 찾아 네 기둥을 세워 집을 지었는데, 실로 한 고을의 제일 가는 명승이라, 기문(記文)을 지어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나는 갈 길이 바빠 우선 말하기를, ‘훗날 서울에 돌아갈 때에 한 번 가서, 눈으로 보고 기를 지어도 아직 늦지 않을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듬해에 광주에 이르니 백군은 이미 조정에 불러 들어갔고, 이군 모(某)가 대신 임명된 지 반 년이나 되었다. 때는 바야흐로 혹심한 더위라 허덕이는 숨길이 실 끝과 같았다. 이에 이른바 청풍정에 올라 기둥에 기대어 옷깃을 헤치니, 정신이 맑고 상쾌해지며 모발(毛髮)이 선들선들하여져, 더러운 데서 매미가 허물을 벗고 티끌 밖으로 나온 것 같았다. 이군

은 술을 장만하고, 조용히 말하기 '네 기둥의 제도는 간소하기는 간소합니다만 아침저녁에 해가 쬐고, 동쪽·서쪽으로 빗발이 치므로 앉아 노는 손님들이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그 두 옆으로 달아내어 남쪽 추녀를 지어 각각 5자씩이요, 북쪽 또한 이와 같이 하니 약간 넓어지고 또 깊어졌습니다. 벌써 흙손질을 끝내고 장차 단청을 하려는 참인데, 선생께서 마침 이르러 오시니 어찌 술잔을 들어 낙성(落成)하고, 연월을 써서 기록하며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내 이미 전에 백군에게 허락하였는지라, 이에 정자가 폐한 지가 몇 해인가 물었으나 부로(父老)들이 아는 자 없으니 오늘날 폐한 정자를 일으킴이 사실에 있어서는 새로 세움과 같다. 춘추(春秋)에 공사(工事)한 것을 쓴 것은 안 할 공사를 하였다고 한 것도 있고, 논어(論語)에, 노(魯)나라 장부(長府: 국가의 창고)를 하필 다시 지으리요 라는 말도 있으니, 성인이 가르침을 드리우신 뜻이 깊다. 내가 광주의 형세를 보매 3면은 높은 산이요, 북쪽은 비록 트여서 넓으나 지세가 낮아서, 공청이나 백성의 집이 우물 밑에 있는 것 같아, 손님들이 오면 낮고 누추하다고 불편하게 여길 것이나, 지척(咫尺) 사이에 이와 같은 시원한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매, 이 정자를 지음이 춘추의 폼(貶)한 예에 들지 않을 것이다. 내 이에 기문을 쓴다. 청풍(淸風)이란 뜻은 백군의 말에 「다하였음에 내 다시 보태지 아니한다」 백군은 동년(同年) 이군의 벗인데, 정사함에 모두 청렴하고 부지런하다는 칭찬과 평이 있다" 하였다.

○ 권담(權湛)의 시에,

바람이 장미를 흔드니 벌써 꽃이 떨어졌고,  
녹음이 땅에 가득하니 한이 왜 이다지도 많은가.  
젊었을 때 이 누(樓)의 달 아래에서 노래하며 춤추었더니,  
10년만에 돌아오매 두 귀밑 털이 희었네

■ 무진정(無盡亭) : 주 서쪽 15리, 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의 별장에 있다.

○ 최항(崔恒)의 시에,

하늘이 기이한 지경을 아꼈다가 호걸과 영웅에 부쳐 주니,  
한없는 기관(奇觀)이 한강 동쪽을 다 차지하였네.  
봄비에 바다 갈매기 난간 밖을 의지하고,  
저녁 노을과 따오기가 술잔 속에 들어오네.  
우연히 오는 죽백(竹帛)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 되겠소.  
늪어감에 강산의 흥이 무궁하네.  
저는 나귀를 거꾸로 타니 가는 곳마다 좋고,  
돌아올 줄 아는 지친 새와 같을까  
푸른 도롱이에 취한 몸을 붙들어 어부를 따르고,  
흰 샷갓에 노래를 높이 부르며 소치는 젊은이와 짝하네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 돌아가면 갈 수 있을 것인데,  
부끄럽다. 내가 공연히 오호(五湖) 바람을 생각하네.

■ 압구정(狎鷗亭) :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두모포(豆毛浦) 남쪽 언덕에 정자를 지었다. 사신으로 명(明)나라에 들어가 정자의 이름을 한림학사(翰林學士) 예겸(倪謙)에게 청

하였더니, 예겸이 이름짓기를 「압구」라 하고 기문을 지었다. 그 후 을미년에 또 사신으로 명나라에 들어가 조정 선비들에게 시를 청하였더니, 무정후(武靖侯) 조보(趙輔) 등이 말하기를, “이 분이 압구정의 주인이다” 하고, 한 가지로 시를 지어 보는데, 정자 이름이 마침내 중국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 예겸의 기문에, “조선 왕성의 남쪽 십수 리에 물이 있는데, 한강이라 한다. 그 근원은 금강·오대 두 산으로부터 나와서, 모여서 긴 강이 되고 서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간다. 내 옛날에 조서(詔書)를 받들어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강 위에 이르러 정자에 올라 잔치하며 시를 읊었고, 또 배를 강 가운데에 띄우고 오르내리며 즐겼었다. 그 강은 넓고 파도가 아득하여 바람 뜻이 오가고, 갈매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시원하고 경치가 다함이 없어, 황홀히 창해와 한수(漢水)·면수(沔水)의 사이에 돛과 같아서, 몸이 동방의 조선에 머물러 있음을 잊어 버렸다. 이별한 지 10년에 매양 강 언덕의 풍치를 멀리 그리며 정신이 달려가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천순(天順) 원년 겨울에 조선의 이조판서 한명회 공이, 그 국왕의 명을 받들고 들어와 봉사(封事)를 천자에게 바쳤다. 공은 전에 별장을 한강가에 두고 정자를 그 가운데 지었으나,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내 전날 사신 가서 한 차례 놀음을 거쳤으므로, 그 좋은 경치를 안다 하여 사람을 시켜 나에게 이름을 청하고 인하여 기문 쓰기를 부탁하였다” 하였다. 내 이름 짓기를 「압구(狎鷗)」라 하고 이르기를, “갈매기는 물새의

한가한 자이다. 강이나 바다 가운데 빠졌다 떴다 하고, 물가나 섬 위에 날아다니는 것으로 길들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어찌 친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위태로운 기미를 보면 바로 날아 떠오르고, 공중을 휘 날은 뒤에 라야 내려앉는 것이니. 새이면서 기미를 보는 것이 이 같은 까닭으로, 옛날 해옹(海翁)이 아침에 해상으로 나갈 적에, 갈매기가 이르러 오는 수를 백으로 헤아린 것은 기심(機心)이 없는 까닭이요, 붙들여 구경하고자 함에 미쳐서는 공중에서 춤추며 내려오지 아니하니, 그것은 기심이 동했기 때문이다. 오직 기심이 없으면 갈매기도 자연히 서로 친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은 큰 키가 옥처럼 쪼고 거동과 풍도가 빼어났으며, 위대하여 번국(藩國)에서 벼슬할 때, 인재를 뽑아쓰는데 공명(公明)한 재주를 나타내었다. 천조(天朝)에 사신으로 오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예절로 삼갔고 나라에 돌아가매 등용됨이 응송할 것이니, 어찌 갈매기를 친압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정은 반드시 기심이 없는 뒤에 라야 서로 느끼고, 만사의 이치 반드시 기심이 없는 뒤에 라야 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호라도 사심이 불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기심이 진실로 없게 되면 조정에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친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자 없고, 이 정자에 오를 적에는 갈매기도 더불어 한가히 친압하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부귀와 이록(利祿)에 대하여서는 자신에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한다면, 이는 도(道)에 나아감이 높은 이가 아니겠는가. 정자를 이로써 이름함이 아마도 마땅할 것이다. 옛날 송나라 한

위 충헌공(韓魏 忠憲公)도 일찍이 정자 이름을 「압구」로 하였고, 구양 문충공(歐陽 文忠公)은 시를 지어 보내기를, 「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한 절개는 금석과 같아, 공훈과 덕이 함께 높아 예와 이체에 비치었다. 어찌 기성을 잊어 갈매기가 믿는 데 그치겠으랴.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본래 무심(無心)함이다」 하니, 충헌공이 시를 얻고 기뻐 말하기를 「여숙(永叔: 歐陽修의 자)이 나를 아누나」 하였다. 조선과 중국이 비록 같지 아니하나 사람의 마음은 같고, 고금(古今)이 비록 다름이 있으나 우리 도(道)는 다르지 아니하다. 내가 공에게 바라는 것도 자못 이와 같다. 공의 마음에도 역시 나더러 잘 안다고 할는지 모르겠다. 혹시 잘 안다고 여기거든 이 말로써 정자 가운데에 걸어 기문(記文)으로 삼으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 태복시승(大僕寺丞) 김식(金湜)의 시에,

초정(草亭)이 길이 한강을 대하여 열렸으니,  
엄자릉(嚴子陵)의 조대(釣臺)에 방불하는구나.  
다만 백구가 짝이 될 만하니,  
등한(等閑)히 날아왔다 또 날아오는구나.

○ 급사중(給事中) 진가유(陳嘉猷)의 시에,

한 정자 물과 구름 사이에 산뜻하고 깨끗하게 서 있는데,  
정자 밖 강 갈매기는 임의로 오가네.  
종일 서로 친하여 푸른 물가에 의지하였고,  
가끔 가다 가까이 날아와 붉은 난간에 서기도 하네

피차에 맹서 깊었으니 기심을 잊은 지 오래고,  
공무에서 아침저녁 퇴근하면 취미가 스스로 한가하네.  
아직 높은 관직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연내에는 명리(名利)와 이미 관계가 없어졌다네.

○ 급사중(給事中) 장녕(張寧)의 시에,

물과 구름 깊은 곳에 초정(草亭)이 그윽한데,  
손이 있어 기심을 잊어 흰 갈매기를 대하네.  
공명 다름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한가로움과 심사(心事)를 가지고  
더불어 부침(浮沈)하는 것을 배우지 말지어다.  
윤건(綸巾)과 우선(羽扇: 도인의 복색)으로 한가하게 이야기 할 만하고,  
부슬비와 비긴 바람에 늦도록 다시 머무네.  
좋을 써고 곡강(曲江) 누은(樓隱)한 곳에  
서로 부르고 서로 가까이함이 몇 가을이나 되었는데

○ 무정후(武靖侯) 조보(趙輔)의 시에,

그윽한 정자 높이 큰 강 동쪽을 굽어보는데,  
갈매기와 서로 기심을 잊어 즐거움에 다함이 없네  
뒀다 잠졌다 함이 때가 있음에 등등 제대로 말기고,  
오고 감에 스스로 걱정하는 생각이 없네.  
한가한 가운데 넉넉히 연파(煙波)의 흥취를 얻었고  
고요한 가운데 바야흐로 조화(造化)의 공을 알겠네.  
위국공(魏國公)의 청풍(淸風)을 이제 잇는 이가 있으나,  
나의 시는 구양공(歐陽公)에 끌리네.

○ 정서후(鄭西侯) 장완(張琬)의 시에,

현달한 사람이 그윽하고 고요함을 좋아하여  
정자를 꽃과 같은 물가에 지었네.  
수레바퀴 말발굽 소리는 멀어졌는데,  
맑은 비바람만이 때를 오고 가네.  
깨끗한 옥과 같은 새가 있어  
서로 대하여 얼굴을 화하게 함이 족하다.  
한 점의 눈은 청산을 깨뜨리고,  
모래에 새기니 푸른 이끼 얼룩진다.  
물결이 편평하니 마음대로 뗏다 꺼졌다 하고,  
화하게 울음 우니 소리 또한 관관하네.  
세한 세월과 한가지로 오래니,  
기심 잊어 흰 구름과 더불어 더불어 한가롭다.  
보통 새와 서로 어울리기가 부끄러워,  
소요(逍遙)하게 티끌 세상 밖에서 거니네.  
위국공이 가실 지 이제 천 년이 되나,  
높은 바람은 진실론 사모할 만하네.

○ 태자소보 겸 좌도어사(太子少保兼左都御史) 왕월(王鉞)의 시에

물 구름 고장 속에 초정이 그윽한데,  
정자 위에 앉은 사람이 마치 물위의 갈매기와 같네.  
티끌 세상 백년에 이런 낙이 없을 것이며  
연파(烟波) 만경(萬頃)에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구양자(歐陽子)의 품평을 이미 거쳤고  
충헌공(忠憲公)은 일찍이 은퇴할 것을 원하였네  
물(物)과 내가 서로 잊고 마음과 경계가 고요한데,  
한가한 가운데 소식은 봉후(封侯)보다 낫네.

○ 병부상서(兵部尙書) 항충(項忠)의 시에,

외로운 정자 푸른 물가에 몸이 흰 갈매기와 벗이 되네  
벼슬살이는 이미 꿈과 같으매 한가한 마음은 마치 구름 같은데.  
물결 빛은 대 자리(擎) 빛을 밝게 하고  
연꽃 기운은 향로의 향기와 섞였네.  
해옹(海翁)에게 말을 전하고자 하노니,  
기심 잊은 것은 이 분에게 돌려보내소.

○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郎) 등소(滕昭)의 시에,

작은 정자를 새로 낚시터 곁에 짓고,  
매양 때를 지어 나는 갈매기를 사랑하여 앉아서 돌아가지 아니하네.  
잔물결, 가벼운 바람에 등등 뜨고,  
외로운 부평초와 나무토막처럼 스스로 떠다니네.  
갈고리 낚시에 미끼를 달아 놓으니,  
앞을 다투어 서로 쪼아먹고, 돛대를 두들겨 소리나도 날아가지 아  
니하네.  
시험 삼아 묻나니 해옹은 어찌 이것을 얻었는데,  
원래 물(物)과 내가 한 가지로 기심을 잊었음이네.

○ 이부좌랑(吏部左郎) 유비(劉斐)의 시에,

그윽한 정자에서 강가를 굽어보니, 강물은 맑고 깊으니  
단정히 있으니 분위기 잡된 티끌을 물리쳤고,  
경치는 그윽함을 찾을 대로 찾았네.  
저 물결 위의 갈매기로 정자 이름 지으니,  
한가함이 내 마음과 같을세.  
서로 친하여 등등 뜨니 외로운 읍조림을 발하고,

아득하게 송설옹(松雪翁: 趙孟頫)을 생각하니,  
천년에 여운(餘韻)이 있네.

○ 호부낭중(戶部郎中) 이형연(李炯然)의 시에,

새로 모정(茅亭)을 푸른 강가에 지으니,  
들 갈매기 오가매 뜻이 더욱 깊으네.  
항상 작은 배에 의지하여 낚시 드리움을 보고,  
때로는 그윽한 창에 가까이 와서 거문고 타는 소리 들네  
한 가지로 연파(烟波)에 늑기로 응당 약속이 있으려다.  
강호(江湖)에서 서로 잊으니 모두 무심(無心)함일세.  
아 나는 밝은 시대에 애착되었으니,  
맹세를 어기어 오래 찾지 아니함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게.

○ 병부낭중(兵部郎中) 우면(于冕)의 시에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모든 생각이 멎어 있는데,  
한가한 정자에 날마다 모래 갈매기가 가까이 오네.  
인간에는 이 기사(機事)가 많음을 말하는데,  
나 홀로 무심하여 마음대로 가고 머물고 하네.

○ 병부 원외랑(兵部員外郎) 장여필(張汝弼) 시에,

봄바람은 두약주(杜若州: 향초)에 앉아서 늑으니,  
흰 갈매기 나를 잊고 나는 갈매기를 잊었네  
다시 한 점의 기심도 없으니,  
구름은 스스로 떠다니고 물은 스스로 가네.

○ 한림수찬(翰林修撰) 나경(羅璟)의 시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기심 잊은 사람은 일찍이 기심 잊은 새를 사랑  
한다 하더라.

사람과 새가 서로 잊어 아침저녁으로 좋은 맹약을 맺었네.

여기에다 이 정자를 지으니 높다랗게 강가에 임했네.

맑고 깨끗함이 침향(沈香) 아니라 경치는 하늘의 조화를 빼앗았네.

맑고 기이함이 산기슭에 비쳤는데, 모래 아득한데 구름과 안개 들  
렸네.

한 길이 대숲으로 들어가니, 오가는 차와 말도 적으며

연기 아득하니 호수가 맑고, 저자 머니 사람이 오지 아니하네.

달빛은 찬 물결 쳤는데, 풍광은 푸른 마름에 영기네.

눈을 멀리 들어 긴 하늘 향하여 돌아보니, 푸른 산아 작아보이네

누가 망기(忘機)의 짝을 알아 스스로 이름하기를 망기로(忘機老)라네.

한가로이 시를 읊조리다가 망기초(忘機草)에 누웠네

망기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망기함을 일찍 하겠는가

○ 교유(教諭) 오가립(郟可立)의 시에,

한 정자가 동쪽 가에 그윽하게 있으니,

못 갈매기 날마다 나와 친해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네

날아서 술자리에 떨쳐 도무지 피하지 아니하고,

물 난간에 다가드니 잘 길들인 것 같네

창파에 떠다니니 흰 털이 무거워짐을 아끼고,

말에 조니 눈(雪) 점이 새로움을 보겠네.

물건과 더불어 맹약을 맺으니 특히 탈속했구나.

이국(異國)엔들 어찌 사람이 없겠는가.

○ 진사(選士) 진승(秦昇)의 시에,

은은한 외로운 정자 푸른 물 흐름을 대하니

바다 갈매기는 나를 잊고 나는 그를 잊었네.  
모래 개니 비긴 난간에 가까워 편안히 즐고,  
구름이 따듯하니 항상 굽은 헌함을 돌면서 노는구나.  
달이 잠길 때를 당함에 금거울이 고요하고,  
물결 일어나는 곳을 밟으며 옥꽃이 뜨네  
호기있게 노저어 타고 봄 연기밖에 나가니,  
몇 번이나 쌍쌍이 나는 갈매기 뉘싯배와 친했던가.

○ 회계(會稽) 진지(陳贇)의 시에,

본뜻은 한가함을 좋아하는데, 빛나는 정자를 강가에 임하여 지었네.  
한가한 날 여기서 배회하니, 한가히 가슴이 트이네.  
고운 높은 물결 넘실거리고 넓은데, 맑은 물 흐름은 창을 들렀네.  
갈매기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떼지어 물가에 모이네.  
훨훨 날개는 날리고, 눈같이 희고 희어 서리 같은 것이 빛나네.  
문득 산란하게 나니 천 조각 배꽃이 춤추는 듯.  
처마에 가까이 가끔 오 가고, 물결에 목욕함에 임의로 노니네.  
우리들과 유가 되지 아니하고 원추 새와 해오라기와는 거의 짝이  
될 만하겠네.

고상한 사람은 진실로 즐거워 이것을 보고 깊이 깨달음을 얻으리라.  
피차가 둘 다 기심을 잊으니, 서로 보매 섬세한 티끌도 없네.  
기심(機心)이 조금이라도 싹트게 될 것 같으면 문득 날아갈걸세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은 물(物)과 더불어 항상 거스르지 않나니.

○ 호부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順)의 시에

산뜻한 초가집을 한강 동쪽에 지으니, 주인의 뜻 백구와 같네  
맹약(盟約)을 찾으며 즐겨 모랫가의 짝 백구를 저버리랴.

생각을 바꾸다가 해옹(海翁)이 매우 부끄럽네.  
나루의 천 이랑 물결은 떴다 잡졌다 하고,  
뉘싯배는 한줄기 실바람처럼 왔다갔다 하네.  
재상의 덕업이 앞 시대 뒷시대에 빛나니,  
정자와 이름만이 위공(魏公)에게 비할 뿐이 아니네

○ 신숙주(申叔舟)의 시에,

상당(上黨) 한후(韓侯)의 자는 자준(子濬)인데,  
머리 땅은 소년 때부터 같이 놀며 서사(書史)를 읽었네.  
장한 뜻은 우뚝우뚝하여 구속받지 아니하며  
그윽함을 찾고 외롭게 놀다가 (취미를) 산수에 붙였네.  
동중서(董仲舒)의 장막 15년에 경서를 안았는데,  
푸른 적삼 미관(徵官)이 될 말인가.  
대장부 뜻이 있으며 힘이 있는 것이니,  
하루아침 초려(草廬)에 풍운이 일어나네.  
용중(隆中)에 높이 누워 있으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니,  
곤어 봉새(鯤鵬)의 변화함이 참으로 잠깐 사이의 일  
손으로 햇바퀴를 떠받들어 하늘 운수 돌리니,  
하늘을 돌리고 북두(北斗)를 굴림이 한 번 돌아보는 동안일세.  
공훈과 이름 빛나고 빛나 한 몸에 있으니,  
소(蕭)·장(張)·구(歐)·등(登)<sup>1)</sup>을 죽히 헤아릴 것 없네  
고귀한 벼슬이 우연히 굴러 왔지 기약한 바 아닌데,  
세월은 쉬이 흘러 머물지 아니함이 괴롭네.  
평생에 맑은 마음을 임천(林泉)에 붙여,

1) 蕭河·張良·歐恂·登禹를 말함.

높은 정자를 지어 강가에 임했네.  
마음을 아는 것은 오직 흰 갈매기만 있을 뿐,  
날고 울며 서로 따르니 한가지로 한가로우네.  
옥 패물을 버리고 난지(蘭芷)를 바늘로 꿰어차니,  
한강의 연파(烟波)가 스스로 찰랑거리네  
공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이루어지매 번화(繁華)함이 싫어서,  
아침저녁 그윽한 생각 강에 있네.  
훈업(勳業)은 비단 동쪽 나라에 있을 뿐 아니라,  
성하고 아름다움이 스스로 천하에 퍼졌네.  
중국의 유로(儒老)들이 다투어 붓을 휘둘러  
그대를 위하여 서술하고 칭도하였네.  
세상 벼슬아치들은 공연히 떠들썩한데,  
남아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뭐라 하겠는가  
동방의 창생(蒼生)이 큰비를 기다리는데,  
어찌 능히 그대를 갈매기 떼에 두겠는가.  
아 갈매기야 서로 귀찮게 말아라,  
성주(聖主)님의 융숭한 총애가 오직 그대에게 쏟렸네

○ 안지(安止)의 시에,

한공의 아담한 취미 청한(淸閑)한 것을 사랑하여  
매양 강의 정자를 향하여 왔다갔다 하기를 좋아하네  
다만 늙은이의 눈 같은 귀밑 털을 드리운 것과 짝하는데,  
즐거 노래하는 기생들 어여빠 여기라.  
갈매기는 섬돌 밑 맑은 물에 길들었고,  
소라 같이 물가에는 점점(點點)한 산이 벌여 섰네.  
사직의 특수한 공을 어찌 말하랴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뜻대로 푸른 물 구비를 굽어봄이 무방하리라.

○ 성임(成任)의 시에

해를 하늘에 받들어 팔도(八道)에 비치니,  
공명은 드높이 기린각(麒麟閣)에 올랐네  
묘당(廟堂)에선 이미 경륜의 손을 피고는,  
오히려 갈매기를 짝하여 물가에서 희롱하네

○ 잠홀(簪笏)로

조용한 대궐에서 물러 나와  
신세를 물가에 붙였네  
옆 사람들이 부질없어 고기잡이와 나무꾼으로 보고,  
당시 조정 제일류를 몰라보네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압구정은 산 그윽한 곳에 있는데,  
아래 맑은 강이 있어, 만고에 흐르더라.  
상공(相公)이 여가를 얻어 거닐어,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니 마음이 한가롭구나.  
공명을 세상에 덮었으나 유후(留侯)를 봉함에 죽하고,  
부귀는 유연히 굴러 들어온 것이매 뜬구름과 같네  
몸이 한가함에 이에 빈배를 띄웠는가 의심하고  
기성을 잊었으니 강변의 갈매기를 친압할 만하구나.  
흰 갈매기 날아와 긴 물가에 희롱하니  
날개를 비비고 그림자를 희롱하며 울어 서로 화답하네.  
가끔 놀라 일어나 강가를 지나니,

맞은 언덕 바람이 창랑(滄浪)노래 보내네.  
상공이 난간에 의지하여 흥을 건잡지 못하니,  
건곤만리가 두 눈에 드는구나.  
물에서 헤엄치고 구름 속에 나는 것이 각각 자유로우니,  
강 위에 모든 물건이 시름없구나  
바람과 비는 때맞추어 순조로우니,  
남촌과 북촌에는 뽕과 삼이 풍년일세  
공(公)이 능히 이 같은 태평한 아름다움을 이룩하였으니,  
만년(晩年)에 조용히 노는 것을 얻으셨네.  
그대는 서린 용이 한 번 일어나면, 구주(九州)에 은택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삼농(三農)에 고무되어 해가 풍년이 들었네.  
돌아와서는 도리어 물고기와 짝하여,  
여의주(如意珠)를 안고 깊은 한 못 속에 폭 잠드네.

○ 이문형(李文炯)의 시에,

빛나는 정자 높이 한강 물가에 임하니,  
성남(城南)이 지척(咫尺)사이에 홍진(紅塵)이 막혔구나.  
목란주(木蘭舟)를 달밤에 띄우니 연기는 개울에 비끼고,  
버드나무 술집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비는 나무터에 어둡네.  
들 밖의 산 빛은 창을 벌여 놓은 듯,  
난간 앞 물결 그림자는 사람을 혼드네.  
안유(安劉)의 대업을 역사 전해 두고  
창주(滄洲)에 돌아와 흰 갈매기와 친하네.

○ 최경지(崔敬止)의 시에,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임금이 하루에 세 번이나 은근히 불러 보야 총애가 호뭇하니  
정자는 있으나 와서 노는 것이 없구나.  
가슴 가운데 기심만 끊어졌다면  
벼슬 바다 앞에서도 갈매기를 친압할 수 있으련만

향교(鄕校)

서쪽 2리에 있다.

○ 정이오(鄭以僞)의 시에

사문(斯文)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년에 드리우니,  
착하고 좋은 풍속이 고을에서 많이 나오리라.

역원(驛院)

■ 경안역(慶安驛) : 남쪽 50리에 있다. 본도의 속역은 7인데,  
덕풍(德豐)·양화(楊花)·신진(新津)·안평(安平)·아천(阿川)·오  
천(吾川)·유춘(留春)이다.

○ 역승(驛丞)은 1명이다.

○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紅巾賊)을 피하여 남으로 달  
아날 때에 이 역에 이르렀다. 중랑장(中郎將) 임견미(林堅昧)가  
채추(宰樞)에게 말하기를, “적이 이미 들어왔다. 임진(臨津) 이북  
은 우리 소유가 아니니 제도의 군사를 징집하여 적을 치자” 하였

으나, 재추들이 응하지 아니하므로 곧 눈물을 서 임금에게 아뢰  
었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작스러운 사이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복주(福州)로 피하였다.

■ 봉안역(奉安驛) : 주 동쪽 30리에 있다.

○ 권근(權近)의 시에,

옛 역정(驛亭)이 무성한 나무 사이에 열렸는데,  
느지막하게 서늘할 때에 와 쉬니 몸이 편안함을 깨닫겠네.  
산림(山林) 궁벽한 곳에 백성의 집이 적고,  
주전(廚傳)이 드물 때에 아전의 일이 한가하네.  
벼랑 길이 강을 굽어봄은 누가 험한 것을 뚫었는가?  
 시내 흘러 부딪치니 스스로 찬 기운이 생기네.  
내가 오매 대접한 것이 없었다 말하지 마라.  
말이 푸른 꼴에 배가 불렀으니 오히려 염치없다.

■ 낙생역(樂生驛) : 주 남쪽 45리에 있다.

■ 덕풍역(德豐驛) : 주 북쪽 5리에 있다.

■ 하진참(下津站) : 주 서쪽 20리에 있다.

■ 사평원(沙平院) : 한강의 남쪽 기슭에 있다.

○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피로한 말이 걸음도 느린데, 길은 험하고 길다.  
안장을 부리고 애로라지 여기에 머무르리라  
왕래하는 말들 길에 넘쳐, 처음엔 시끄러움을 싫어했더니,  
한 마리 학이 숲에서 우니 비로소 그윽함을 사랑하겠네  
만 길이나 되는 비교(飛橋)는 무지개가 꼬리를 들렀고,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천 척 늘어선 배는 열새 머리를 나란히 하였네  
고인(故人)이 보이지 아니 하니 슬픔이 더하다.  
떨어지는 해 아득한데, 누(樓)에 기대지 마소  
강어귀에 돛을 내리고 머뭇거리기 한참  
맑은 물에 가만히 수염을 세어 보네  
풀이 언덕 가에 어울려서 겨우 학이 숨을 만하고,  
밀물이 강가에 오매 오리를 영접하듯 하네  
뱃사공은 앉아서 물이 깊고 얇음을 알고,  
나룻 사람은 능히 바람이 있고 없음을 짐치네  
급히 흰 비단을 찾아 그림을 그려야겠으나,  
한 쌍 한가한 오리 쇠잔한 갈대 속에서 즐고 있네.

- 판교원(板橋院) : 주 남쪽 45리에 있다.
- 동양원(東陽院) : 주 서쪽 50리에 있다.
- 말을천원(末乙川院) : 주 50리에 있다.
- 황교원(黃橋院) : 주 동쪽 20리에 있다.
- 쌍령원(雙嶺院) : 주 동쪽 50리에 있다.
- 금척원(金尺院) : 주 동쪽 60리에 있다.
- 이부원(利夫院) : 주 남쪽 30리에 있다.
- 봉헌원(鳳獻院) : 주 서쪽 30리에 있다.
- 둔입원(菴入院) : 주 서쪽 30리에 있다.
- 대야원(大也院) : 주 남쪽 30리에 있다.
- 도미원(渡迷院) : 도미천에 있다.
- 인덕원(仁德院) : 서쪽 45리에 있다.

- 사근내원(沙斤乃院) : 주 서쪽 55리에 있다.
- 정금원(鄭金院) : 주 서쪽 25리에 있다.
- 광진원(廣津院) : 광나루 북쪽 언덕에 있다.

불우(佛宇)

- 신복선사(神福禪寺) : 이곡(李穀)이 지은 중영기(重營記)가 있다.
- 봉수사(奉水寺) : 모두 한산에 있다.
- 수리사(修理寺) : 수리산에 있다.
- 약정사(藥井寺) : 한산에 있다.
- 백종사(百種寺) : 주 북쪽 20리에 있다.
- 수종사(水鍾寺) : 조곡산(早谷山)에 있다.

○ 서거정(徐居正)의 시에,

가을이 오매 경치가 구슬퍼지기 쉬운데,  
묵은 밤비가 아침까지 계속되니 물이 언덕을 치네.  
하계(下界)에서는 연기와 티끌을 피할 곳이 없건만,  
상방(上方: 사찰) 누각은 하늘과 가지런하네.  
흰 구름(白雲)은 자욱한데,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런 잎이 휘날리니 길이 아득하네.  
내 동원(東院)에 가서 참선(參禪)을 이야기하려 하니,  
밝은 달밤에 피이한 새 울게 하지 말아라.  
용진강(龍津江) 위 옛 절을 찾으니,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구불구불 돌길이 푸른 삼나무로 들어갔네  
옛날 자주 영운(靈運)의 지난 것이 생각되고  
원공(遠公: 惠遠) 말을 못들은 지 오래이구나  
시냇가에선 바릿대(鉢)에 주문을 외우니 용이 응당 엮드릴 것이요  
돌 위에서 불경을 설(說)하니 호랑이 또한 참여하여 듣네  
흰 버선과 푸른 짚신을 신고 내 또한 있으니  
서로 만나 한 번 호계(虎溪) 남쪽에 웃어보세.

■ 백중사(伯仲寺) : 일명 암사(巖寺)이며, 하진참(下津站) 동쪽에 있다.

○ 서거정의 시에,

초제(招提)가 푸른 바람에 걸쳐 있으니,  
어느 날 금을 펴고 지었는고.  
낙엽은 쓰는 사람이 없는데,  
빈집에 오는 손님이 있네  
산 형세는 물에 이르러 끊겼는데,  
물 구비는 산에 부딪쳐 돌아 흐르네  
앉아서 고승(高僧)과 같이 말을 주고받으니  
마음이 스스로 티끌이 없어지네.

■ 봉은사(奉恩寺) : 저도(楸島) 남쪽에 있다.

사묘(社廟)

■ 사직단(社稷壇) : 주 서쪽에 있다.

- 문묘(文廟) : 향교에 있다.
- 성황당(城隍堂) : 주 남쪽 7리에 있다.
- 여단(厲壇) : 주 북쪽에 있다.

### 능묘(陵墓)

- 헌릉(獻陵)

주 서쪽 30리 대모산(大母山) 남쪽에 있다. 태종 공정대왕(太宗 恭定大王)의 능인데, 원경왕후(元敬王后)를 부장(附葬)하였다.

○ 변계량(卞季良)이 비명(碑銘)을 썼다.

하늘이 장차 큰 책임을 덕 있는 사람에게 내리려 함에 반드시 성자(聖子)와 신손(神孫)을 낳아서 큰 운수를 열고 넓은 복을 길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이 일어나심에 우리 태종으로서 아들을 삼고, 우리 전하(殿下: 세종대왕)으로서 손자를 삼으시니, 아, 성하도다. 어찌 인위(人爲)로 능히 된 것이겠는가. 하늘의 하심이다. 상(商)나라에 현성(顯聖)의 임금이 계속하여 일어남과 주(周)나라에 대왕(大王)·왕계(王季), 문왕·무왕이 서로 이어 받음과 무엇이 다름이 있겠는가. 신(臣)이 삼가 상고하건대 선원(璿源) 이씨는 전주의 드러난 성이니 사공(司空) 휘 한(翰)은 신라에 벼슬하여 종성(宗姓)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6세만에 휘 긍휴(競休)에 이르러 비로소 고려에 벼슬하였습니다. 13세에 태조의 고조부 목왕(穆王)에 이르러

원나라에 들어가 벼슬하여 천부장(千夫長)이 되어, 4대를 내리 습작(襲爵)하여 모두 아름다운 업적을 계승하였다. 원나라가 이미 쇠하자 할아버지 환왕(桓王)께서 돌아와 고려의 공민왕(恭愍王)을 섬기었으니, 공을 쌓고 인(仁)을 쌓았음이 그 유래가 오래였다.

우리 신의왕태후(神懿王太后)께서 지정(至正) 정미(丁未) 5월 신묘(辛卯)에 태종을 함흥부 후주(厚州) 사제(私第)에서 낳으시니, 우리 태조의 다섯째 아드님이시다. 나면서부터 신이(神異)하셨고, 점점 자라매 영특하고 지혜로움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었다. 글읽기를 좋아하셔서 공부간 날로 진보되어 나이 아직 20세가 못되어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셨다. 이때에 정사는 문란하여 민심이 이반(離叛)됨에 나라 형세가 위태로웠으므로 개연히 세상 건질 뜻을 두니 태조께서 사랑하시기를 여러 아들과 달리 하셨다. 일찍이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시중(侍中) 이색(李穡)과 함께 명나라 서울에 입조(入朝)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밀직사대언(密直司代言)에 이르렀다.

명나라 태조 홍무(洪武) 신미(辛未) 9월에 신의왕후께서 돌아가시매 제능(齊陵) 옆 여막을 지어 3년상을 마치고자 하셨는데, 임신년 봄에 태조께서 서(西)로 가셨다가 병을 얻어 돌아오시니, 와서 병간호를 하였다.

공양왕의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이 틈을 타 태조를 모함하여 태조의 병든 사세가 매우 급하였는데, 태종께서 사기(事機)에 응

하여 변고를 처리하여 그들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니 그들의 모락이 깨어졌다.

가을 7월에 여러 장수와 재상과 더불어 대의(大義)를 주창하고 태조를 추대하며 집을 화하여 나라로 만드시고 정안군(靖安君)에 봉함이 되셨다.

갑술년 여름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께서 태조에게 친아들을 보내 입조(入朝)하라고 명하니, 태조께서 우리 태종이 경서(經書)에 통하고 예의에 숙달하여 여러 아들 가운데서 가장 어질다 하시여 곧 파견하여 황제의 명에 응하였다. 이미 명나라 조정에 이르자 아뢰는 것이 황제의 뜻에 맞아 특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시었다.

무인(戊寅)년 가을 8월에 태조께서 병이 나오시매, 권신(權臣)이 어린 방석(芳碩)을 끼고 정권을 잡아 제 뜻대로 함부로 하려는 자가 있어 화(禍)가 곧 절박하였다. 태종께서 기미를 밝게 보시여 섬멸 제거하셨다. 이에 종친과 장상들이 모두 우리 태종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기를 청했으나 태종께서 굳이 사양하고, 공정대왕(恭靖大王)을 추천하여 태조께 청하고 세자로 책봉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켰다.

9월 정축(丁丑)일에 왕께서 병이 낫지 아니 하시므로 공정대왕에게 전위(傳位)하시었다. 건문(建文) 경진(庚辰)년 정월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가만히 방간(芳幹)의 부자를 꺾어 동기를 해치려고 꺾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자 태종께서 군

사를 거느리고 난을 평정하여, 박포는 베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놓아주고 방간은 안치(安置)하여 형제의 정의로 폐하지 아니하였다. 공정대왕께서 후사(後嗣)가 없으시고 또 나라를 창업하고 사직을 안정함이 모두 우리 태종의 공적이라 하시여 책봉하여 세자로 삼으셨다.

겨울 11월에 또한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태종에게 전위하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책명(策命)을 청하니, 다음해 신사(辛巳)년 6월 건문제(建文帝)가 통정시승(通政特丞) 장근(章謹) 등을 번갈아 보내어 고명(誥命)과 인장(印章)을 받들고 와서 우리 태종을 봉하여 왕으로 삼았다.

○ 겨울에 홍려시행인(鴻臚寺行人) 반문규(潘文奎)를 보내와 면복(冕服)을 주고 품질(品秩)을 친왕(親王)에 준하였다. 임오(壬午)년에 지금 황제께서 즉위하시매 태종께서 좌정승 신 하륜(河崧)을 보내 등극(登極)을 하례하니, 황제는 충성을 아름답게 여겨서 계미(癸未)년 4월에 고명(誥命)과 인장을 주셨다. 도지휘사(都指揮使) 고득(高得) 등을 보내와 그대로 왕을 삼았다. 가을에 한림대조(翰林待詔) 왕연령(王延齡)을 보내어 곤룡포·면류관·구장(九章: 제후가 입는 옷)과 금단(錦段)·사라(紗羅)·서적(書籍)을 주고, 태조께서는 금단·사라를, 원경왕태후께서는 관(冠)·포(袍)와 금단·사라를 각각 차등있게 하였다. 이때부터 그 뒤로는 황제께서 물건을 내림이 거듭되어 없는 해가 없었다.

을유(乙酉)년에 한양(漢陽)은 태조께서 도읍하셨던 곳이라 하

여 여러 신하의 의논을 물리치고 돌아왔다.

정해(丁亥)년에 황제께서 하정사(賀正使)로 입조(入朝)한 사신에게 이르기를, “조선국왕은 지성으로 대국을 섬긴다” 하였다. 이 뒤로부터 사신이 갈 때마다 매양 지성이라고 칭찬하였다.

무자(戊子)년 5월 태조께서 돌아가시니 슬퍼하시고 사모함이 망극(罔極)하셨고, 거상(居喪)을 하고 상사와 정사를 예로서 하셨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부고를 고하니 황제가 슬퍼하여 조회(朝會)를 철폐하시고 예부낭중(禮部郎中) 임관(林觀) 등을 보내어 대뇌(大率)로써 제사를 내리고, 시호를 강헌(康獻)이라 하고 또 태종에게 칙서(勅書)를 내려 후한 부의(賻儀)를 주셨다.

임진(壬辰)년 겨울에 (고려) 왕씨의 후예로서 민간에 숨어 있는 자가 있으며 어느 사람이 조정에 아뢰어 죽이기를 청하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왕의 일어남은 스스로 천명이 있는 것이다. 왕씨의 후손을 베인 것은 우리 태조의 본 뜻이 아니다”라 하시고, 이에 하교(下教)하여, “왕씨와 후예로 생존한 사람은 그들로 하여금 각각 생업에 편안하게 하라” 하셨다. 갑오(甲午)년 6월 일에 감로(甘露)가 함흥부 월광(月光) 구미리(仇未里) 및 정평(定平)의 백운산에 내렸다.

다음해 을미년 4월에 감로가 또 함흥부 덕산 동에 내리니 우리 동방에서 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라 정부에서 모두 전(箋)을 올려 하례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셨다. 무술(戊戌)년 6월에 세자시(禋)가 덕이 없으므로 폐하고 양녕대군으로 봉하고, 우리 전하

가 총명하고, 효제(孝悌)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름이 없으며, 나라 사람들이 촉망하므로 책봉하여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허락 하셨다.

이 해 8월에 우리 전하에게 선위하시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명(誥命)을 청하였다. 11월 우리 전하께서 책보(冊寶)를 받들어 존호(尊號)를 올리어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라 하였다. 다음해 정월에 황제 홍려시승(鴻臚寺丞) 유천(兪泉) 등을 보내어 고명을 받들고 와서 우리 전하를 봉하여 왕으로 삼았다.

5월 대마도(對馬島)의 왜가 국경을 침범하여 군사를 죽이고 영의정 신(臣) 유정현(柳廷顯) 및 장천군(長川君)과 신 이종무(李從茂)에게 명하여 해군으로서 가서 치게 하니, 섬 왜인들이 복종하여 전과 같았다.

8월에 황제께서 사신을 보내어 잔치를 내리니, 칙서에 대략 이르기를 “왕의 지성이 두터워 공경해 조정을 섬기고, 한 덕과 한 마음이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매, 능히 어진 이를 가리어 덕 있는 이를 명하여 종사(宗社)로 하여금 의탁이 있게 함으로서 나라 사람의 바람에 맞게 하였도다” 하고, 우리 전하에게 잔치를 내리시니, 칙서에 대략 이르기를, “네 아버지 도탑고 후하며 노성(老成)하여 천도(天道)를 공경하니, 충성스럽고 순한 정성이 갈수록 변하지 않는다” 하였다.

9월에 공정왕이 세상을 떠나자 참최(斬衰)의 복을 입어 역월(易月)의 복제를 마쳤다.

사신을 보내어 보고하니, 다음해 4월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시호를 공정(恭靖)이라 내렸다. 이해 봄에 우리 전하께서 못 신하를 거느리고, 대상왕의 호를 올리려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가을 7월 원경왕태후께서 돌아가시매 우리 전하가 슬퍼하심이 예에 지나치므로 명하여 역월(易月)의 복제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전하께서 울며 굳이 사양하시매, 이에 장사 뒤에 복을 벗고 백의(白衣)로 상기(喪期)를 맞추도록 하셨다.

9월 임오년(壬午)에 태후를 광주(廣州) 고을의 대모산(大母山)에 장사지내고, 헌릉(獻陵)이라 하였다. 신축(辛丑)년 가을 9월 우리 전하께서 책보(冊寶)를 받들어 대상왕의 호를 올리고, 10월 태종에게 품하여 원자(元子)를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다. 태종께서는 세상에 흔히 나지 않는 자질로서 학문을 쌓으시어 효제(孝弟)는 신명(神明)에 통하시고, 정성과 공경은 종묘사직에 감동되었다. 대국을 섬김에 있어 천자는 그 지성(至誠)을 일컬었고, 이웃 나라와 사림에 있어서 왜국은 그 도덕에 복종하였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생각하여 검소를 숭상하고 씩씩이를 절약하며 덕과 예(禮)를 먼저 하매, 형벌을 삼가고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매, 간사한 사람을 내치고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음사(陰祀)를 금지시키며, 고금을 참작하여 제도를 정하고 문교(文教)를 밝히며 무비(武備)를 엄하게 하여 쌓였던 폐단이 모두 개혁되어 모든 업적이 빛나, 온 나라가 안정되어 백성은 편안하고

물질이 풍부하니 제왕의 도(道)가 아 성하구나. 상제(上帝)의 돌보심이 응송함을 받아 두 번이나 감로가 내리는 최상의 상서(祥瑞)를 얻음이 마땅하도다.

임인(壬寅) 4월에 처음으로 병이 드시어 다음 달 5월 병인(丙寅)에 이궁(離宮)에서 돌아가시었다. 우리 전하께서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사흘 동안 음식을 폐하시니, 군신이 울면서 음식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년의 상복으로 정하여 역월(易月)의 복제를 쓰지 아니하셨다.

태종의 나이 56세였는데, 왕위에 19년 동안 계시었고, 한가히 계신 지가 5년만에 문득 활과 칼을 남기셨다. 대소의 신하들과 아래로 노예에 이르기까지 소리내어 울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날이 갈수록 더욱 슬퍼하여 부모를 여윈 것 같이 하였으니 아, 슬프다.

이 해 9월 초2일 병진(丙辰) 존호를 올려 성덕 신공 문무 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초 6일 경신(庚申)에 원경왕태후의 능에 합장하니 유명(遺命)이었다. 명나라에 부고를 보내매 황제는 애통하여 조회를 철폐고, 예부낭중 양선(楊善) 등을 보내어 제사를 내리니,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왕은 뜻이 도탑고 후하고 지성스럽고 총명하고 현달(賢達)하며, 조정을 공경하게 섬기매,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마음이 종시 바뀌지 아니하니 부고가 멀리서 들림에 진실로 깊이 슬픔을 느끼노라” 하였고, 또 고명(謚命)을 주어 시호

를 공정(恭定)이라 하고, 또 전하에게 부의를 후히 내리셨다. 대저 우리 태종의 공덕의 성함과 우리 전하의 효성의 지극하심이 앞뒤에 서로 이어 능히 황제의 마음을 맞춘 까닭으로 종시(終始)하는 즘에 있어 특별한 은전(恩典)이 이와 같이 갖추어 지극한 것이다.

중궁(中宮) 원경왕태후의 성은 민씨니 여흥(驪興)의 대대로 이름난 집이시다. 고려 문하시랑 평장사 문경공 휘 영모(令謨)로부터 6세만에 고조 휘 종유(宗儒)에 이르러 의능(毅陵)을 도와 도첨의시랑 찬성사(都僉議侍郎贊成事)에 이르고, 시호를 충순(忠順)이라 하였다. 충순이 증조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시호 문순(文順) 휘 적(頤)을 낳고, 문순이 조부 대광 여흥군(大匡驪興君) 휘 변(拊)을 낳고, 대광이 아버지 순충 동덕 찬화공신(純忠同德贊化功臣) 대광 보국 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수문전 대제학 영예문춘추관사(修文殿大提學領藝文春秋館事) 시호 문도(文度), 휘 제(霽)를 낳았다. 어머니 송씨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봉했으니, 고려 중대광 여량군(重大匡礪良君) 휘 선(璿)의 따님이신다. 착함을 쌓아 경사가 나매 이에 숙덕(淑德)을 낳으니 충명이 보통과 다르셨다. 배우자를 가리어 우리 태종에게 시집오셨다. 태종께서 젊었을 때부터 세상을 건질 뜻을 두시어 경사(經史)에 유의하시고, 가산(家產)을 일삼지 아니하셨다. 태후께서 치가(治家)하심에 검소하고, 부역일에 삼가시고 여공에 힘쓰시며 많은 아들을 가르쳐 의방(義方)에 순종하게 하셨

고, 첩과 시녀들을 예로 대접하여 부도(婦道)를 극진히 하셨다. 홍무(洪武) 임신(壬申)년 정녕옹주(靖寧翁主)에 봉하고, 무인(戊寅)년에 태종께서 정사(定社)할 때에 사세가 매우 외롭고 위태로웠는데, 태후께서 마음을 다하여 도와 큰 일을 치렀다. 경진(庚辰)년 봄에 정빈(貞嬪)에 봉하고, 그 해 겨울에 태종께서 즉위하심에 정비에 봉함이 되셨다. 영락(永樂) 계미(癸未)년에 황제가 관포(冠袍)를 하사하였다. 이 해로부터 정유(丁酉)년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하사를 다섯 번이나 받았다. 무술(戊戌)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존호를 올리어 후덕대왕비(厚德大王妃)라 하였고, 경자(庚子)년 9월에 시호를 올려 원경왕태후라 하였으니, 춘추가 56세이었다.

태후께서 정숙(貞淑)한 덕을 타고나서 능히 태종에 짝하시어 내치(內治)를 오로지 하기 20년 동안에 부도(婦道)하고 공경하여 또 성자(聖子)를 낳으시매 종묘와 사직에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서 영화로운 봉양을 누리셨다. 돌아가심에 미쳐 빈첩(嬪妾)과 시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슬퍼하고 아파하지 아니한 이가 없었다. 부인으로서 법도와 어머니로서의 거동이 지극하심이로다.

네 아들과 네 딸을 낳으셨으니 우리 전하께서는 셋째이시다. 장남은 시(禋)요, 차남은 보(補)이니 효령대군에 봉하고, 그 다음은 종으로 성녕대군(誠寧大君)에 봉하였다가 먼저 죽었다. 맏딸은 정순공주(貞順公主)로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에게 하가(下嫁)하니 본관이 같은 이씨가 아니다. 다음은 경정공

주(慶貞公主)이니 평양부원군(平壤府院郡)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고, 다음은 경안공주(慶安公主)이니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였다가 죽고, 다음은 정선공주(貞善公主)이니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에게 하가하였다.

의빈 권씨(懿嬪權氏)가 1녀를 낳으니 정혜옹주요,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에게 시집갔고, 소혜궁주(昭惠宮主) 노씨가 1녀를 낳았으니 아직 어리다. 신녕궁주(信寧宮主) 신씨가 3남 7녀를 낳았으니 장남 인(仁)은 공녕군(恭寧君)에 봉하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장녀 정신옹주(貞信翁主)는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秀童)에게 시집가고, 다음 정정옹주(貞靜翁主)는 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璿)에게 시집가고, 다음 숙정옹주(淑貞翁主)는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궁인 안씨(宮人安氏)가 1남 3녀를 낳았으니 모두 어리고 김씨가 1녀를 낳았으니 비(裋)요, 경녕군(敬寧君)에 봉하였다. 고씨(高氏)가 1남을 최씨(崔氏)가 1남 1녀를 낳고, 이씨(李氏)가 1남을 낳고, 김씨(金氏)가 1녀를 낳으니 모두 어리다.

우리 중궁 공비(恭妃) 심씨(沈氏)께서는 문하시중(門下侍中) 휘 덕부(德符)의 넷째 아들 온(溫)의 따님으로 4남 2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곧 세자(世子)시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양녕대군은 김한로(金漢老)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으니 모두 어리다. 효령대군은 전 판중군 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事) 정이(鄭易)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을 낳았으니 모두 어

리다. 성녕대군은 전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성억(成抑)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정순공주는 1녀를 낳았으니 용양시위사호군(龍驤侍衛司護軍) 이계린(李季隣)에게 시집갔는데, 본관이 같은 이씨가 아니다. 경정공주는 4녀를 낳았으니 장녀는 돈녕부승(敦寧府丞) 안진(安進)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유학(幼學) 김중엄(金仲淹)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어리다. 경안공주는 2남을 낳았으니 맏이는 담(聃) 한성소군(漢城小君) 정연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다음은 어리다. 정성공주는 2남 1녀를 낳았으니 모두 어리다. 경녕군은 호조참의 김관(金灌)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으니 모두 어리다. 호조참판(戶曹參判) 최사강(崔士康)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딸을 낳았으니 모두 어리다.

신이 그윽히 보옵건대, 우리 태종의 성한 덕과 높은 공은 실로 이미 백왕(百王)의 위에 높이 뛰어나시고, 배필의 어지심으로 내조의 공이 또 촉도(蜀塗)·신지(莘摯)로 더불어 사실이 서로 맞고 아름다움이 같았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능의 신도비(神道碑)에 명(銘)을 새기어 영세(永世)에 밝게 빛일 것을 원하오며, 전하께서 신 계량(季良)에게 명하시니, 신 계량이 명을 받자와 조심스럽고 떨리어 감히 사양하지 못하옵고, 삼가 머리 조아려 절하옵고 명(銘)을 올리기를, “하늘이 해동(海東)을 돌보시와 우리 태종을 내리시니, 덕을 부지런히 하신 성덕(聖德)이 몸에 있으시고 성부(聖父)를 추대하여 능히 큰공을 이에 황제의 뜰에 조

회(朝會) 가서 아뢰기를 조용히 하였고, 황제의 은혜를 두터이 입으시어 우리 백성을 보호하시네. 시기를 밝게 보아 난을 평정 하시어 적장(嫡長)을 높이시니, 비록 혁장(闕牆)을 만났으나 우애가 두터우셨다. 효제(孝悌)의 지극함은 예로부터 드물게 들은 바 이рода. 오직 덕이 두텁고 오직 공(功)에 힘쓰시어 하늘의 내려 보심이 매우 밝으시고 거둬 황제를 보우(保佑)하셨네. 빛나는 금보(金寶)가 전후에 비쳤으나 황제의 고명(誥命)이 거둬 이르매 내가 이에 은혜로 받았네. 유명(遺命)을 따라서 한수 북쪽으로 돌아오셨네. 예(禮)를 제작함에 찬란히 빛나도다. 상사를 당하여 여막에 계심에 망극하셨네. 장사지내고 제사지남에 옛 예법대로 따르셨고, 공경히 명나라 조정을 섬김에 황제가 지성이라 일컬었네. 엄숙하게 제사를 받들며 있어서는 신명(神明)에 감동하셨고, 이웃을 사림에 도가 있으니 왜국이 조회하러 왔구나. 왕씨의 후예를 가없이 생각하여 그들을 살도록 하셨도다. 중외가 다스려져 편안함에 억천 년을 드리우리. 흐뭇한 갑로(甘露)는 해마다 함흥부에 내렸구나. 어두운 양녕대군을 폐하고 덕 있는 세종(世宗)을 명하사 백성의 주인을 삼았도다. 오랜 수(壽)를 누리시어 이 땅에 아버지로 임하시기를 바랐더니 어찌 하늘로 올라가심을 재촉하여 한 번도 병환이 낫지 아니하셨는고. 슬프다. 성자(聖子)는 아프고 슬픔이 비할 데 없으시어 3일 동안 음식을 철폐하시니 지쳐서 상함을 이기지 못하시어 범백(凡百) 상사에 오직 예를 따르셨네. 황제께서 듣고 슬퍼하시어 사신을 보내서 제사하

고, 시호를 주어 포장하여 높이고 부의를 융숭하게 내리셨네. 은전(恩典)이 갖추었으며 기쁨이 신하들에게 넘치었네. 어지신 태후께서는 진실로 엄숙하고 화하셨도다. 가만히 정사(定社)함을 도우시어 능히 큰 성군(聖君)에게 짝이 되셨네. 성철(聖哲)을 나오시므로 하여금 종묘(宗廟)의 제사를 주장하게 하셨네. 건(乾)의 건장하고 이(離)의 밝음은 공정대왕의 덕이 좋고, 곤(坤)의 후하고 유(柔)하고 정(貞)함은 원경왕태후의 범도로다. 금슬로써 벗하시다가 장사도 한 곳에 하셨네. 자손이 많으시니, 아, 기린(麒麟)이로다. 길이 이어 가는 종사(宗祀)는 억만년을 드리우리다. 신이 절하고 글을 올려 좋은 돌에 새기오니 만대에 닳아지지 아니하여 우리 동방에 비치리다” 하였다.

○ 윤희(尹淮)가 비음기(碑陰記)를 썼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종대왕께서 성스러운 덕과 신공(神功)이 뚜렷하여 전고(前古)보다 높았도다. 춘추 아직 많지 아니하실 적에 자리를 성자에게 전해 주시고, 바야흐로 한가함을 얻으시어 영화로운 봉양을 누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우리 전하께서 슬퍼하시고 상하심이 예법대로 다하셨다. 다음 5월에 원경왕태후의 헌능에 합장하시니 유명(遺命)을 따름이다. 능은 광주(廣州) 치소(治所)의 서쪽 대모봉(大母峰) 밑 건괘좌(乾亥坐)의 산에 있는데, 건좌손향(乾坐巽向)이다. 북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30리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이 산은 오기를 장백산(長白山)으로부터 하여 수 천리를 넘어 상주(尙州)의 속리산(俗離山)에

이르고, 여기 서북으로 또 수백 리를 달려 과천(果川)의 청계산(淸溪山)에 이르러 또 꺾여 동북으로 달려 한강을 등지고 멈추었는데, 이것이 땅의 영기(靈氣)가 멈추어 솟아 맑은 기운이 꿈틀거리니 아,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간직하여 능(陵)의 길조(吉兆)로 기다림인가. 전하께서 능의 63보에 나아가 큰 비를 세워서 덕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여 빛을 이제와 오는 세대에 드리우리라 명하시고, 또 개국(開國)·좌명(佐命)·정사공신(定社功臣)들의 이름을 차례로 비 뒤에 새기도록 명하시었다. 신이 그윽히 자고로 제왕이 일어남에 반드시 세상에 이름난 신하가 있어 때에 응하여 와서 대업(大業)을 도와서 이루었습니다. 이에 종명이정(鐘銘彝鼎)을 기록하는 법이 있는 것이니 썩지 않을 공을 보여 영구히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정이 임신(壬申)년에 창업됨과 무인(戊寅)년과 경진(庚辰)년의 내란을 평정함을 얻은 것은 실로 하늘이 태종을 열어준 바가 된 것으로서 조선 억 만년 무궁한 복조를 기초 삼은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장상(將相)들이 몸을 잊고 명을 바쳐 보좌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들에 새겨 영세에 보여서 뒤에 보는 사람이 오히려 능히 우리 전하께서 능히 빛나는 공을 현양(顯揚)하고 원훈(元勳)을 포장(褒獎)하신지 알게 할 것입니다.

#### 개국공신(開國功臣)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 문하시중(門下侍中) 배극렴(裨克廉)·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士衡) ·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 · 의안대군(義安大君) 화(李和) · 계림군(鷄林君) 정희계(鄭熙啓) · 청해군(淸海君) 이지란(李之蘭) · 의성군(宜城君) 남은(南閔) · 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 · 서원군(西原君) 정충(鄭攄) · 한산군(漢山君) 조인옥(趙仁沃) · 의령군(宜寧君) 남재(南在) · 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 · 익화군(益和君) 김인찬(金仁贊) · 파평군(坡平君) 윤호(尹虎) · 상산군(商山君) 이민도(李敏道) · 호조전서(戶曹典書) 조영규(趙英圭) · 부흥군(復興君) 조반(趙胖) ·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 · 남양군(南陽君) 홍길민(洪吉旼) ·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 ·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건(趙狷) · 평해군(平海君) 황희석(黃希碩) ·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안경공(安景恭) · 계림군(鷄林君) 김군(金稷) · 중추원부사(中樞院府使) 유원정(柳爰廷) ·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 ·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오사충(吳思忠) · 안평부원군(安平府院君) 이서(李舒) ·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 ·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이백유(李伯由) · 흥원군(興原君) 이부(李敷) · 연성군(延城君) 김로(金輅) · 고성군(高城君) 고려(高呂) · 동원군(東原君) 함부림(咸傅霖) · 서원군(西原君) 한상경(韓尙敬) · 상호군(上護軍) 한충(韓忠) ·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

정사공신(定社功臣)

의안대군(義安大君) 화(李和) ·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 ·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 ·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 ·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 김사형(金士衡) · 진산부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 ·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 · 완원부원군(完原府院君) 이량우(李良祐) · 봉녕부원군(奉寧府院君) 복근(福根) · 청해군(淸海君) 이지란(李之蘭) · 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 ·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 · 연성군(延城君) 김로(金輅) ·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정탁(鄭擢) ·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 · 중추원부사(中樞院

副使) 장철(張哲) · 취산부원군(鷲山府院君) 신극례(辛克禮)

좌명공신(佐命功臣)

상당군(上黨君) 이저(李佇) ·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하륜(河崙) ·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 · 취산부원군(鷲山府院君) 신극례(辛克禮) · 계성군(鷄城君) 이래(李來) ·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 ·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 ·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 ·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 ·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 · 칠성군(漆城君) 윤저(尹抵) · 의성군(義城君) 김영렬(金英烈) · 파평군(城平君) 윤곤(尹坤) · 금천군(錦川君) 박은(朴聞) · 평양군(平陽君) 박석명(朴錫命) · 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 마천목(馬天牧) ·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 · 길창군(吉昌君) 권근(權近) · 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원(李原) ·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 ·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유량(柳亮) ·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 조연(趙涓) ·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김승주(金承羣) · 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 · 남양군(南陽君) 홍서(洪恕) · 칠원군(漆原君) 윤자당(尹子當) · 계림군(鷄林君) 이승상(李升商) ·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鼎卿) · 이성군(利城君) 서유(徐愈) ·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 이종무(李從茂) · 영양군(永陽君) 이옹(李膺) · 풍산군(豊山君) 심구령(沈龜齡) ·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 ·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한규(韓珪) · 희천군(熙川君) 김우(金宇) · 월천군(越川君) 문빈(文彬) · 여산부원군(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 · 증동지중추원사(贈同知中樞院事) 김덕생(金德生)

■ 선릉(宣陵) : 주 서쪽 30리 학당동(學堂洞)에 있다. 성종대왕(成宗大王)의 능이다.

■ 평원대군 묘(平原大君墓) : 주 남쪽 18리에 있다.

■ 한확 묘(韓確墓) : 주 동쪽 30리에 있다.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임영대군 묘(臨瀛大君墓) : 주 남쪽 60리에 있다.
- 광평대군 묘(廣平大君墓) · 영순군 묘(永順君墓) : 모두 주 서쪽 15리에 있다.
- 이원 묘(李原墓) : 주 서쪽 30리에 있다.
- 구치관 묘(具致寬墓) : 주 동쪽 60리에 있는데, 서거정이 비명을 지었다.
- 최항 묘(崔恒墓) : 주 동쪽 20리에 있는데, 서거정이 비명을 지었다.
- 박은 묘(朴崑墓) : 주 북쪽 23리에 있다.
- 이극배 묘(李克培墓) : 주 북쪽 15리에 있다.
- 밀성군 묘(密城君墓) : 주 서쪽 7리에 있다.
- 서거정 묘(徐居正墓) : 주 서쪽 13리에 있다.
- 정창손 묘(鄭昌孫墓) : 주 서쪽 14리에 있다.
- 오사충 묘(吳思忠墓) : 주 북쪽 11리에 있다.
- 권진 묘(權軫墓) : 주 동쪽 20리에 있다.
- 맹사성 묘(孟思誠墓) : 주 남쪽 30리에 있다.
- 유창 묘(柳敞墓) : 주 북쪽 10리에 있다.
- 이극증 묘(李克增墓) : 주 남쪽 40리에 있다.
- 정난종 묘(鄭蘭宗墓) : 주 남쪽 70리에 있다.
- 함부림 묘(咸傅霖墓) : 서쪽 12리에 있다.
- 김승주 묘(金承寔墓) : 주 동쪽 30리에 있다.
- 한계희 묘(韓繼禧墓) : 주 남쪽 40리에 있다.

- 어효침 묘(魚孝瞻墓) : 북쪽 17리에 있다.
- 정척 묘(鄭陟墓) : 주 서쪽 7리에 있다.
- 이지강 묘(李之剛墓) : 주 북쪽 7리에 있다.
- 이계손 묘(李繼孫墓) : 주 서쪽 80리에 있다.
- 이문화 묘(李文和墓) · 이승손 묘(李承孫墓) : 모두 주 서쪽 30리에 있다.

신증

- 희릉(禧陵) : 대모산(大母山)에 있는데, 장경왕후(章敬王后)의 능이다.
- 제안대군 묘(齊安大君墓) : 주 남쪽 16리에 있다.

고적(古蹟)

■ 온조왕고성(溫祚王古城) : 온조왕 13년에 왕도(王都)에 늙은 할머니가 변하여 남자가 되고, 다섯 호랑이가 성안에 들어오며,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왕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강토를 침범하여 편안한 날이 적은 데다가, 더욱 지금 요사스러운 조짐이 자주 나타나고, 국모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사세가 스스로 편안함이 있을 수 없도다. 반드시 장차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 어제 나아가서 한수(漢水)의 남쪽을 순시하여 보니, 토지가 비옥하다. 마땅히 그곳에 도읍하여 오래 편안하기를 도모하리로다” 하고, 7월에 한

산에 나아가 목책(木柵)을 세우고 위례성(慰禮城)의 백성들을 옮기고, 9월에 성과 궁궐을 세웠다.

■ 일장산성(日長山城) : 바로 신라 때 주장성(晝長城)이다. 문무왕(文武王)이 쌓은 것인데, 안에 6우물과 시내가 있다. 주위가 86,800척, 높이는 24척인데, 석축이다.

■ 요탄역(饒呑驛) : 고려 현종 9년 거란이 침범하므로 왕이 광주로 행차하였다가 두 왕후의 간 곳을 잃어 버렸으나 지채문(智蔡文)으로 하여금 가서 찾게 하였더니, 이 역에 이르러 바로 만나 봉환(奉還)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사흘간을 여기에 머물었다.

## 명환(名宦)

### 신라

■ 김대문(金大問) : 성덕왕(聖德王) 3년 김대문으로 도독(都督)을 삼았다.

### 고려

■ 이혼(李混) : 참군이 되었다.

■ 홍자번(洪子藩) : 통판(通判)이 되었는데, 죽은 후 백성들이 그의 은덕을 생각함이 있었다.

■ 안보(安輔) : 사록(司錄)이 되었다.

■ 김부의(金富儀) : 사록이 되었다.

■ 장선(張瑄) : 목(牧)이 되었다.

■ 이세화(李世華) : 고려 때에 오랑캐(몽고)의 침략으로 인하여 장차 도읍을 옮기려 하자 광주가 중도의 큰 진(鎭)인 까닭에 이세화를 보내 나아가 자사(刺史)가 되게 하였다. 몽고의 대병이 와서 포위하고 백가지 계교로 공격하였으나, 세화가 주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여 사태의 형편에 따라 응변하니 오랑캐가 드디어 포위를 풀고 갔다.

■ 이진(李璡) : 사록이 되었다.

## 본 조

■ 권진(權軫) : 판관(判官)이 되었다.

■ 최부(崔府) : 목사가 되었다.

■ 안노생(安魯生) : 목사가 되었다.

■ 남금(南琴) : 태종조에 양녕군을 이 주에 안치하였는데, 주의 관리가 잘 제재하지 못하므로 임금이 특히 경창부윤(慶昌府尹) 남금으로 판목사(判牧使)를 삼았다.

## 인물(人物)

### 백 제

■ 고흥(高興) : 근초고왕(近肖古王) 때의 사람이다. 백제 개국

이래로 아직 문자로서 일을 기록함이 있지 못하더니 고흥이 박사(博士)가 되자 비로소 서기(書記)가 있었다.

### 본 조

■ 안성(安省) : 과거에 올라 벼슬이 개성부 유후(開城府留後)에 이르렀다. 시호는 사간(思簡)이다.

■ 이집(李集) : 본주의 아전이다. 고려 공민왕조에 과거에 올랐다. 천성이 강직하여 신돈(辛旽)에게 붙지 아니하니 돈이 죽이 고자 하매 그 아버지를 업고 영주(永州)로 도망하였다가, 돈이 죽임을 당하자 서울로 돌아와 본조(本朝)에서 벼슬하여 전교판사(典校判事)에 이르렀다. 학문이 높아서 한 때에 사귀던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이 모두 존경하고 중히 여겼다. 호는 둔촌(遁村)이요, 시집이 있다.

■ 이지직(李之直) : 이집의 아들로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 이지강(李之剛) : 이지직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 이지유(李之柔) : 이지강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성주목사(星州牧使)에 이르렀다.

■ 이장손(李長孫) : 이지직의 아들로 급제하여 벼슬이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에 이르렀다.

■ 이인손(李仁孫) : 이장손의 아우로 일찍 급제하여, 여러 벼

슬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간절하고 정직하게 국사를 말하다가 대신에게 거슬리어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옮겼다가 뒤에 다시 호조판서가 되었다. 세조가 위로하고 일깨워 말씀하시기를 “경의 나이 많음이 민망하나 탁지(度支)의 무거운 임무는 경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였다. 얼마 안되어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가 치사(致仕)한 지 5년만에 죽었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굳셀 뿐만 아니라 포부가 있었다.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가산(家産)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벼슬에 있으면서 삼가고 주밀하여 전의 법도를 준수하기에 힘썼다. 시호는 충희(忠僖)로 다섯 아들이 모두 급제하였다.

■ 이예손(李禮孫) : 이인손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황해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 이극배(李克培) : 이인손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하여 좌익공신(左翼功臣)에 참여하였다. 벼슬은 의정부 영의정에 이르고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하였다. 시호는 익평(翼平)이다. 성격이 엄중하고 풍채가 있었으며 정치의 대체를 알았다. 아들 세필(世弼)·세광(世匡) 역시 과거에 급제하였다.

■ 이극감(李克堪) : 이극배의 동생으로 두 번 과거에 급제하였다. 세조 대에 좌익공신이 되어 광성군(廣城君)에 봉하였고,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고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그의 아들 세우(世佑) 역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경기관찰사에 이르렀다.

■ 이극증(李克增) : 이극감의 동생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좌리익대공신(佐理翊戴功臣)에 참여하여 광친군(廣川君)에 봉하였다.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관(官)을 다스림이 집에서와 같았다. 시호는 공장(恭長).

■ 이극기(李克基)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이르렀다. 성리학(性理學)에 능통했으며 천성이 강직하고 관(官)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다.

**신증**

■ 이극균(李克均) : 이극증의 동생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다. 연산군(燕山君) 갑자년에 피살되었다.

■ 이세좌(李世佐) : 이극감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연산군 갑자년에 피살되었다.

■ 이점(李沾)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윤(判尹)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 이손(李蓀)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시호는 호간(胡簡)이다. 아들 수언(粹彦)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사인(舍人)에 이르렀다가 일찍 죽었다.

우거(寓居)

고 려

■ 조운홀(趙云伋) : 늙어서 광주의 몽촌(夢村)에 우거하였다.

하루는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의 무리들이 귀양가는 것을 보고 시를 짓기를

사립문에 해가 낮이 되어서야 사람을 불러 열고  
임정(林亭)에 걸어 나와 돌이끼에 앉았도다.  
어제 반 삼중에 비바람이 사나워  
사내에 가득 흐르는 물이 꽃을 띄워 오는구나

본 조

■ 박계성(朴繼姓)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황해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청렴하고 근엄하게 업무를 보았다.

■ 조추(趙秋) : 벼슬이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에 이르렀다.

효자(孝子)

본 조

■ 한구(韓述) : 나이 5살에 아버지가 죽고, 장년이 되어 어머니가 죽으매 아버지 묘에 부장하고 6년상을 입었다. 사실이 나라에 들리매 정문을 세우고 부역을 면제하였다.

■ 정수명(鄭守明) : 그 아버지 호겸(好謙)이 악질(惡疾)을 얻어 죽게 되었는데, 수명이 나이 겨우 14세에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 드렸다. 사실이 나라에 들리매 정문(旌門)을 세우고 부역을 면제하였다.

■ 내은이(內隱伊) : 사비(私婢)이다.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다. 이에 내은이가 몸으로써 그 아버지를 가리워 대신 죽음을 당하려 하여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화를 면했다. 사실이 나라에 들리매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역을 면제했다.

**신증**

■ 정주신(鄭舟臣) : 그 아버지 성근(誠謹)이 갑자년의 화를 만나 죽으니 가슴을 두들기며 통곡하며 먹지 않고 죽었다. 금상(今上) 초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신증**

열녀(烈女)

본 조

■ 이씨(李氏) : 정랑(正郎) 성경온(成景溫)의 처이다. 연산군 때에 경온이 멀리 귀양갔다가 피살되었다. 이씨가 염습(殮襲)하고 장사지내기를 예를 다하였다. 여막을 산소 곁에 짓고 손수 제사 음식을 갖추었다. 상을 치른 뒤에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니 금상 2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제영(題詠)

■ 사면운산옹관사(四面雲山擁官舍)

이색(李穡)의 시에,

사면의 구름 산이 관사를 옹위하였는데,  
한 줄기 강물은 어대(漁台)를 들렀더라.

■ 창산녹수장의구(蒼山綠水長依舊)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푸른 산과 푸른 물은 길이 예와 같은데,  
푸른 기와와 붉은 기둥은 몇 번이나 새 것으로 바꾸었는가

■ 수기저정생준예(秀氣儲精生俊乂)

유백유(柳伯濡)의 시에,

빼어난 기운은 정기를 저장하여 준걸을 낳았으니  
인물이 빛이 있구나.

변오(辨誤)

고 려

- 이집(李集) : 이당(李唐)은 본주의 아전이다. 조심하여 어진

행실이 있었다.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집은 그 셋째아들이다. 처음 이름은 원령(元齡)이다. 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과 지조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다. 이색·정몽주·이승인 등과 서로 더불어 공경하는 벗으로 삼았다. 일찍이 바른 것으로서 항거하다가 적승(賊僧) 신돈(辛旽)에게 거슬리자, 신돈이 장차 잡아죽이려 하므로 가만히 그 아버지 이당을 업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영천(永川)의 최윤도(崔允道)의 집에 몸을 의탁하였다. 신돈이 죽임을 당하자 비로소 돌아와 이름을 집(集)이라 하고 자를 호연(浩然)이라 하였으며, 호를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출세할 뜻이 없었다.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었으나 얼마 아니하여 물리가 여주의 천녕현(川寧縣)에 살며 몸소 밭을 갈고 글을 읽었다. 때로는 시편(詩篇)과 새 곡식을 정몽주 등에게 선사하니, 그가 글을 부쳐 감탄하였다. 공양왕 정묘년에 죽으니 정몽주·이승인 등이 글을 지어 애도하였다. 그 뒤 여러 어진 이들이 서로 이어 죽자, 고려가 망하고 아조(我朝)에서 개국하였다. 그의 사적의 전말이 여러 문집에 갖추어 실려 있었으나, 역사를 편찬함에 미치어 임사홍(任士弘) 부자가 매우 이극감(李克堧) 형체를 질투하여, 이에 거짓으로 이집이 이조에 들어와 벼슬한 것처럼 하여 마침내 본조 인물 밑에 잘못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시림(詩林)을 주석한 자도 또한 그 그릇된 기록을 따랐다. 선종조에 경연관(經筵官) 홍적(洪迪)이 고치기를 청하니, 선종(宣宗)이 인출

(印出)할 때를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금상 3년에 비로소 이 책을 간행하여 세상에 공포하였다. 8대손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상서하여 유교(遺敎)를 따라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금상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다. 거짓을 고쳐 실지로 삼으니 출처(出處)의 큰 대절(大節)이 명백하여져 유감이 없게 되었다.

(비고) 고종(高宗) 32년에 군(郡)으로 고쳤다가 32년 부(府)로 승격시켰다. 『문헌비고(文獻備考)』

## 연혁(沿革)

### ■ 인조(仁祖) 원년에 유수(留守)로 승격

수어사(守禦使)를 겸하게 하였다. 4년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쌓고 관청을 성안으로 옮기었다 : 수어사를 설치하여 광주 등의 진(鎭)을 절제케 하고 군무(軍務)는 목사(牧使) 겸 방어사(防禦使)가 보게 하였다. 11년에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고 15년에 부윤(府尹)으로 고쳤다. 효종(孝宗) 3년에 수어사를 겸하게 하다가 폐지하였다. 이어 숙종(肅宗) 6년에 다시 겸하게 하였으나 다시 폐지하였다. 9년에 유수(留守)로 승격시키어 수어사를 겸하게 하고 경력(經歷)을 두었다. 전영(前營)을 여주(驪州)로 옮기고 16년에 다시 부윤을 두어 방어사와 토포사를 겸하게 하였다. 전영장(營將)을 두고 경력을 없앴다. 17년에 다시 수어부사를 겸하게

##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하고 21년에 이를 폐하였다. 영종(英宗) 26년에 수어사를 폐하고 유수를 두어 수어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경력을 두고 전영을 이천(利川)으로 옮겼다. 35년에 유수와 경력을 폐하고 수어사를 두어 경(京廳)을 설치했는데, 부윤 겸 방어사·전영장·수성장(守城將)은 옛과 같다. 정종(正宗) 19년에 유수로 승격하고 수어사를 겸하고 나가서 본성(本城)을 진무하게 하였다. 따라서 경청은 폐지하고 진을 여주로 옮겼다.

## 관원(官員)

- 유수(留守) : 수어사를 겸한다.
- 판관(判官) : 전영장·수어종사관(守禦從使害)을 겸한다.
- 검률(檢律)·의학(醫學) 각 한 사람씩이다.

## 토산(土產)

밤(粟)·앵도·사과·칠(漆)·자초(紫草)·수철(水鐵)·석회(石灰)·실(絲)·목화·삼베·자기·도기(陶器)·은구어(銀口魚)·잉어·숫게·쏘가리·눌어(訥魚)·금린어(金鱗魚)·밀어(密魚) 압구정 앞의 강에서 산출된다.

궁실(宮室)

■ 행궁(行宮) : 상궐(上闕) · 하궐(下闕) · 좌전(左殿) · 우실(右室) 등이 있다.

재덕당(在德堂) · 한남루(漢南樓) · 인화관(人和館) · 사근평(肆覲坪) · 행궁(行宮)

관해(官廡)

좌승당(坐勝堂) · 일장각(日長閣) · 수어영(守禦營) · 제승헌(制勝軒) 등이다.

방면(方面)

성안에 두 개의 동이 있다 : 남동과 북동이다.

■ 경안(慶安) : 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10리이고 끝은 40리이다.

■ 오포(五浦) : 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30리이고 끝은 50리이다.

■ 세촌(細村) : 남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50리이고 끝은 20리이다.

■ 낙생(樂生) : 남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20리이고 끝은 40리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이다.

■ 돌마(突馬) : 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20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동부(東部) : 동북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10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서부(西部) : 서북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10리이고 끝은 20리이다.

■ 초부(草阜) : 동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30리이고 끝은 60리이다.

■ 도척(都尺) : 동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40리이고 끝은 70리이다.

■ 실촌(實村) : 동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50리이고 끝은 70리이다.

■ 초월(草月) : 동남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30리이고 끝은 40리이다.

■ 중대(中垔) : 서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10리이고 끝은 20리이다.

■ 언주(彦州) : 서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20리이고 끝은 40리이다.

■ 구천(龜川) : 서북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20리이고 끝은 30리이다.

■ 육왕(六旺) : 서남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15이고 끝은 30리

이다.

■ 의곡(義谷) : 서남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40리이고 끝은 60리이다.

■ 왕륜(旺倫) : 서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60리이고, 끝은 70리이다.

■ 북방(北方) : 서남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70리이고 끝은 90리이다.

■ 월곡(月谷) : 서북쪽에 있는데, 첫머리는 70리이고 끝은 80리이다.

■ 성곶(聲串) : 서남쪽에 있는데, 첫머리가 80리이고 끝은 100리로 해변(海邊)이다.

#### 진도(津渡)

■ 송파진(松坡津) : 서북쪽으로 20리이며, 삼전도(三田渡)와 무동도(舞童島)를 주관한다. 별장(別將) 1인이 있다.

■ 삼전도(三田渡) : 서북쪽으로 25리이며 옛날에는 도승(渡丞)이 있었는데, 송파(松坡)로 옮겼다.

■ 광진(廣津) : 북쪽으로 20리에 있다.

■ 마점진(麻帖津) : 봉안(奉安) 동쪽으로 통하는데, 25리이다.

■ 신천진(新川津) : 삼전도 북쪽으로 5리이다.

■ 두미진(斗迷津) : 동쪽으로 20리에 있다. 그 북쪽 언덕은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두미천(斗迷遷)으로 돌길이며, 빈 강가를 따라 돌리기를 7, 8리이며, 동쪽으로 봉안을 향한다.

■ 미음진(漢音津) : 북쪽으로 30리인데, 양주(楊州) 편에 자세하다.

## 사원(寺院)

### 귀암서원(龜岩書院)

북쪽으로 30리에 있다. 현종(顯宗) 정미(丁未)년에 건립하였고, 숙종(肅宗) 정축(丁丑)년에 액(額)을 내리었다.

■ 이집(李集) : 자는 호연(浩然)이며 호(號)는 둔촌(遁村)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벼슬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이다.

■ 이양중(李養中) : 자는 자정(子精)이고 호는 석탄(石灘)이다. 광주(廣州) 사람으로 고려 말의 벼슬은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였다. 우리 태종(太宗)이 즉위하여 부르니, 평민으로 와서 보거늘 특별히 한성좌윤(漢城左尹)으로 승직하니 받지 않았다.

■ 정성근(鄭誠謹) : 자는 신(信)이고 진주(晉州) 사람으로 연산군 갑자(甲子)년에 화를 입었다. 벼슬은 승지(承旨)요,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되었다.

■ 정엽(鄭曄) : 자는 시회(時晦)이고 호는 수몽(守夢)이다. 본관은 초계(草溪)로 벼슬은 좌참찬이며,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諡)는 문제(文齊)이다.

■ 오윤겸(吳允謙) : 자는 여익(汝益)이며 호는 추탄(楸灘)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임숙영(任叔英) : 자는 무숙(茂叔)이고 호는 소암(疎庵)이다. 풍천(豐川)사람으로 벼슬은 수찬(修撰),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수곡서원(秀谷書院)

서쪽으로 20에 있다. 숙종(肅宗) 을축(乙丑)년에 세웠고, 을해(乙亥)년에 액(額)을 내렸다.

■ 이의건(李義健) : 자는 의중(宜中) 호는 동은(峒隱)이다. 본관은 전주(全州)로 벼슬이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이르렀다. 집의(執義)로 증직되었다.

■ 조속(趙涑) : 자는 계온(季溫)이고 호는 창강(滄江)이다. 본관은 풍양(豐壤)으로 벼슬이 진선(進善)이다.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 이후원(李厚源) : 자는 사심(士深)이고 호는 우재(迂齋)이다. 완산(完山)인으로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다.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으로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현절사(顯節祠)

부성 안에 있다. 숙종 무진(戊辰)년에 세웠고 계유(癸酉)년에 액(額)을 내렸다.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김상헌(金尙憲) : 경도 태묘(京都太廟)편을 참조하라.
- 정온(鄭蘊) :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동계(桐溪)이다. 본관은 초계(草溪)로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영의정으로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 : 두 현인(賢人)은 강화부(江華府)에 보라.
- 오달제(吳達濟) : 자는 계휘(季輝)이고 호는 추담(楸潭)이다. 본관은 해주(海州)로 벼슬은 교리(校理)이고 영의정으로 증직되었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능침(陵寢)

- 정릉(貞陵) : 선릉(宣陵) 동쪽 산에 있는데, 중종대왕(中宗大王)의 능이다. 기일(忌日)은 11월 15일이다. 직장(直長)·참봉(參奉)이 각각 1명이다.
- 인릉(仁陵) : 헌릉(獻陵)의 오른편 언덕에 있는데, 순조대왕(純祖大王)의 능이다. 기일은 11월 13일이다. 처음 장례(葬禮) 모신 곳은 교하(交河) 장릉(長陵) 국내(局內)인데, 철종(哲宗) 6년에 이곳으로 천장(遷葬)하였다.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金氏)도 이곳에 합장(合葬)하였는데, 기일은 8월 4일이다. 령(令)·참봉(參奉)이 각각 1명이다.

## 찾아보기

ㄱ

- 가돈원(加頓院) 62, 119  
 가정령(佳丁嶺) 183  
 감무(監務) 129  
 감사지(監舍知) 39  
 강화(江華) 63, 124  
 개국공신(開國功臣) 223  
 거란주(契丹主) 57  
 거서현(巨黍縣) 37  
 검단산(黔丹山) 175  
 견훤(甄萱) 114  
 경안(慶安) 239  
 경안역(慶安驛) 204  
 계림(鷄林) 138  
 고달원(高達院) 141  
 고영기(高英起) 91  
 고원성(古垣城) 103  
 고흥(高興) 229  
 공민왕(恭愍王) 204, 210  
 과천(果川) 223  
 관악산(冠岳山) 122  
 광능부원군(廣陵府院君) 231  
 광성군(廣城君) 231  
 광주(廣州) 53  
 광주옥(廣州獄) 105  
 광주도(廣州道) 131  
 광주목(廣州牧) 77, 119  
 광주봉국군절도사(廣州奉國軍節度使)  
 174  
 광주사록(廣州司錄) 102  
 광주서기(廣州書記) 107  
 광주원군(廣州院君) 85, 108  
 광주원부인(廣州院夫人) 85  
 광주장서기(廣州掌書記) 99  
 광주참군(廣州參軍) 101  
 광주통판(廣州通判) 101  
 광주판관(廣州判官) 97  
 광진(廣津) 185, 187, 241  
 광진도(廣津渡) 175  
 광진원(廣津院) 207  
 광천군(廣川君) 232  
 교산리 143  
 구성현(駒城縣) 37  
 구천(龜川) 240  
 구치관묘(具致寬墓) 226  
 군사감(軍師監) 44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군사당주(軍師主) 41  
 궁예(弓裔) 30, 49, 114  
 권근(權近) 205  
 권담(權湛) 190  
 권반(權攀) 190  
 권우(權遇) 187  
 권진(權軫) 229  
 권진묘(權軫墓) 226  
 귀암서원(龜岩書院) 242  
 귀양 128  
 근초고왕(近肖古王) 53, 78  
 금교역(金郊驛) 95, 128  
 기민(飢民) 118  
 기순(祁順) 199  
 기우제 61  
 김경용(金景庸) 97, 118  
 김계생(金桂生) 68  
 김극기(金克己) 235  
 김대문(金大問) 228  
 김례(金禮) 121  
 김류(金繆) 107, 120  
 김부식(金富軾) 96  
 김부의(金富儀) 228  
 김상경(金相京) 27  
 김상헌(金尙憲) 244  
 김식(金湜) 193  
 김약온(金若溫) 98  
 김약진(金若珍) 60  
 김유신(金庾信) 78  
 김응인(金應仁) 90

김한귀(金漢貴) 72  
 L  
 나경(羅璟) 197  
 나불(羅弗) 94, 118  
 나세(羅世) 104  
 나주도(羅州道) 131  
 낙랑(樂浪) 34, 35  
 낙생(樂生) 239  
 낙생역(樂生驛) 166, 205  
 남경광주도(南京廣州道) 68  
 남경유수사(南京留守使) 99  
 남경유수판관(南京留守判官) 101  
 남금(南琴) 229  
 남부여(南扶餘) 53  
 남천현(南川縣) 36  
 남평양성(南平壤城) 78  
 남한산(廣州) 27  
 남한산성(南漢山城) 78, 179, 237  
 남한산주(南漢山州) 78, 174  
 남한성(南漢城) 56  
 남한주(南漢州) 48  
 내승(內乘) 125  
 내은이(內隱伊) 234  
 E  
 당성(唐城) 57  
 대각국사(大覺國師) 96

대관대감(大官大監) 38  
 대대감(隊大監) 38  
 대량원군(大良院君) 86  
 대모산(大母山) 215  
 대부현(大斧峴) 34  
 대쌍령(大雙嶺) 183  
 대장대감(大匠大監) 44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42  
 대해산(大海山) 183  
 덕풍(德豐) 177, 204~205  
 도기소(陶器所) 177  
 도둔곶(都屯串) 108  
 도미사(渡迷寺) 76  
 도미원(渡迷院) 206  
 도미진(渡迷津) 175  
 도미천(渡迷遷) 186  
 도봉사(道峯寺) 90  
 도봉원(道峰院) 141  
 도사(道使) 56  
 도선(道詵) 113  
 도척(都尺) 240  
 독포(禿浦) 185  
 돌마(突馬) 240  
 동명(東明) 33  
 동명왕(東明王) 53  
 동부(東部) 240  
 두미진(斗迷津) 241  
 두미천(斗迷遷) 242  
 둔촌(遁村) 169, 230, 236

등소(滕昭) 196

□

마애약사상 143  
 마여(馬黎) 31  
 마점진(麻沾津) 241  
 마정(馬政) 83  
 만보당(萬步幢) 46  
 말갈(靺鞨) 34  
 말을천원(末乙川院) 206  
 망월봉(望月峰) 184  
 맹사성묘(孟思誠墓) 226  
 맹자집의(孟子集義) 168  
 목간 55  
 목책(木柵) 35, 78, 228  
 몽고 123  
 몽고군 63  
 몽촌(夢村) 184  
 무동도(舞童島) 241  
 무력(武力) 25, 48  
 무진정(無盡亭) 190  
 문묘(文廟) 209  
 『문헌비고(文獻備考)』 237  
 미원장(迷元莊) 66, 125  
 미음진(漢音津) 242  
 미추홀 52  
 밀성군묘(密城君墓) 226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ㅂ

박계성(朴繼姓) 233  
 박득령(朴得齡) 147  
 박은묘(朴崑墓) 226  
 박인석(朴仁碩) 149  
 박화(朴華) 158  
 반문규(潘文奎) 212  
 발어참성(勃禦槀城) 114  
 방간(芳幹) 211  
 방석(芳碩) 211  
 배곶이(梨串) 177  
 백제기(百濟記) 55  
 백제(百濟) 32, 52, 55, 114  
 백종사(百種寺) 207  
 백중사(伯仲寺) 208  
 법왕사(法王寺) 64  
 변계량(卞季良) 209  
 별무반(別武班) 94  
 보기감(步騎監) 44  
 보기당주(步騎幢主) 42  
 보우(普愚) 125  
 보허(普虛) 66, 125  
 봉국군(奉國軍) 78, 180  
 봉수사(奉水寺) 207  
 봉안역(奉安驛) 205  
 봉은사(奉恩寺) 208  
 봉주(鳳州) 61, 79, 116  
 부아악(負兒嶽) 31, 51  
 북방(北方) 241

북원(北原) 49  
 북한산주(北漢山州) 25  
 북한성(北漢城) 53, 173  
 비금당주(緋衿幢主) 43  
 비뇌역(鼻腦驛) 57, 91, 115  
 비류(沸流) 31, 51  
 비열홀정(比烈忽停) 45

ㅅ

사산현(蛇山縣) 92  
 사성(蛇城) 36  
 사자금당주(師子衿幢主) 43  
 사직단(社稷壇) 208  
 사평원(沙平院) 67  
 산성 67  
 삼도무문사(三道撫問使) 60  
 삼변수당(三邊守幢) 48  
 삼전도(三田渡) 187, 241  
 서거정(徐居正) 184~185, 207~208  
 서거정묘(徐居正墓) 226  
 서경(西京) 108  
 서부(西部) 240  
 선릉(宣陵) 225, 244  
 선탄(禪坦) 183  
 설영임(薛永任) 66  
 성경온(成景溫) 234  
 성곶(聲串) 241  
 성균시(成均試) 152  
 성녕대군(誠寧大君) 218

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聖德神功文武  
光孝大王) 216  
성임(成任) 202  
성황당(城隍堂) 209  
세고탄(洗姑灘) 185  
세종대왕 209  
세촌(細村) 239  
소감(少監) 40  
소광주원부인(小廣州院夫人) 85  
소부리(所夫里) 53  
소서노(召西奴) 32  
소쌍령(小雙嶺) 183  
소정방(蘇定方) 78, 173, 179  
소천군(沂川郡) 79  
송량우(宋良遇) 70  
송악동신당(松岳東神堂) 76  
송파진(松坡津) 241  
수곡서원(秀谷書院) 243  
수리산(修理山) 183  
수어사(守禦使) 237  
수어영(守禦營) 239  
수종사(水鍾寺) 207  
순원왕후(純元王后) 244  
순조대왕(純祖大王) 244  
신둔(辛屯) 110, 127, 230, 236  
신보군(神步軍) 94  
신복선사(神福禪寺) 162, 207  
신숙주(申叔舟) 200  
신의왕태후(神懿王太后) 210  
신주(新州) 25, 36

신주정(新州停) 45  
신천진(新川津) 241  
신혈사(神穴寺) 86  
실촌(實村) 240  
십제(十濟) 31, 52  
○  
아단성(阿旦那城) 37  
아차산(峩嵯山) 103  
아차성(阿旦那城) 36  
안노생(安魯生) 229  
안무사(按撫使) 174  
안보(安輔) 159  
안성(安省) 230  
안지(安止) 201  
암사(巖寺) 208  
압구정(狎鷗亭) 190  
약정사(藥井寺) 207  
양광도(楊廣道) 77  
양길(梁吉) 49  
양주(楊州) 49, 139  
어태(御胎) 183  
어효침묘(魚孝瞻墓) 227  
연주(彦州) 240  
여단(厲壇) 209  
여진 94  
연등대회(燃燈大會) 61, 117  
연산도(燕山道) 131  
연창군(延昌郡) 149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 염신약(廉信若) 99  
 염계신(廉悌臣) 128  
 염흥방(廉興邦) 233  
 영순군묘(永順君墓) 226  
 영장산(靈長山) 183  
 영평현(鈴平縣) 148  
 오가립(鄔可立) 198  
 오간(烏干) 31  
 오달제(吳達濟) 244  
 오사충묘(吳思忠墓) 226  
 오윤겸(吳允謙) 243  
 오주서(五州誓) 46  
 오포(五浦) 239  
 온조(溫祚) 51, 53  
 온조왕(溫祚王) 30, 77  
 온조왕고성(溫祚王古城) 227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243  
 왕규(王規) 108  
 왕륜(旺倫) 241  
 왕륜사(王輪寺) 127  
 왕성(王城) 132  
 왕월(王鉞) 195  
 요탄역(饒吞驛) 91, 115  
 용구현(龍駒縣) 37  
 용진(龍津) 186  
 용호군(龍虎軍) 116  
 우대(優台) 32  
 운길산(雲吉山) 183  
 원경왕후(元敬王后) 175  
 원경왕후(元敬王后) 209  
 원적산(元寂山) 183  
 월곡(月谷) 241  
 위례(慰禮) 52, 55  
 위례성(慰禮城) 34, 35, 37, 53, 78, 173, 179, 228  
 유백유(柳伯濡) 235  
 유비(劉斐) 196  
 유수(留守) 238  
 유창묘(柳敞墓) 226  
 유탁(柳濯) 126  
 6정(六停) 45  
 육왕(六旺) 240  
 윤관(尹瓘) 94, 96  
 윤언민(尹彦旼) 145  
 윤언이(尹彦頤) 96, 144  
 윤종언양(尹宗言易) 148  
 윤집(尹集) 244  
 윤포(尹誦) 146  
 윤해(尹骸) 160  
 윤희(尹淮) 222  
 의곡(義谷) 241  
 의안(義安) 65  
 2등공신 71  
 이계당(二闕幢) 47  
 이계손묘(李繼孫墓) 227  
 이곡(李穀) 182  
 이궁(二弓) 47  
 이규보(李奎報) 205  
 이극감(李克堪) 231  
 이극균(李克均) 232

- 이극기(李克基) 232  
 이극배(李克培) 231  
 이극배묘(李克培墓) 226  
 이극증(李克增) 232  
 이극증묘(李克增墓) 226  
 이당(李唐) 235  
 이당필(李唐必) 109, 121  
 이덕형(李德馨) 237  
 이돈실(李敦實) 120  
 이득림(李得霖) 72, 127  
 이령(梨嶺) 183  
 이문형(李文炯) 203  
 이문화묘(李文和墓) 227  
 이색(李穡) 185, 210, 230, 235  
 이서림(李瑞林) 150  
 이성산성 55  
 이세좌(李世佐) 232  
 이세화(李世華) 151, 229  
 이손(李孫) 232  
 이승인(李崇仁) 230  
 이승소(李承召) 202  
 이승손묘(李承孫墓) 227  
 이승원(李承源) 108  
 이식(李軾) 147  
 이양중(李養中) 242  
 이예손(李禮孫) 231  
 이원묘(李原墓) 226  
 이의건(李義健) 243  
 이인복(李仁復) 103  
 이인손(李仁孫) 230  
 이인임(李仁任) 111  
 이인정(李仁挺) 65  
 이일숙(李日肅) 118  
 이자안(李子安) 168  
 이장대(李將大) 109, 121  
 이장손(李長孫) 230  
 이점(李沾) 232  
 이정충(李正忠) 90  
 이지강(李之剛) 230  
 이지강묘(李之剛墓) 227  
 이지유(李之柔) 230  
 이지직(李之直) 230  
 이진(李璡) 102, 157, 229  
 이집(李集) 168, 230, 235, 242  
 이충언(李愨言) 85  
 이형연(李炯然) 197  
 이혼(李混) 101, 228  
 이후원(李厚源) 243  
 인릉(仁陵) 244  
 인주(仁州) 52  
 『일본서기』 55  
 일장각(日長閣) 239  
 일장산(日長山) 182  
 일장산성(日長山城) 177, 228  
 일장성(日長城) 78  
 임견미(林堅味) 204, 233  
 임관(林觀) 213  
 임밀(林密) 128  
 임사홍(任士弘) 236  
 임숙영(任叔英) 243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ㅈ

자연도(紫燕島) 134  
 장경왕후(章敬王后) 227  
 장곡역(長谷驛) 57  
 장군(將軍) 37  
 장령(張寧) 194  
 장선(張瑄) 66  
 장수왕 55  
 장여필(張汝弼) 197  
 장완(張琬) 194  
 재해 61  
 정금원(鄭金院) 207  
 정능(貞陵) 244  
 정란종묘(鄭蘭宗墓) 226  
 정몽주(鄭夢周) 210, 230  
 정사공신(定社功臣) 224  
 정성근(鄭誠謹) 242  
 정수명(鄭守明) 233  
 정엽(鄭曄) 242  
 정온(鄭蘊) 244  
 정이오(鄭以吾) 204  
 정주신(鄭舟臣) 234  
 정창손묘(鄭昌孫墓) 226  
 정척묘(鄭陟墓) 227  
 제감(弟監) 39  
 제승헌(制勝軒) 239  
 제안대군묘(齊安大君墓) 227  
 조맹(趙孟) 103  
 조보(趙輔) 194

조속(趙涑) 243  
 조운홀(趙云伣) 102, 232  
 조추(趙秋) 233  
 조희고(趙希古) 68, 127  
 졸본부여 53  
 좌리익대공신(佐理翊戴功臣) 232  
 좌명공신(佐命功臣) 225  
 좌승당(坐勝堂) 239  
 주례(周禮) 176  
 주몽(朱蒙) 30, 51  
 주장성(畫長城) 28, 78, 228  
 중대(中垔) 240  
 중종대왕(中宗大王) 244  
 지광주(知廣州) 135  
 지진 58, 76, 116  
 지채문(智蔡文) 88, 90, 228  
 지평현(砥平縣) 129  
 직산(稷山) 52  
 진가유(陳嘉猷) 193  
 진강나루(鎭江渡) 79  
 진숙(陳淑) 135  
 진승(秦昇) 198  
 진지(陳贇) 199  
 진촌진(津村津) 175

ㅊ

착금감(着衿監) 45  
 착금기당주(著衿騎幢主) 42  
 채빈(蔡斌) 128

채충순(蔡忠順) 86  
 천녕군(川寧郡) 79  
 천수(天授) 113  
 천왕사(天王寺) 110, 127, 139  
 천천현봉수(穿川縣烽燧) 188  
 철원(鐵圓) 49, 61, 114  
 청계산(淸溪山) 182, 223  
 청풍루(淸鳳樓) 188  
 청풍정 166  
 청풍정기(淸風亭記) 182  
 초동산(草洞山) 183  
 초벌리(草伐里) 177  
 초부(草阜) 240  
 초월(草月) 240  
 초적(草賊) 123  
 최경지(崔敬止) 203  
 최사위(崔士威) 143  
 최상(崔尙) 60  
 최운해(崔雲海) 74, 106  
 최유청(崔惟淸) 98, 119  
 최윤도(崔允道) 236  
 최항(崔恒) 190  
 최항묘(崔恒墓) 226  
 추령(楸嶺) 184  
 추모왕(鄒牟王) 51  
 『춘추(春秋)』 167

E

탄천(炭川) 185

태봉(泰封) 114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 175  
 토공(土貢) 122  
 토산물 공납 63

표

판교원(板橋院) 206  
 패강진(溟江鎭) 28  
 평구도(平丘道) 81  
 평원대군묘(平原大君墓) 225  
 표문 124  
 찻비 75

ㅎ

하남(河南) 138  
 하남도(河南道) 77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 30~31, 52  
 하륜(河崙) 212  
 한계희묘(韓繼禧墓) 226  
 한구(韓述) 233  
 한기(韓杞) 89  
 한남도(漢南道) 143  
 한명회(韓明滄) 190  
 한발 79  
 한산(漢山) 29  
 한산군(漢山郡) 36  
 한산정(漢山亭) 37, 39  
 한산주(漢山州) 28~29, 78

하남시 사료집 1[고대·중세편]

한산주도독(漢山州都督) 26  
 한산주서(漢山州誓) 39  
 한산주소감 26  
 한수(漢水) 173, 227  
 한수(韓脩) 187  
 한주(漢州) 78, 137, 174  
 한확묘(韓確墓) 225  
 함부림묘(咸傅霖墓) 226  
 항마군(降魔軍) 94  
 항충(項忠) 196  
 해부루(解扶婁) 32  
 행궁(行宮) 239  
 허정(許貞) 94, 118  
 헌능(獻陵) 209, 215, 244  
 현절사(顯節祠) 243  
 현종(顯宗) 115  
 혜목산(慧目山) 138, 141  
 호연(浩然) 236

호연지기(浩然之氣) 168  
 홍건적(紅巾賊) 68, 204  
 홍선(洪瑄) 68  
 홍익한(洪翼漢) 244  
 홍자번(洪子藩) 100  
 화척(火尺) 41  
 황무현(黃武縣) 36  
 회안(淮安) 78, 174  
 효령대군 218  
 후광주원부인(後廣州院夫人) 85  
 흑의장창말보당주(黑衣長槍末步幢主)  
 43  
 흥왕사(興王寺) 61, 117  
 홍자번(洪子藩) 228  
 홍적(洪迪) 236  
 희릉(禧陵) 227  
 희양원(曦陽院) 141

우리 하남시는 역사와 민족의 숨결이  
배어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河南省史料集 1〔古代·中世篇〕

---

1998년 2월 20일 인쇄  
1998년 2월 28일 발행

편저자 : 김세민(金世民)·장득진(張得振)

발행인 : 구자관(具滋寬)

기획·편집 : 이훈범(李勳範)

발행처 : 하남문화원(河南文化院)

경기도 하남시 덕풍1동426-10(구 시청 2층)

(전화 0347-795-1020)

(팩스 0347-791-1522)

인쇄처 : 신서원(전화 02-739-0222)

이 책은 국비 및 하남시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음.  
무료로 배부하는 책입니다.

注點今言扶餘郡者復上古之名也百濟三姓扶氏故  
稱之或稱餘州者郡西資福寺高座之上有繡帳焉其  
繡文曰統和十五年丁酉五月日餘州功德大寺繡帳  
又昔者河南置林州刺史其時固藉之內有餘州二字  
林州今佳林郡也餘州今之扶餘郡也百濟地理志曰  
後漢書曰三韓凡七十八國百濟是其一國焉北史云  
百濟東北新羅西南限大海北陰婁江其郡曰居扶城  
又云固麻城其外更有五方城通典云百濟南接新  
羅北距高麗西限大海舊唐書云百濟扶夫之別名  
東北新羅西渡海越州南渡海至陸北高麗其王所居